

발간등록번호

11-1240000-000666-10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3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2013. 11.

주 의

1. 이 보고서는 통계청에서 수행한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
용역사업 결과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통계청이 소유하며, 통계청은 정책상
필요시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출문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경제활동인구조사 2013년 정기 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과제 의 최종 연구결과물로 제출 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한국조사연구학회장 김 영 원 ㉠

연구진

책임연구원	고려대학교 최 중 후 교수
연구원 (통계전문가)	호서대학교 강 현 철 교수
연구원 (표본전문가)	한신대학교 변 중 석 교수
	고려대학교 정 재 풍
연구보조원	고려대학교 정 준 영
	고려대학교 윤 훈 상

품질보고서

『경제활동인구조사』 품질보고서

2013. 11.

차 례

1. 개요	1
1.1 품질진단개요	1
1.2 통계개요	2
2. 차원별 품질 상태	4
2.1 관련성	5
2.2 정확성	5
2.3 시의성/정시성	9
2.4 비교성	10
2.5 일관성	10
2.6 접근성/명확성	11
3. 결론	12

1. 개요

1.1 품질진단개요

품질보고서는 통계청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일환으로 통계의 품질상태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 보고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승인번호 10104호)에 관한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 나타난 통계의 품질상태를 밝혀줌으로써 통계 이용자들에게 이 통계의 유용성을 알리고 통계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08년에 정기통계품질진단을 받은 바 있는데 2008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한 통계품질진단 보고서에서 진단프로세스별로 도출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통계청, 2008).

첫째, 품질관리기반에서는 매월 통계를 생산해야 하는 긴박함과 업무량이 과도하여 작성자들의 작업환경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통계활용실태 및 이용만족도와 관련하여 일반이용자 및 전문이용자들은 실업률의 적극적인 현실 반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공식실업률과 체감 고용사정간 격차를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등에서 작성하고 있는 실업 이외 불완전고용에 관한 보조지표의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시군구 단위까지 통계를 확대·제공하여 지역 데이터로서 활용가치 창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밖에 시계열 자료의 단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점, 원시자료 등에 대한 사용의 불편함과 자료 요청시 절차의 까다로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통계작성절차의 적합성에 대한 진단에서 표본의 성질을 보다 엄밀히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오차에 대한 산식과 표본 성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보 이용자의 수요와 그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조사항목의 수정·보완 작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금번 통계품질진단은 2008년의 통계품질진단 결과를 참고하면서,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품질관리 매뉴얼에 따라 통계작성환경의 부문별로 엄밀히 분석함으로써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통계품질이 품질차원별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통계품질진단은 통계품질차원으로 구분할 때 관련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시의성 및 정시성(Timeliness and Punctuality), 비교성(Comparability), 일관성(Coherence), 접근성 및 명확성(Accessibility and Clarity) 등의 측면에서 진단하게 된다. 정확성은 통계작성자 측면의 품질을 의미하며, 관련성, 일관성, 접근성/명확성, 비교성, 시의성/정시성은 이용자 측면의 품질을 의미한다. 시의성과 정확성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1.2 통계개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인 노동 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의 활용정도를 파악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파악하는 데 작성목적이 있다.

본 통계는 통계법 제 17조 1항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로 승인번호는 제 10104호(1962.6.1)이며, 작성기관 및 주관부서는 통계청 고용통계과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최초 작성년도는 1963년이며, 조사주기는 매월이다. 인적사

향, 경제활동상태, 취업자사항, 실업자사항, 비경제활동인구항목 등 본조사가 시행된 후에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 8월), 최종학교졸업시기, 취업관련 준비 등의 대한 청년층 부가조사(5월), 구직 및 취업경험, 장래 근로에 대한 희망 등의 대한 고령층 부가조사(5월), 사업자금의 조달방법, 창업자금의 규모 등의 대한 비임금근로 부가조사(8월)의 부가조사가 수행된다.

조사대상에서 조사단위는 개인이며, 모집단은 조사대상 월에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자 중 만 15세 이상인 자(단, 현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소년원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경비교도대 등은 제외)이다.

조사대상 범위는 표본가구내에 상주하는 자 중 만 15세 이상인 자이다. 조사규모는 32,000가구의 표본조사이다. 조사대상 기간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토요일)이며, 조사기간은 조사대상 기간 다음 1주간이다.

조사방법은 면접조사, 전화조사, 인터넷조사가 동시에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조사직원이 각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면접과 동시에 조사내용을 PDA에 내장된 전자조사표(CAPI)에 직접 입력하며, 부재가구 등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화 또는 자기기입식 조사도 일부 허용하고, 희망 적격 가구에 대하여는 전화면접조사(CATI)와 인터넷조사(CASI)를 가구 상황에 맞게 실시하고 있으며, 준비조사 기간에는 보조조사표를 배부하면서 가구변동 내용을 사전에 파악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직원은 상용조사원이며, 성별통계 조사항목이 있고 통계표가 있다.

공표주기는 매월이며, 공표시기는 매월 조사대상기간 다음 4주째 수요일이다. 보도자료와 인터넷, 간행물로 공표한다. 통계간행물명은 ‘경제활동인구월보’와 ‘경제활동인구연보’이며, 통계 DB는 국가통계포털 사이트 <http://kosis.kr>에 수록되어 있다.

2. 차원별 품질 상태

차원별 통계품질 상태로 다음의 6개 부문의 차원을 진단하게 된다.

- ① 관련성(Relevance)
- ② 정확성(Accuracy)
- ③ 시의성 및 정시성(Timeliness and Punctuality)
- ④ 비교성(Comparability)
- ⑤ 일관성(Coherence)
- ⑥ 접근성 및 명확성(Accessibility and Clarity)

2.1 관련성

관련성은 이용자 관점에 초점을 둔 차원으로 통계의 포괄범위와 개념, 내용 등이 이용자 요구에 부합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통계이용자에게 얼마나 의미있고, 유용한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개념이다.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통계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자 파악, 전문가 자문회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것이 통계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경제활동인구지침서, 경제활동인구연보 등에 통계작성 목적 및 활용분야에 대해 명시하고 있어 이용자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관련 통계에 대한 검토는 표본개편 시(1969년, 1972년, 1977년, 1988년, 2003년,

200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5년 단위로 실시되는 지수개편 시에는 사업체노동력조사, 경제총조사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모집단 자료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한 이용자 요구 및 이용실태 파악을 위하여 간행물 배부처 명부,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명부, 자문회의 참석자 명부와 정책고객 명부, 자료 요청자 명부 등이 관리되고 있다. 이는 통계청 대변인실, 정보서비스팀에서 관리한다.

통계작성 담당자와 이용자 그룹 간 토론회는 실시된 바 없지만, 조사개념, 분류 등 조사내용 변경이 있으면 자문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용자 의견수렴은 통계정책과에서 통계수요조사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에서는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분류체계 등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통계청은 통계자료 제공규정을 마련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료제공범위를 심의하는 통계자료 제공심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관련성 차원에서 지적해 두고자 하는 점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한 이용자 요구 및 이용실태 파악을 위하여 통계작성 담당자와 이용자 그룹 간 토론회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유용한 통계작성에 더욱 다가서야 한다는 점이다.

2.2 정확성

정확성이란 추정값과 알려지지 않은 모집단의 미지의 참값과 근접하는 정도를 말한다. 대부분의 통계는 알 수 없는 참값을 추정하게 되는데, 정확성

은 미지의 참값과 추정된 값과의 근접성에 대한 개념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조사통계이며, 포괄범위, 표본추출, 응답 및 무응답, 작성 과정 등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하며, 오차의 크기가 작을수록 정확성이 높은 통계가 된다. 정확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표본설계, 표본오차, 비표본오차의 정도 및 잠정치와 확정치 간의 차이, 자료수집방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2012년 가구부문 경상조사 표본개편 결과’ (자체설계 : 통계정책국 표본과, 2012년 11월)와 승인통계현황 메타정보(http://kostat.go.kr/portal/korea/kor_pi/2/8/index.static)에 기반을 두고 이를 살펴본다.

모집단 정의에서 모집단의 구체적인 설정이 적절하며, 목표 및 조사 모집단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조사단위가 가구로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다. 표본추출틀 구성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구 중에서 섬조사구와 시설조사구를 제외한 보통 조사구 및 아파트조사구에 총조사 실시 이후의 신축아파트 조사구를 포함하여 최종 24,094개 조사구를 표본틀로 구성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표집틀이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사모집단에서 일반조사구 및 아파트조사구만 대상으로 한다. 연동표본교체로 인한 시계열 안정성 유지 및 업무량 고려한 표집틀 운영을 위하여 광역조사구/일반조사구를 사용한다. 표본추출방법을 보면 조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PSU 및 SSU의 확률비례계통 추출법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표본의 크기는 과거 조사결과 및 목표 상대 표준오차를 산출하여 표본크기를 산정한다. 광역단위 실업자 수 기준으로 연간 상대표준오차는 전국 3%, 시도는 5%, 10%, 12% 수준에서 표본크기를 산정한다.

정확성 차원에서 지적해두고자 하는 점은 표본크기 산정 및 표본배정 등의 검토는 적절하지만 주요범주별 최소 표본수 및 예상 상대표준오차 등의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설계 가중치, 사후층화 조정 가중치를 반영하는데, 사후층화보정을 위해 25개 층별 추계인구의 성별, 연령별 자료 활용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가중치 영향의 검토를 위해 가중치분포에 대한 설명이 없고, 조사구기준 20가구 선정 후 5가구 조사시 실제 접촉 가구 수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무응답가구에 대한 가중치 검토 결과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추정산식을 보면 모수 및 표본오차 추정을 위해 적절한 추정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시군구 및 광역시도, 읍면부 및 영역별 등의 추정식이 제공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추정산식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연동표본설계이므로 동일한 설계 시점내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기간(차기 연동표본) 사이의 시계열 안정성 유지를 위한 표본설계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가 필요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고려하는 기타 사항들을 살펴본다.

통계작성 개편작업의 측면에서 표본설계보고서, ILO Working Group회의 참가보고서, TF회의 결과보고 등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조사 개편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개편에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며, 개편작업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내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개편작업과정 및 결과를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개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개편을 하고 있다. 시험조사실시, 자문회의 및 공청회 등이 개최 예정 중에 있다.

2013년 10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19차 국제노동통계인 총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에서는 사람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동저활용(Labour underutilization) 지표에 관

한 국제 기준을 마련하였고, 제 13차 총회(1982년)에서 결의된 노동력조사 기준을 30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국제기준을 정립한 바 있기에 우리나라도 이에 따른 후속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조사항목 내용의 명확함을 확보하기 위해 자문, 회의를 통하고, 조사항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작성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응답자 부담을 고려하여 조사항목 선정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표를 보면 조사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제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82년 이후 조사항목의 변경이 없었고, 2014년 조사표 개편을 예정하고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번 개편 시에는 조사항목 내용변경에 따른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사전조사 전후에 기관내, 외부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조사 측면에서 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정규조사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조사로 가구표본관리 지침서, 현장조사 종합매뉴얼을 통해 현장조사 관리를 위한 적절한 체계가 수립되어 있고, 현장지도 후 조사오류 및 시정조치 사례를 수집하며, 조사 대상가구에 이메일 공지를 실시한다. 조사기획과에서 매년 조사 직원 개인별 업무량(면접시간, 동선시간, 재방문시간 등)을 파악하여 업무개선에 노력함으로써 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장조사에서의 질의사항은 체계적으로 적절히 처리되고 있으며, 조사지침서에 조사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을 수록하고, 가구부문통합시스템 운영으로 인터넷으로 질의사항을 접수하고 답변을 게재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 가구부문통합시스템에 자료 입력을 위한 체계적인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고, 조사기획과에 의하여 표준화된 입력 프로그램과 자동화된 입력오류 점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 가구부문통합시스템을 통해 자료 내용검토 규칙

이 마련되어 있고, 내용검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숫자 정보에 대한 이상치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연보를 보면 실업자 수의 상대표준오차가 전국 3% 이하, 서울과 경기 6% 내외, 광역시 10% 내외이다. 경제활동인구연보에 상대오차가 큰 셀에 대하여 주의사항이 기재되지 않고 있는 점은 보완되어야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항목무응답은 인정되지 않고 단위무응답은 사후가중치 조정방법으로 처리된다. 단위 무응답률은 6%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단위 무응답률 공개가 필요하다.

2.3 시의성 및 정시성

시의성은 작성기준시점과 결과공표시점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계의 현실 반영도와 관련된 개념이고, 정시성은 예고된 공표시기를 정확히 준수하는가에 대한 개념이다. 작성기준시점과 결과발표시점이 근접할수록 시의성이 높은 통계이다. 통계이용자들이 통계의 공표일정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일부 주요통계는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는데, 이러한 사전공표 일정을 정확히 준수할수록 정시성이 높은 통계이다.

고용동향 보도자료 등을 보면, 조사대상기간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토요일)이며, 그 다음 주간에 조사를 실시하고 공표는 고용동향 월별 공표 일정에 따라 익월 둘째주 수요일이므로 19일 이하의 시차가 있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시의성 및 정시성을 충족시키고 있다.

2002년부터 통계조사결과 사전예고제 실시에 따라 매년 초 연간 공표일정을 공시하고 있으며 연간 공표일정을 고용동향 보도자료,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 공시하고 있다.

2.4 비교성

통계자료는 시간 또는 공간이 달라도 동일한 개념, 분류, 측정도구, 측정과정 및 기초자료 등을 기준으로 집계되어 서로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비교성은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자료가 비교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

비교성은 특정 통계에 대하여 다른 나라, 다른 도시 또는 다른 연도의 자료와 비교가 가능한지를 보는 것으로, 국제 비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준 및 분류, 평가방법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통계 작성에 필요한 정의, 기준 및 분류체계는 한국산업분류(ISIC Rev.4), 한국직업분류(ISCO-08)를 준수하고, ILO 노동력조사 등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성 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인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4-5년마다 표본개편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표본개편 시에는 가중치 변경과 한국표준산업분류(ISIC Rev.4) 및 한국표준직업분류(ISCO-08)개정에 의한 조사 항목 응답범주의 조정에 따라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개편결과 보고서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

2.5 일관성

일관성은 동일한 경제와 사회현상에 관해 작성된 통계자료들의 유사 또는 근접한 정도를 말한다. 잠정자료와 확정자료, 연간자료와 분기(월)자료, 각 통계조사와 국민계정은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되었더라도 동일한 현상을 반영하는 통계자료들은 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야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유사한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 독보적인 통계이기 때문

에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간 자료와 월 자료 비교분석을 통한 정합성 검증
을 실시함으로써 일관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일관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
제가 없어 보인다.

2.6 접근성 및 명확성

접근성은 이용자가 얼마나 쉽게 통계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가 하는 물리
적 조건을 말하며, 명확성은 이용자의 통계자료 이용 편의성 제공 정도를 말
한다.

통계자료의 DB화, 간행물 및 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시, SMS로 속보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기
능을 추가하는 것 등이 통계의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이 된다.

또한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통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통
계작성과정, 자료이용방법, 마이크로데이터 이용방법, 적절한 메타자료 및 품
질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 통계의 명확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월간 보도자료(월보), 경제활동인구조사연보, 통계청
KOSIS DB검색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조사한 항목
이 모두 공표되지 못하고 마이크로데이터가 제공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통
계의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계이용자들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와 통계설명 등도 비교적 잘 제공되고 있어 통계의 명확성도
양호하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통계개요, 자료 이용방법, 모집단 및 표본설계
관련정보를 고용동향 보도자료, 경제활동인구연보에 수록하고 있다. 또한 통
계의 작성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과 이용자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 등이 정리

되어 설명되어 있다. 또한 연동표본설계보고서, 경제활동인구연보에 표본개편과정, 개편방법, 개편결과 등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공표되고 있다. KOSIS에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되고,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월보), 경제활동인구연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고용동향 보도자료, 경제활동인구연보가 발간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 e-나라지표 등 주요 통계사이트와 링크가 되어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통계적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보이며 통계이용자들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와 통계설명이 비교적 잘 제공되고 있어 통계의 명확성도 양호하다.

3. 결론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차원별 품질 상태를 진단한 결과 전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조사는 월간으로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인 노동 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의 활용정도를 파악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파악하는 데 이용되는 독보적인 통계이다.

차원별 통계품질 상태를 6개 부문(관련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시의성 및 정시성(Timeliness and Punctuality), 비교성(Comparability), 일관성(Coherence), 접근성 및 명확성(Accessibility and Clarity)의 차원에서

진단해 보았을 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시의성 및 정시성, 비교성 부문에서 5점 만점을 획득했고, 관련성에서 4.80, 정확성에서 4.58, 일관성 3.00, 접근

성 및 명확성에서 4.25점을 획득하여 전반적으로 우수한 통계임을 알 수 있다.

관련성, 비교성, 정확성, 시의성 및 정시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이며, 접근성 및 명확성, 일관성 측면도 양호한 통계임을 알 수 있다.

요약문

최종결과보고서 요약문

연구과제명	「 경제활동인구조사 」 정기통계품질진단
주제어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품질
연구기간	2013년 4월 ~ 2013년 11월
연구기관	한국조사연구학회
연구진구성	책임연구원 : 최중후(고려대학교) 연구원 : 강현철(호서대학교) 변중석(한신대학교) 연구보조원 : 정재풍(고려대학교) 정준영(고려대학교) 윤훈상(고려대학교)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인 노동 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의 활용정도를 파악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파악하는 데 작성목적이 있다. 본 통계는 통계법 제 17조 1항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로 승인번호는 제 10104호(1962.6.1)이며, 작성기관 및 주관부서는 통계청 고용통계과이다. 조사주기는 매월이며,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 8월), 청년층 부가조사(5월), 고령층 부가조사(5월), 비임금근로 부가조사(8월)의 부가조사가 수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3년 품질진단 절차에 따라 ①품질관리기반 ②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실태 ③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④수집자료의 정확성 ⑤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 등 등 5개 부문에 걸쳐 품질진단을 실시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차원별 품질 상태를 진단한 결과 전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품질 상태를 6개 부문의 품질차원에서 진단해 보았을 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부문에서 5점 만점을 획득했고, 관련성에서 4.80, 정확성에서 4.58, 일관성 3.00, 접근성/명확성에서 4.25점을 획득하여 전반적으로 우수한 통계임을 알 수 있다. 결국, 관련성, 비교성, 정확성, 시의성 및 정시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이며, 접근성 및 명확성, 일관성 측면도 양호한 통계임을 알 수 있다.

차 례

제 1 장 개요	1
제 1 절 품질진단개요	1
1. 품질진단의 필요성	1
2. 품질진단방법	1
3. 품질진단의 전략	2
4. 기대효과	3
제 2 절 통계개요	4
제 3 절 중점 진단사항	8
제 2 장 품질진단결과	10
제 1 절 부문별 진단결과	10
1. 품질관리기반 진단	10
2.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	17
3.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진단	22
4. 수집자료의 정확성 진단	44
5. 통계자료 서비스 진단	47
제 2 절 개선과제별 개선방안	59
1. 시계열 단절	59
2. 보완적 실업지표의 개발	64

3. 이용자 편의정보 제공	69
4. 통계활동비와 응답사례비	70
제 3 장 개선지원	72
제 1 절 보완적 실업지표의 개발	72
제 2 절 활용사례	78
제 3 절 해외사례	86
참고문헌	90
<부록>	92
1. 외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작성 현황	93
2. 표본설계 점검 결과보고	110
3. 수집자료 정확성 점검 결과보고	115
4. 공표자료 오류 점검표	120
5.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표	125
6. 경제활동인구조사표	130

표 차례

〈표 1.1〉 품질진단방법 개요	2
〈표 2.1〉 통계작성 인력 현황	12
〈표 2.2〉 통계작성관련 연도별 예산 규모	13
〈표 2.3〉 통계작성관련 정보자원 환경	14
〈표 2.4〉 통계작성 조직관리 실태 및 작성담당자의 인식정도	15
〈표 2.5〉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품질지표수	23
〈표 2.6〉 경제활동인구조사 작성절차별 가중치	24
〈표 2.7〉 작성절차별 진단점수 구분 및 품질수준 체계	24
〈표 2.8〉 작성절차별 및 품질차원별 지표 및 진단결과	26
〈표 2.9〉 작성절차별 진단 결과표	37
〈표 2.10〉 품질차원별 진단 결과표	38
〈표 2.11〉 주요 점검결과 요약	42
〈표 2.12〉 2012 경제활동인구연보 연평균 결과 주요항목별 표본오차	49
〈표 2.13〉 KOSIS 연평균 결과 주요항목별 표본오차	51
〈표 2.14〉 2012 경제활동인구연보 지역별 연평균 결과 주요항목별 상대표준오차	53
〈표 2.15〉 KOSIS 지역별 연평균 결과 주요항목별 상대표준오차	54
〈표 2.16〉 OECD에서 제공되는 전체 실업자 수	58
〈표 2.17〉 KOSIS에서 제공되는 전체 실업자 수	58
〈표 2.18〉 KOSIS에서 제공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세부 목록표	60
〈표 2.19〉 1963년~1993년 직업별 취업자 분기자료	61
〈표 2.20〉 1966년~1993년, 1993년~2000년 4차 개정에 의해 겹친 2년 분기자료	63
〈표 2.21〉 1993년~2000년, 2000년~2008년 5차 개정에 의해 겹친 2년 분기자료	63

〈표 2.22〉 2000년~2008년, 2004년~2013년 6차 개정에 의해 겹친 2년 분기자료	63
〈표 2.23〉 실업률 국제비교	65
〈표 2.24〉 외국의 고용보조지표 구성항목	68
〈표 2.25〉 개선과제 요약표	71
〈표 3.1〉 확장실업의 유형과 개념	75
〈표 3.2〉 핵심 노동저활용 지표	77
〈표 3.3〉 고용정보원사례 : 2013년 6월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	80
〈표 3.4〉 경제활동인구조사 국제 비교	87

그림 차례

<그림 2.1> 작성절차별 진단결과	37
<그림 2.2> 품질차원별 진단결과	38
<그림 2.3> OECD 홈페이지	57
<그림 2.4> 1970년~2010년 분기별 전문·기술 관련직 종사자	60
<그림 2.5> 1993년~2000년 직업별 취업자 분기자료에 대한 주석정보	61
<그림 2.6> 2000년~2008년 직업별 취업자 분기자료에 대한 주석정보	62
<그림 2.7> 2004년~2013년 직업별 취업자 분기자료에 대한 주석정보	62
<그림 3.1> 경제활동인구의 노동력 상태 구성	73
<그림 3.2> 노동저활용 지표 구조	77
<그림 3.3> 한국은행 이용사례 : 경기 및 고용순환	79
<그림 3.4> 성별, 연령별 청년층의 실업률 변화 추이(1985~1999)	81
<그림 3.5>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82
<그림 3.6> KDI 이용사례 : KDI 경제동향	83
<그림 3.7> 국회예산정책처 이용사례	84

제 1 장 개요

제 1 절 품질진단개요

1. 품질진단의 필요성

2013년 국가통계품질진단 대상 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 증,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인 노동 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의 활용정도를 파악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파악하는 중요한 통계이다. 특히 월별로 고용구조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독보적인 의의를 가지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중요성을 비추어 볼 때, 이 통계가 적절한 절차에 의해 정확하게 작성되어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지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품질진단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2. 품질진단방법

통계품질은 관련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시의성 및 정시성(Timeliness and Punctuality), 비교성(Comparability), 일관성(Coherence), 접근성 및 명확성(Accessibility and Clarity) 등 6가지 차원에서 진단하게 된다.

정확성은 통계작성자 측면의 품질상태를 의미하며 관련성, 일관성, 접근성/명확성, 비교성, 시의성/정시성은 이용자 측면의 품질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여기서 시의성과 정확성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통계 품질진단은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통계품질 목표를 세운 후 통계품질을 진단·관리 및 실질적 이행을 위한 방법제공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통계청에서는 품질관리기반,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실태,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수집자료의 정확성, 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 등 5단계 부문에 대한 품질진단방법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통계청, 2013a).

품질진단 대상인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해서도 <표 1.1>과 같이 5개 측면에서 통계품질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한 진단팀(한국조사연구학회)의 품질진단은 통계청의 품질진단 방법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표 1.1> 품질진단방법 개요

품질관리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작성현황 및 조직관리 실태파악 - 인적·물적 자원 확보 현황 파악 - 애로 사항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관리기반 현황표 활용 (작성여건, 담당자 인식조사) ☞ 작성담당자 면담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이용 실태 및 요구 사항 파악 - FGI를 통해 이용자 요구사항 파악 - 심층면접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진단서 활용 ☞ FGI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아이디어 수집
세부작성 절차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작성 기획 및 설계 - 자료수집 대상 및 기준 설정 - 자료입력 및 처리 - 통계자료 공표, 자료제공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진단서 활용 ☞ 진단팀 진단 실시
수집자료의 정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표본오차 및 오류 점검 - 자료수집시스템의 적합성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 진단 양식 활용 ☞ 현장 방문 및 담당자 면담 ☞ 발생원인별 비표본오차 점검
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자료 수치오류 점검 - 이용자 정보제공 정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표자료오류점검 지침 활용 ☞ 이용자편의사항 점검표 활용
종합 진단 및 품질 개선 전략 제시		

3. 품질진단의 전략

품질진단은 품질진단 과정에서 진단팀과 통계작성기관이 함께 통계 품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검토 논의함으로써 품질진단 후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의 품질이 개선되고 통계작성기관의 사기도 높아질 수 있도록 동반자 입장에서의 선순환적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품질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 높은 국가통계작성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신뢰성 높은 국가통계 품질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통계품질진단 관련 자료는 문서화되고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공유되어 통계작성기관과 유사 통계 작성자가 앞으로 통계 품질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통계품질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품질진단

국가통계의 경우 작성자와 이용자가 품질진단과정에서 품질의 중요성을 인지토록 해야 한다. 통계 작성자로 하여금 통계작성 과정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도록 하여 약점으로 진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해당 통계품질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한다.

2) 진단대상 통계작성기관의 통계 개선을 위한 품질진단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품질진단 결과를 토대로 작성 통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3) 통계 생산자 측면과 이용자 측면을 모두 고려한 품질진단

이제까지 통계품질은 생산자 측면, 또는 이용자 측면에서만 주로 검토되었으나 두 측면이 모두 중요하다. 따라서 보다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품질진단을 실시하여 생산자와 이용자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진단할 필요성이 있다.

4. 기대효과

통계작성기관이 품질진단 결과를 종합·분석함으로써 해당 통계의 품질 현황을 파악하고 품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전반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통계품질 진단과정을 통해 통계작성기관이 통계품질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통계작성의 자긍심도 고취하며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진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통해 국가통계 품질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향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적합한 품질진단체계를 마련한다.

제 2 절 통계개요

1. 조사개요

1.1 조사목적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 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조사대상

1) 대상객체

매월 15일 현재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자.

단, 현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소년원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경비교도대 등은 제외

2) 조사범위

매월 15일 현재 표본가구 내에 상주하는 자 중 만 15세 이상인 자. 단, 현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소년원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경비교도대 등은 제외

3) 조사단위

표본가구 : 표본조사구역 내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구

4) 조사지역

조사구선정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 26,505개 조사구와 총조사 실시 이후부터 표본개편시까지 신축아파트의 10% 506개 조사구를 추가하여 27,011개 조사구를 추출단위 조사구로 설정

지역별 표본 수에 따라 계통추출 실시: 1,629조사구(동부: 1,233,읍·면부: 396)

표본조사구역선정 : 표본조사구를 평균 5가구씩 묶어서 구역으로 분할한 후, 임의추출된 구역을 기준으로 인접된 구역 4개 추출하여 표본조사구역으로 선정

1.3 조사방법

조사직원이 각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면접과 동시에 조사내용을 PDA에 내장된 전자조사표(CAPI)에 직접 입력하며, 부재가구 등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화 또는 자기기입식 조사도 일부 허용

희망 적격 가구에 대하여는 전화면접조사(CATI)와 인터넷조사(CASI) 조사

1.4 조사항목

2005년 1월 이후	2006년 1월 이후	2008년 1월 이후
<input type="checkbox"/> 인적사항(6) 1) 가구원 관리번호 2) 가구주와의 관계 3) 성별 4) 생년월일 5) 교육정도 6) 혼인상태	6) 사별·이혼 분리	5)교육정도 선택지문 지문수정 고졸의 사범계열 삭제
<input type="checkbox"/> 확인항목(5) 7)활동상태 8)취업여부 9)일시휴직 여부 및 이유 10)1주간의 구직여부 11)4주간의 구직여부	9) 일시휴직 여부 및 이유 지문수정 12.연가, 교육-> 연(휴)가, 교육 13.가족적이유->육아·가족적이유 15.조업중단->사업부진·조업중단	9)일시휴직 여부 및 이유 세분 12연(휴)가, 교육 ->12.연(휴)가, 13.교육

<input type="checkbox"/> 취업자 항목(6) 12)부업여부 13)취업시간 14)36시간미만 일한 이유 15)추가취업 및 전직희망 여부 16)추가취업 가능성 및 가능시기 17) 추가취업 탐색여부	14) 36시간미만 일한이유 지문수정 23. 연가, 교육 -> 연(휴)가, 교육, 공휴일	14)36시간 미만 일한이유 세분 23.연(휴)가, 교육, 공휴일 -> 23.연(휴)가, 공휴일 24. 교육
<input type="checkbox"/> 실업자 항목(7) 18) 취업 가능성여부 19) 구직경로 20) 구직기간 21) 희망 고용형태 22) 희망근무형태 23) 취업제의여부 24) 미취업 여부		19)구직경로와 방법을 구분하여 조사 21) 희망근무형태 23) 취업제의 여부 24) 미취업사유 삭제
<input type="checkbox"/> 비경제활동인구 항목(4) 25) 취업희망여부 26) 취업가능성여부 27) 비구직사유 28) 지난 1년간 구직경험 여부 및 최근 구직시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항목(7) 29)전직 유무 및 이직시기 30) 이직 이유 31) 산업 32) 직업 · 종사자규모 33) 종사상의 지위 34) 취업시기 35) 고용계약 여부 · 기간	31)직업코드 세분 - 2자리->3자리 35) 고용계약기간 지문 수정 1. 1개월이하-> 1개월미만 2. 1개월초과~1년미만 -> 1개월이상~1년미만	32) 고용계약 기간 세분 ④ 1년초과~2년이하 ⑤ 2년초과~3년이하 ⑥ 3년초과

출처 : 2012 경제활동인구연보

1.5 조사결과 공표

1) 공표방법

보도자료 : 조사대상주간(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이후 네 번째 주 수요일

인터넷 게재 : 조사대상주간(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이후 네 번째 주 수요일

「경제활동인구월보」 : 조사대상 익월 말(25일경)

「경제활동인구연보」 : 매년 5월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5월말, 10월말),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7월말), 비임금근로 부가조사(10월말)

2) 공표범위

지역 : 전국 및 시·도

내용 : 경제활동 상태별, 연령계층별, 교육정도별, 산업별, 직업별 등

3) 공표주기

매월

4) 간행물명

「경제활동인구월보」

「경제활동인구연보」

「매월 고용동향 보도자료」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보도자료」

「청년층 부가조사 보도자료」

「고령층 부가조사 보도자료」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보도자료」

제 3 절 중점 진단사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하여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진단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3년 품질진단 절차에 따라 ①품질관리기반 ②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실태 ③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④수집자료의 정확성 ⑤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특히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실태 진단방법인 FGI와 심층면접을 진단초기에 실시하여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구하도록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2008년에 품질진단을 실시한 바 있는데 2008년 진단 프로세스는 ①품질관리기반 ②통계활용실태 및 이용만족도 ③통계작성절차의 적합성 ④자료수집 방법의 정확성 ⑤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2013년 진단절차 ①품질관리기반 ②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실태 ③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④수집자료의 정확성 ⑤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과 다소 상이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하여 2008년 품질진단에서 진단프로세스별로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품질관리기반에서는 매월 통계를 생산해야 하는 긴박함과 업무량이 과도하여 작성자들의 작업환경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②통계활용실태 및 이용만족도와 관련하여 일반이용자 및 전문이용자들은 실업률의 적극적인 현실 반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공식실업률과 체감고용사정간 격차를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등에서 작성하고 있는 실업 이외 불완전고용에 관한 보조지표의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시군구 단위까지 통계를 확대·제공하여 지역 데이터로서 활용가치 창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밖에 시계열 자료의 단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점, 원시자료 등에 대한 사용의 불편함과 자료 요청시 절차의 까다로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③통계작성절차의 적합성에 대한 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본의 측면에서 표본의 성질을 보다 엄밀히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오차에 대한 산

식과 표본 성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보 이용자의 수요와 그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조사항목의 수정·보완 작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실업률의 현실반영도를 높이기 위하여 보조지표의 다양한 활용과 유사통계(예를 들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상황)와의 비교를 통한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 밖에 부가조사의 경우 무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보완작업을 요구하고 있다.

④자료수집 방법의 정확성 측면에서는 대체 표본작업을 할 경우 그 대체 시기의 적절성과 표본수준의 유지와 관리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릴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⑤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과 관련하여 통계자료 제공 형태의 다양화를 제안하고 도표 외에 다양한 형태의 그림이나 GUI(Graphic User Interface)의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제 2 장 품질진단결과

제 1 절 부문별 진단결과

1. 품질관리기반진단

1.1 진단 개요

품질관리기반에 대한 진단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통계청 담당부서의 제반 여건을 진단하는 것이다. 통계작성 환경이 통계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단의 필요성이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이다. 품질관리기반 진단에서는 이 통계의 기본현황을 확인하고 담당부서의 물적·인적 통계작성 여건을 검토한 다음, 조직리더의 조직관리 실태, 담당자의 인식 등을 점검한다.

품질관리기반을 진단하기 위해 먼저 작성기관인 통계청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면담일정을 협의하고, 담당자를 면담하였다. 담당자 면담 시에는 통계청 품질관리과에서 제공한 품질관리기반 현황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작성기관 담당자의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기반 현황표의 재작성 및 보완을 요청한 후 현황표 집계 및 자료 분석을 토대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정리하였다.

1.2 기본현황 진단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인 노동 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의 활용정도를 파악하고,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파악하는 데 작성목적이 있다.

본 통계는 통계법 제 17조 1항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로 승인번호는 제 10104호(1962.6.1.)이며, 작성기관 및 주관부서는 통계청 고용통계과이다.

조사주기는 매월이며,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 8월), 청년층 부가조사(5월), 고령층 부가조사(5월), 비임금근로 부가조사(8월)의 부가조사가 수행된다. 공표주기는 매월이다.

조사대상에서 조사단위는 개인이며, 모집단은 조사대상 월에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자 중 만 15세 이상인 자(단, 현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소년원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경비교도대 등은 제외)이다. 조사대상범위는 표본가구내에 상주하는 자 중 만 15세 이상인 자이다. 조사규모는 32,000가구의 표본조사이다.

조사대상 기간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토요일)이며, 조사기간은 조사대상기간 다음 1주일이다.

조사방법은 면접조사, 전화조사, 인터넷조사가 동시에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조사직원이 각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면접과 동시에 조사내용을 PDA에 내장된 전자조사표(CAPI)에 직접 입력하며, 부재가구 등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화 또는 자기기입식 조사도 일부 허용하고, 희망 적격 가구에 대하여는 전화면접조사(CATI)와 인터넷조사(CASI) 조사를 병행한다. 조사직원은 상용조사원이다. 성별통계 조사항목이 있고 통계표가 있다. 공표시기는 매월 조사대상기간 다음 4주째 수요일이다. 통계간행물명은 경제활동인구월보와 경제활동인구연보이며, 통계DB수룩사이트는 <http://kosis.kr> 이다.

통계작성체계를 보면 조사기획, 현장조사, 자료처리, 결과분석 및 공표를 통계청 고용통계과에서 직접수행한다.

품질관리기반 현황표에 보고된 기본현황의 내용을 기초로 점검해 보았을 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에서 국가통계로서 승인받은 제반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3 통계작성 여건 진단

1) 인적자원 여건

통계담당 인력현황은 <표 2.1>에 제시되어 있다.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5명이 전담하고 있다.¹⁾ 고용동향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4급 1인, 고용동향분석을 담당하는 6급 2인, 고용동향처리를 담당하는 7급 1인, 8급 1인으로 통계작성 인력구성이 되어 있다. 현 보직 근무연수는 평균 2년 정도이며, 통계업무 경력은 평균 12년 정도이다. 최근 3년간 통계교육 이수실적은 평균적으로 5회 50일인 것으로 파악된다.

<표 2.1> 통계작성 인력 현황

(2013년 5월 현재)

직급/성명	성별	구체적인 통계업무	통계 업무 전담 정도 (본인 업무 100% 대비)	현 보직 근무연수	통계업무 경력	통계교육 이수 실적 (최근 3년간)
4급 ○○○	남	고용동향 총괄	90%	1년 7월	7년 4월	5회 15일
6급 ○○○	남	고용동향 분석	100%	2년 6월	15년 6월	6회 35일
6급 ○○○	여	고용동향 분석	100%	2년 6월	19년 3월	5회 45일
7급 ○○○	남	고용동향 처리	100%	5년 1월	7년 1월	7회 36일
8급 ○○○	여	고용동향 처리	100%	1년 5월	10년 8월	5회 21일
평균			98%	2년 7월	12년 0월	6회 30일

현재의 인적 자원 여건을 2008년 품질진단 당시와 비교해 보자. 2008년의 경우 고용통계팀이 담당했으며, 고용동향 총괄 4급 1인, 기획/분석 5급 1인, 행정지원 6급 1인, 지원 및 자료처리 7급 1인, 8급 1인 포함 5인이 담당하고 있었다. 조사원 규모는 640명(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 정도로 해당통계

1)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청 본청에서 조사 기획, 조사 결과 취합 및 분석, 자료 작성 등을 담당하지만, 지방통계청과 사무소에서 많은 조사원들이 현장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지방통계청은 5개, 사무소는 49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국에 걸쳐 이 통계의 현장조사를 담당하는 인원은 640명 규모로 해당 통계 이외의 조사를 중복 담당하고 있다.

의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2008년 당시 현 보직 근무연수는 평균 3년 7개월이며, 통계업무 경력은 평균 10년 8개월이다. 최근 3년간 통계교육 이수실적은 평균적으로 5회 20일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 보직 근무연수는 현재 2년 7개월로 2008년 평균보다 1년 짧아졌다. 그러나 2008년 당시 기획분석 인력이 10년 2개월 경력자가 있어, 이를 감안하면 평균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통계업무 경력은 현재 평균 12년으로 2008년의 10년 8월과 큰 차이가 없다. 최근 3년간 통계관련 교육훈련 이수 실적은 6회 30일로 2008년 평균 5회 20일보다 횟수와 날짜가 조금 늘어났다.

종합하면, 현재의 인적자원 여건은 2008년에 비해 인원수의 변동은 없고, 현 보직 근무연수, 통계업무 경력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최근 통계관련 교육훈련에서는 다소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물적자원 여건

통계작성 관련 예산규모는 <표 2.2>에 제시되어 있다. 총 예산규모는 2011년 1,534,499천원이며, 2012년 1,459,678천원, 2013년 1,535,101천원으로 나타났다. 이 예산은 인건비는 제외된 사업비 예산규모이다.

2008년 진단보고서에는 예산규모가 명시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으며 최근 3년 예산규모는 큰 변화없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2> 통계작성관련 연도별 예산 규모

(단위: 천원)

	2011년	2012년	2013년
자체실시	1,534,499	1,459,678	1,535,101
인건비	-	-	-
외부기관 위탁			
인건비			
합 계			

통계작성관련 정보자원현황을 보면, <표 2.3>과 같이 통계생산과 통계관리

를 위하여 가구부문통합시스템을 운영하며 운영장비는 오라클이고, 통계서비스는 KOSIS 시스템이며, 통계패키지는 SAS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자원환경은 2008년 품질진단 당시의 시스템과 운영장비, 통계분석패키지와 유사하다.

<표 2.3> 통계작성관련 정보자원 환경

통계업무단계	통계생산	통계관리	통계서비스
시스템 명칭	가구부문통합시스템	가구부문통합시스템	KOSIS
운영장비	오라클	오라클	오라클
통계분석패키지	PC형(또는 서버용) SAS		

1.4 조직관리실태 및 통계작성 담당자 인식 진단

통계관련 조직 관리실태 및 통계작성 담당자의 인식에 관한 설문 응답 결과를 요약한 것이 <표 2.4>에 제시되어 있다. 5점 척도로 조사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항목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조직관리 실태 측면을 보면 통계작성기관의 조직관리 실태를 묻는 질문에 대해 통계작성 담당자는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조직관리 실태 관련 5가지 질문에 대해 모두 “매우 그렇다” 라고 대답하였다. 통계청은 정부의 국가통계작성 및 관리의 주무 부처로서 통계의 품질관리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므로 통계품질관리를 위한 조직관리는 비교적 잘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본 조사를 담당하는 통계담당자의 통계업무 여건에 대한 인식 정도를 보면 평균 4.2점으로 통계작성 여건에 있어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업무량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등의 통계작성 여건이 “그렇다” 고 답하여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지원과 통계작성과정에서의 품질고려는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통” 이라고 응답하여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표 2.4> 통계작성 조직관리 실태 및 작성담당자의 인식정도

질문 내용		점수 (5점만점)
조직관리 실태	기관장의 통계품질 향상을 위한 비전과 가치관 제시 정도 및 역할의 측면	5
	부서장의 통계품질관리 필요성을 인식 정도 및 품질개선 추진 정도	5
	부서장의 통계품질관리 비전 달성을 위한 계획, 목표 수립 및 시행 정도	5
	작성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관리 정도	5
	통계담당 직원의 품질관리 능력 개발 및 품질관리 참여 정도	5
평균		5.0
통계담당자 인식	현재 맡고 있는 통계업무량은 적정량 정도	4
	현재 통계작성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의 적정도	4
	현재 통계작성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확보 정도	5
	통계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 정도	3
	통계작성 과정에서 품질 고려의 필요성 인식 정도	5
평균		4.2

1.5 통계작성 담당자와의 면담 내용

실무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담당 부서장은 통계청의 통계품질개선업무 수행 경험이 있으며, 이 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계에 대해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면담에서 통계담당자는 본 조사의 품질관리기반은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원의 업무수행 능력이 중요한데, 최근 현장조사원 정원은 정체되어 있고, 각종 부가조사 등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고용통계 관련 통계작성방식 개편이 2014년에 예정되어 있는 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산업무와 별도로 ILO 통계작성방식 개편과 표본개편에 따른 업무가 증가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예산 및 인력 확충이 요구된다.

1.6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위한 통계청의 품질관리기반은 전반적으로 우수하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는 통계품질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순환보직을 축소하여 당해 업무의 근무 연수를 늘이고 관련 교육기회도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력의 전문성 강화는 조사 및 분석업무의 강화까지 연결되어 통계의 품질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품질관리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통계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한 새로운 인사제도의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고, 조사 분석업무와 자문 등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의 확보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조사원의 업무수행 능력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 요건인데, 최근 현장조사원의 정원이 정체되어 있고, 각종 부가조사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

2.1 진단개요

생산되는 통계가 이용자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느냐는 통계품질 진단에서 매우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국가통계는 이용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계 이용자는 통계로부터 기대하는 정보를 충분히 얻기를 원한다. 품질이 우수한 통계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많이 가진 통계이다. 따라서 통계 이용자가 통계자료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조사하여 품질진단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통계작성기관은 통계의 이용자 리스트를 확보하고 수시로 이용자가 해당통계를 만족스럽게 이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계 생산자가 간과하고 있는 통계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통계작성 및 자료제공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 부문 진단은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이용자들의 통계자료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고, 요구 및 불만사항을 파악하여 이용자 측면의 품질진단을 실행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실태 부문의 진단은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정도를 측정하는데, 이를 위하여 통계 관련 이용자들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s)을 실시한 다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전반적인 만족도 진단을 실시한다.

2.2 표적집단면접(FGI)

표적집단면접(FGI)은 소집단을 형성하여 특정 주제에 대해 계획적이면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형태를 말한다. FGI는 전문이용자와 일반이용자를 중심으로 두 차례 실시하였다. 1차 FGI에서는 고용통계 이용에 전문성을 가진 이용자들(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및 연구원 3인과 한국은행 팀장 및 연구원 3인)로 선정하였고, 2차 FGI에서는 경기동향 분석 및 전망 연구를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하는 교수와 대학원생들(경제학, 통계학, 행정학 전공 교수 4인과 경제학 전공 대학원생 2인)로 선정하였다.

FGI에서 논의된 내용은 작성과정, 내용충실성, 활용편리성 부문으로 구분 지어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FGI에서 청취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1차 FGI

(1) 작성과정

첫째, 연동표본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추정량은 기존의 고정표본에서 사용된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연동표본 편의(Bias)를 고려한 복합추정량(Composite Estimator) 이용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메타자료에 분산추정량 공식만 제공되고, 상대오차 등 표본오차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통계치를 정확히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통계별 상대오차 등 표본오차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통계품질판단의 주요 기준인 무응답률에 대한 정보가 미제공되고 있으므로,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이용편의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 내용충실성

ILO등 국제기구의 기준에 의한 실업/고용통계를 작성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는 실업/고용통계의 보조지표 확충이 요구된다.

(3) 활용편리성

첫째, KOSIS 통계검색창에서 세부항목별 제공통계의 내용을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KOSIS의 '직업별 취업자'에서와 같이 제공하는 시계열 구간이 다른 경우 시계열 단절이 나타나므로, 시계열 단절 현상에 대한 설명이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시계열 단절 현상에 대한 문제는 제 2 장 제 2 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2) 2차 FGI

(1) 작성과정

첫째, 조사에 참여하는 가구는 36개월 동안 연속으로 매달 조사를 받게 되는데, 교체표본(Rotation Sampling)이 대표성과 조사의 안정성이라는 장점을 동시에 수용하기 위함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36개월 동안 조사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패널서베이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외국(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의 경우 6~8개월 동안 연속조사되는 방식으로 표본교체주기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표본가구가 조사에 머무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과 교체시스템 변경에 따른 모수추정방법에 대한 연구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매월 1/36비율의 표본교체만 발생하기 때문에 대표성이 떨어지고, 경제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되므로, 대표성 확보를 위한 Rotation System의 수정, 결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정방법의 개선, 추정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사대상기간이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인데, 명절효과 상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석 또는 설 명절이 낄 경우 조사대상기간을 앞뒤로 날짜를 조정해서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조사방법에서 기존 CAPI 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CAPI보다 Tablet PC를 활용하여 조사함으로써 조사시간 절약이 가능하다.

(2) 내용충실성

첫째, 실업률 통계가 노동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즉, 실업률 통계가 체감실업률 상황을 과소평가함으로 경기 상황판단을 위한 유용성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체감실업률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조지표가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실업률 통계가 경제구조의 변화(산업구조의 변화, 성장과 고용간 관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제활동인구/비경제활동인구 구분

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3) 활용편리성

첫째, KOSIS에서 자료제공 방식은 이용자의 사용편리성 보다 데이터 제공자의 분류편리성이 강조된 듯하다. 이를 이용자 관점에서 사용편리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둘째, 경찰통계의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메타 데이터 설명이 부족하고, 메타 데이터의 내용이 함축적이어서 메타 데이터의 내용이 보다 보강되어야 한다.

2.3 심층면접

FGI에서 제기된 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논의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산하 연구원에서 인력수급전망을 연구하는 담당자와 통계학 전공교수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에서 논의된 결과를 요약한다.

1) 자료제공범위

(1) 현재 일반 공개용 원자료의 경우 산업 및 직업분류가 대분류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 일부 기관의 경우 별도의 요청으로 산업 중분류, 직업 중분류 수준까지 제공 받는 경우가 있으나, 요청한 업무를 기준으로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동일 기관내에서도 자료 공개기준이 모호하다. 예컨대 한국고용정보원의 경우 중장기인력수급전망과 관련하여 직업·산업을 중분류 수준까지 제공받고 있지만, 동일센터 내에서 동향분석 업무를 위해서는 경찰 원자료 중 중분류 수준의 분석 연구를 할 수 없다.

(2) 중분류 자체의 상대표준오차가 크기는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자료공개 범위 확대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 그 예로, 국내 경기가 나쁨에도 지난해 이후 제조업 취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는 제조업 내에서의 세부 산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표본대체

경찰의 표본 관리에 따르면, 연동표본교체로 월 약 900가구씩 표본 교체가 되어 36개월이 경과하면, 그 이전 표본이 모두 교체되어야 하는 시스템인데, 일부에 오픈되는 경찰 패널자료를 보면 3년이 넘는 노후 표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표본 관리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3) 부가조사

부가조사로 고용형태를 상세히 질문하고 있으나, 매월 통계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종사상 지위에 부가적으로 고용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추가 질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시계열 분석

혼인상태(이혼, 사별 구분) 등 일부 변수의 범주가 연도에 따라 다르다. 시계열분석의 편의를 위해 범주에 대한 연도별 매칭테이블을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개념 설명 및 용어 정의

(1) 교육정도 컨버전 변수에서 현재 제공하는 변수의 경우 석/박사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변수 정의를 보다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학원(박사)+중퇴의 경우 대졸로 구분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석사 이후의 과정은 대학원 졸업으로 구분되어야 타당하다.

(2) 가중치 사용 : 경찰 원자료를 처음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상당수가 가중치 사용을 어려워하고 있다. 2013년부터 설계서 및 코드집 파일에 가중치 사용과 관련하여 설명을 추가하고 있으나, 1,000을 나눠야하는 이유, 분기/반기 가중치 사용 등 이를 처음으로 접하는 이용자는 이해가 어렵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6) 기타의견

조사목적은 다르지만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항목이 조사되고 제공되고 있다. 분석결과 2010년의 경우는 취업자비율(고용률)이 경찰과 인구센서스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2005년 이전 자료와 비교하면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진단

3.1 진단개요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진단에서는 통계작성 과정이 이 통계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조사함으로써 통계품질을 확인한다. 먼저 품질관리 매뉴얼이 제시하고 있는 조사통계에 대한 세부 작성절차별 점검표를 작성하여 통계품질 정도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품질요소 및 근거를 기술하여 진단한다. 여기서는 통계작성과정을 7개 부분의 작성절차별(① 통계작성 기획, ② 조사통계 설계, ③ 자료수집, ④ 자료입력 및 처리, ⑤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⑥ 문서화 및 자료제공, ⑦ 사후관리) 및 6개 부분의 품질차원별(① 관련성, ② 정확성, ③ 시의성/정시성, ④ 비교성, ⑤ 일관성, ⑥ 접근성/명확성)로 구분하여 품질을 진단한다.

품질관리 매뉴얼의 세부 작성절차별 점검표에는 총 38개의 품질지표에 대한 질문이 있으며, 이들 질문은 7개 작성절차별 부분으로 구분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6개 품질차원별 부분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38개 질문 가운데 4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해당되지 않는 질문이므로 제

외하면 진단에 사용되는 질문은 <표 2.5>에 표시된 바와 같이 작성절차별/품질차원별로 총 34개가 해당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관련이 없는 5가지 질문을 살펴보면, 자료수집 부문에서 (3-5)조사기획자의 조사직원의 조사관련 전문지식 숙지여부를 파악,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부문에서 (5-3)통계작성방법 변경 등이 통계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문서화 및 자료제공 부문에서 (6-9)동일 주제의 다른 통계자료와 비교는 본 통계와 관련이 없어 제외하였다. 또한 사후관리 부문에서 위탁작성 경우에 해당하는 문항(7-4)은 이 통계의 경우 작성기관이 직접 통계조사를 함으로 제외하였다.

<표 2.5>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품질지표수

(단위 : 개)

작성절차 품질차원	통계작성 기획	조사 통계설계	자료 수집	입력처리 및 처리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문서화 및 자료제공	사후 관리	합 계
관련성	3					1	1	5
정확성	1	5	5	4	2	1	1	19
시의성/정시성						2		2
비교성	1				1			2
일관성					1			1
접근성/명확성						4		4
기타							1	1
합계	5	5	5	4	4	8	3	34

각각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각 품질지표의 수준을 5점 척도로 표시하여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아니다’ (2점), ‘매우 아닙니다’ (1점)로 구분된다. 또한 품질지표에 작성절차의 중요도를 반영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체적인 품질수준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작성절차별 가중치는 아래 <표 2.6>과 같다.

<표 2.6> 경제활동인구조사 작성절차별 가중치

통계작성 기획	조사 통계설계	자료수집	입력처리 및 처리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문서화 및 자료제공	사후관리	합 계
15.1	17.9	16.6	11.4	15.1	14.9	9.0	100.0

품질진단 결과 작성절차별 진단점수가 나타내는 품질수준 및 그 의미, 관리체계 등은 <표 2.7>에 설명하고 있다. 진단점수가 90점 이상이면 품질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향후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자체진단으로 품질관리를 하도록 조치한다. 80점대는 품질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70점대는 관심대상, 60점대는 주의단계, 60점 미만은 미흡한 수준으로 개선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하면 삼진아웃제를 적용하여 통계의 폐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표 2.7> 작성절차별 진단점수 구분 및 품질수준 체계

진단점수	품질수준	수준의미 및 관리체계
90점 이상	우수	- 유지 체계 중점 관리, 정기품질진단 대상 제외, 자체진단으로 품질관리 - 조직개편, 인프라 변동 등 품질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시 품질진단을 실시하여 품질수준 점검
80~90점	양호	- 중점개선과제 발굴 추진, 우수로 진입이 가능토록 품질진단
70~80점	관심	- 개선노력이 필요하여 양호수준으로 진입하는 정밀진단 실시
60~70점	주의	- 집중관리로 정밀진단을 통해 1차 관심, 2차 양호수준으로 지원
60점 미만	미흡	- 통계부실로 총체적 차원에서의 정밀진단 및 지속강화 추진 * 다만, 계속 미흡수준을 유지할 경우 통계 폐지 검토 (삼진아웃제)

3.2 세부 작성절차별 진단 결과

1) 작성절차별 품질지표 평가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의 세부 작성절차별 점검표와 근거자료를 토대로 품질지표별 실행여부를 점검한다. 작성절차는 통계작성 기획, 조사통계 설계, 자료수집, 자료입력 및 처리,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문서화 및 자료제공,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되며, 각각의 질문항목에 대해 5점 척도의 평가를 표시하고 그 근거를 기술하였다. 5점 척도는 ‘매우 그렇다(5)’, ‘그렇다(4)’, ‘보통(3)’, ‘아니다(2)’, ‘매우 아니다(1)’로 구성된다. 작성절차별 품질지표 평가 결과는 <표 2.8>에 요약되어 있다.

<표 2.8> 작성절차별 및 품질차원별 지표 및 진단결과

작성 절차별 분류	조사통계 품질진단 지표	품질 차원별 분류	5점 척도 점수
1. 통계 작성 기획	1-1. 통계작성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관련성	5
	1-2. 이용자의 요구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관련성	4
	1-3.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분류, 체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관련성	5
	1-4. 국내·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정의, 기준 및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는가?	비교성	5
	1-5. 통계작성 개편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확성	5
2. 조사 통계 설계	2-1. 통계작성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정확성	5
	2-2. 조사표는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는가?	정확성	5
	2-3. 조사항목을 추가,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정확성	4
	2-4. 조사목적, 공표범위 등에 적절한 표본규모로 설계되어 있는가?	정확성	4
	2-5. 표본수준 유지를 위해 적절한 표본관리를 하고 있는가?	정확성	4
3. 자료 수집	3-1. 조사 직원을 위하여 조사와 관련된 상세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가?	정확성	5
	3-2. 조사기획자는 조사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정확성	4
	3-3. 현장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확성	4
	3-4. 조사기획자는 현장조사에 대한 단계별 업무량을 파악하고 있는가?	정확성	5
	3-5. 조사기획자는 조사직원의 조사관련 전문지식 숙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가?	정확성	무관
	3-6. 현장조사에서 발생한 질의사항은 시의 적절하게 처리되며, 모든 조사직원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가?	정확성	5
4. 자료 입력 및 처리	4-1. 자료입력을 위한 표준화된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정확성	5
	4-2. 자료 내용검토(에디팅)작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정확성	5
	4-3. 무응답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하고 있는가?	정확성	3
	4-4. 현장조사부터 집계, 분석 단계까지 적절한 내용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정확성	5

5. 자료 분석 및 품질 평가	5-1. 관련통계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자료 결과를 검증하고 있는가?	일관성	3
	5-2. 시계열자료는 연속성이 있으며, 단절이 생길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가?	비교성	5
	5-3. 경제·사회현상이나 통계작성방법 변경 등이 통계 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가?	비교성	무관
	5-4. 모수를 추정하는 경우, 추정 절차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확성	4
	5-5. 최종 통계자료에 대한 검증은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정확성	5
6. 문서화 및 자료 제공	6-1. 통계작성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정확성	5
	6-2. 간행물에 통계와 관련된 설명 자료를 수록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는가?	접근성	5
	6-3. 개편 작업 후 개편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접근성	3
	6-4. 조사한 항목을 모두 공표하고 있는가?	접근성	4
	6-5. 결과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공표하고 있는가?	시의성	5
	6-6. 결과 자료의 공표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정시성	5
	6-7.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결과자료를 제공하고 있는가?	접근성	5
	6-8. 자료제공시 개인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관련성	5
	6-9. 동일 주제의 다른 통계자료와 비교하고 있으며,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가?	일관성	무관
7. 사후 관리	7-1. 새로운 정보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 체계를 관리하고 있는가?	관련성	5
	7-2. 고품질 통계생산을 위한 전문성 유지 및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정확성	5
	7-3. 통계작성 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개선을 하고 있는가?	기타	4
	7-4. (위탁하여 작성하는 경우) 통계조사가 완료된 후 수탁기관으로부터 조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제출받고 있는가?	기타	무관

(1) 통계작성 기획

1-1. 통계작성 목적 제시 --> 매우 그렇다

경제활동인구지침서, 경제활동인구연보 등에 통계작성 목적 및 활용분야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표본개편 시(1969년, 1972년, 1977년, 1988년, 2003년, 200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해외사례 통계로는 ILO, OECD 기준 실업률, 보조지표 등을 검토하여 지수개편에 참고하고 있다.

1-2. 이용자의 요구 및 이용실태 파악 --> 그렇다

간행물 배부처 명부,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자 명부, 자문회의 참석자 명부와 정책고객 명부, 자료 요청자 명부 등이 관리되고 있다. 이는 대변인실, 정보서비스팀에서 관리한다. 통계작성 담당자와 이용자 그룹 간 토론회는 실시된 바 없지만, 조사개념, 분류 등 변경이 있으면 자문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이용자 의견수렴은 통계정책과에서 통계수요조사를 통하여 수행하고 있다.

1-3. 통계작성 개념, 용어, 분류체계 등의 타당성 검토 --> 매우 그렇다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분류체계 등을 자문회의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1-4. 국내·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정의, 기준 및 분류체계 사용 --> 매우 그렇다

통계 작성에 필요한 정의, 기준 및 분류체계는 한국산업분류(ISIC Rev.4), 한국직업분류(ISCO-08)를 준수하고, ILO 노동력조사 등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1-5. 통계작성 개편작업의 적절성 --> 매우 그렇다

표본설계보고서, ILO Working Group회의 참가보고서, TF회의 결과보고 등에 따르면 개편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개편에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며, 개편작업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내부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개편작업과정 및 결과를 문서화하고 정기적으로 개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개편을 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조사표 개편예정이며, 시험조사 실시, 자문회의 및 공청회 등을 예정하고 있다.

(2) 조사통계 설계

2-1. 통계작성대상 정의의 명확성 --> 매우 그렇다

표본설계보고서, 가구표본관리지침서 등에 조사모집단, 목표모집단의 정의가 명확히 서술되어 있고, 표본개편 시 모집단의 변화를 표본추출틀에 반영하고 있다.

2-2.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한 조사표 설계 --> 매우 그렇다

조사항목 문구의 명확함을 위해 자문, 회의를 통하고, 조사항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작성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응답자 부담을 고려하여 조사항목 선정시 사전조사를 실시했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표를 보면 조사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제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문의사항 연락처가 없는 것은 이 조사는 정규조사직원에게 의하여 수행되며, 표본가구로 선정된 가구는 3년간 표본으로 유지되고, 가구 담당조사원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

2-3. 조사항목 추가, 변경 시 사전검토 --> 그렇다

‘82년 이후 조사항목의 변경이 없었고, 2014년 조사표 개편을 예정하고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번 개편 시에는 조사항목 변경에 따른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예정이다. 사전조사 전후에 기관내, 외부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2-4. 조사목적, 공표범위에 적당한 표본규모 --> 그렇다

경제활동인구연보를 보면 실업자 수의 상대표준오차가 전국 3% 이하, 서울과 경기 6% 내외, 광역시 10% 내외이다. 경제활동인구연보에 상대오차가 큰 셀에 대한 이용상 주의가 표기되지 않고 있다.

2-5. 표본수준 유지를 위한 적절한 표본관리 --> 그렇다

표본유지와 관련한 명부를 관리하며, 조사명부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 지고, 수정보완한 명부를 활용하여 본조사 실시 전에 현지확인이 있고, 수정에 따른 표본 재설계 있음. 표본 내 변동 발생 시 현지 확인 점검시스템이 있고 보완, 관리지침이 있음. 가구표본관리지침서에 의하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교체가 없고, 사후가중치 조정방법을 사용한다.

(3) 자료 수집

3-1. 조사직원을 위한 조사 관련 상세 지침 제공 --> 매우 그렇다

경제활동인구조사 현장조사지침서를 제공하며, 현장조사 종합매뉴얼이 작성 제공되고 있으며, 가구부문통합관리시스템에서 Q&A 게시판이 구축 관리되고 있다.

3-2. 조사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유무 --> 그렇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 현장조사 종합매뉴얼, 현장조사 사례집을 이용하여 사전교육이 있고, 조사표 변경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정규조사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업무로 조사관리자는 따로 없다.

3-3. 현장조사에 대한 체계적 관리 --> 그렇다

가구표본관리 지침서, 현장조사 종합매뉴얼을 통해 현장조사 관리를 위한 적절한 체계가 수립되어 있고, 현장지도 후 조사오류 및 시정조치 사례를 수집하며, 조사 대상가구에 이메일 공지를 실시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조사 직원이 직접 수행하므로 1-3~1-5 항목은 해당없음.

3-4. 현장조사에 대한 단계별 업무량 파악 --> 매우 그렇다

조사기획과에서 매년 조사 직원 개인별 업무량을 파악하며, 업무량 파악에 면접시간, 동선시간, 재방문시간 등을 반영한다.

3-5. 조사기획자의 조사직원에 대한 조사관련 전문지식 숙지 여부 파악
--> 관련 없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정규직원이 수행하므로 관련없음.

3-6. 현장조사에서의 질의사항 처리 및 정보 공유 --> 매우 그렇다

현장조사에서의 질의사항은 체계적으로 적절히 처리되고 있다. 조사지침서에 조사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해결방법을 수록하고, 가구부문통합시스템 운영으로 인터넷으로 질의사항을 접수하고 답변을 게재하고 있다. 가구부문통합시스템이 운영되므로, 콜센터 운영은 없다.

(4) 자료입력 및 처리

4-1. 자료 입력의 표준화된 체계 마련 --> 매우 그렇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 가구부문통합시스템에 자료 입력을 위한 체계적인 지침서가 마련되어 있고, 조사기획과에 의하여 표준화된 입력 프로그램과 자동화된 입력오류 점검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4-2. 자료 내용검토 작업의 체계적 실시 --> 매우 그렇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 가구부문통합시스템을 통해 자료 내용검토 규칙이 마련되어 있고, 내용검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숫자 정보에 대한 이상치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4-3. 무응답 실태 파악 및 분석 --> 보통

불응가구관리지침이 있으며, 단위무응답 발생시 사후가중치 조정법을 사용한다. 무응답 처리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대체를 수행하지 않는다.

4-4. 적절한 내용검토 절차 마련 --> 매우 그렇다

현장조사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으며, 개별 조사표 및 조사표 입력 전산과일의 보관지침 마련 및 준수여부는 통계정보국에서 관장하고 있다.

(5) 자료 분석 및 품질평가

5-1. 관련통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자료결과 검증 --> 보통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연간 자료와 월 자료 비교분석을 통한 정합성 검증을 실시함. 자료 분석결과에 대한 회의는 자체보안지침에 의거 공표전에 사전협

의 과정이 없음.

5-2. 시계열자료의 연속성 유무 및 단절 시 내용 설명 --> 매우 그렇다

이 조사는 4-5년마다 표본개편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표본개편 시에는 가중치 변경과 산업분류 및 직업분류 개정에 의한 조사 항목 응답범주의 변경에 기인하여 시계열 단절이 발생한다. 그 내용은 개편결과 보고서에서 설명되고 있다.

5-3. 통계작성방법 변경이 통계자료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관련없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83년 이후, 작성방법 변경이 없으므로 관련없음.

5-4. 모수 추정 시 추정절차의 적절성 --> 그렇다.

모수 추정식, 추정과정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며, 단위무응답률은 6% 수준인데, 항목무응답은 인정되지 않고 단위무응답은 가중치 조정방법으로 처리된다. 이는 연동표본설계보고서와 경제활동인구연보에 언급되어 있다.

5-5. 최종 통계자료의 체계적 검증 --> 매우 그렇다

최종 통계자료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며, 현실변화 반영도를 검증함. 이는 고용동향 보도자료, 경제활동인구연보에 반영된다.

(6) 문서화 및 자료 제공

6-1. 통계작성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문서화 --> 매우 그렇다

통계작성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문서화되어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

서 및 사례집, 가구부문통합시스템에 통계작성 절차별 업무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다.

6-2. 간행물에 이용자의 편의 사항 수록 --> 매우 그렇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통계개요, 자료 이용방법, 모집단 및 표본설계 관련정보를 고용동향 보도자료, 경제활동인구연보에 수록하고 있다. 또한 통계의 작성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과 이용자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 등이 정리되어 설명되어 있다.

6-3. 개편 작업 후 개편내용 공개 --> 보통

연동표본설계보고서, 경제활동인구연보에 개편과정, 개편방법, 개편결과 등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개편 작업 후 자료의 불일치와 같은 자료이용상 유의사항을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있지 않다.

6-4. 조사한 모든 항목 공표 --> 그렇다

일부 항목은 미공개이나,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항목을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이 가능함.

6-5. 결과 자료의 공표 시점 적절성 --> 매우 그렇다

고용동향 보도자료 등을 보면, 조사대상기간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간(일요일~토요일)이며, 그 다음 주간에 조사를 실시하고 공표는 고용동향 월별 공표 일정에 따라 익월 둘째주 수요일이므로 19일 이하의 시차가 있다.

6-6. 결과 자료의 공표절차 준수 --> 매우 그렇다

2002년부터 통계조사결과 사전예고제 실시에 따라 매년 초 연간 공표일정

을 공시하고 있으며 연간 공표일정을 고용동향 보도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에 공시하고 있다.

6-7.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결과자료 제공 --> 매우 그렇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즉, KOSIS에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되고, 통계청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연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고용동향 보도자료, 경제활동인구연보가 발간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 e-나라지표 등 주요 통계사이트와 링크가 되어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6-8. 자료 제공 시 개인 비밀보호 장치 유무 --> 매우 그렇다

통계청 통계자료제공규정을 마련하여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료제공범위를 심의하는 통계자료제공심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6-9. 다른 통계자료와 비교 및 차이의 원인 설명 --> 관련 없음

유사한 통계가 없으므로 관련없음.

(7) 사후관리

7-1. 새로운 정보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통계작성 체계 관리 유무
-> 매우 그렇다

적정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인사에 있어서는 최근에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직위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경력개발제도를 실시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하는 등 새로운 정보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통계작성 체계 관리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7-2. 통계 생산 전문성 유지 및 개선 노력 유무 --> 매우 그렇다

통계담당직원의 관련분야 전문성 보유를 위한 기초적 조건, 즉 관련 분야 학위와 자격증, 근속 기간 등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통계교육원 등을 통한 전문성 교육도 적절히 시행되고 있다. 업무의 연속성 유지 측면에서는 통계청의 통계전문인력풀을 활용하고 있으며, e-사람시스템을 활용한다.

7-3. 통계작성 방법 타당성 검토 및 개선 유무 --> 그렇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83년 이후, 작성방법의 변화가 없어 통계작성 과정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내부 외부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으나, 작성방법 개선방안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오보 확인 시 통계청 홈페이지(해명자료 코너)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용자를 위한 통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7-4. (위탁하여 작성하는 경우) 수탁기관으로부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는지 유무 --> 관련없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청 고용통계과에서 직접 수행하므로 관련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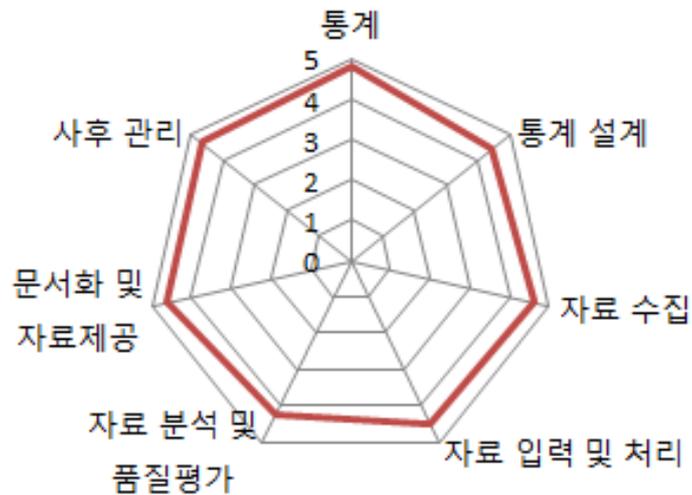
2) 작성절차별 통계품질체계 평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 2.9>와 <그림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작성절차별 품질체계 평가에서 통계작성기획 4.80, 통계설계 4.40, 자료수집 4.60, 자료입력 및 처리 4.50,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4.25, 문서화 및 자료제공은 4.62, 사후관리는 4.67점을 얻고 있다. 종합하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작성절차별 품질진단에서 5점 만점에 4.60점, 100점 만점에 91.15점을 획득하여 매우 우수한 통계임을 알 수 있다.

<표 2.9> 작성절차별 진단 결과표

	통계 작성 기획	통계 설계	자료 수집	자료 입력 및 처리	자료 분석 및 품질평가	문서화 및 자료제공	사후 관리	평점
5점 척도	4.80	4.40	4.60	4.50	4.25	4.62	4.67	4.60
가중치 적용	14.46 (15.10)	15.94 (17.90)	15.13 (16.60)	10.40 (11.40)	12.91 (15.10)	13.88 (14.90)	8.44 (9.00)	91.15 (100.0)

주 : 괄호 안은 각 절차별 점수의 만점



<그림 2.1> 작성절차별 진단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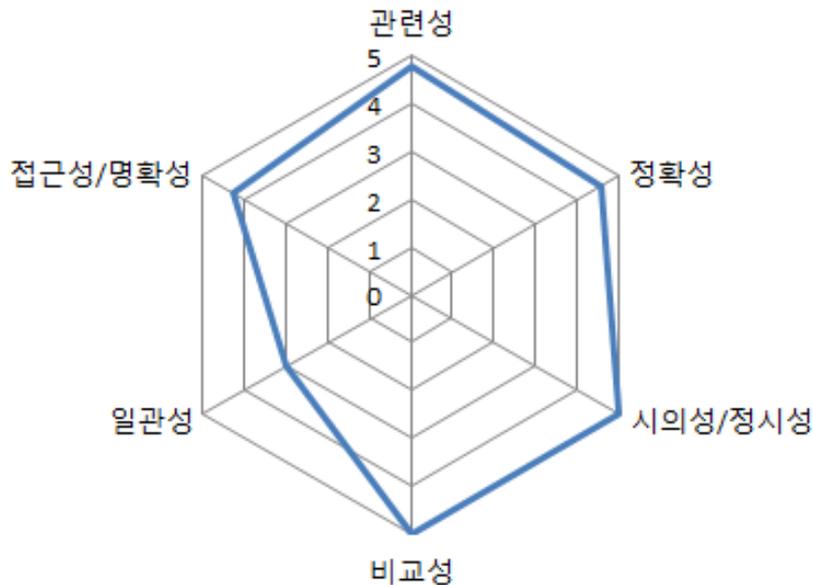
3) 품질차원별 통계품질체계 평가

품질진단 결과를 6개 품질차원별로 살펴본다. 진단결과는 <표 2.10>와 <그림 2.2>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통계는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부문에서 5점 만점을 획득했고, 관련성에서 4.80, 정확성에서 4.58, 일관성 3.00, 접근성/명확성에서 4.25점을 획득하여 전반적으로 우수한 통계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일관성 차원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관성 차원이 단지 하나의 지표에 따라 설명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2.5>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품질지표수에서 보듯이 일관성은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절차에서 하나의 지표로 측정된다. 이는 <표 2.8> 작성절차별 및 품질차원별 지표 및 진단결과의 5-1. 관련통계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자료결과를 검증하고 있는가? 에 의한 판단결과이다. 여기에서 품질지표 요소는 1. 관련 통계와 비교분석을 통한 정합성 검증 여부(3) 2.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한 회의 등 여부(3)인데,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자체보안지침에 의거 공표전에 사전협의 과정이 없으므로, 2. 자료 분석 결과에 대한 회의 등 여부(3)에서 0점이므로, 일관성 점수는 3점이나 일관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

<표 2.10> 품질차원별 진단 결과표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	일관성	접근성/명확성	평점
5점 척도	4.80	4.58	5.00	5.00	3.00	4.25	4.60



<그림 2.2> 품질차원별 진단결과

3.3 표본설계 정밀진단 결과

1) 표본설계 개요

(1) 모집단

목표모집단: 조사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15세 이상 모든 사람.

조사모집단 : 2010년 인구총조사총(이하 인총) 결과에 2011년 신축아파트를 포함한 조사구(307,627개/신축 3,097개 포함)의 만 15세 이상 모든 사람.

(2) 표본추출틀

표본추출틀 :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2011년 신축아파트를 포함한 조사구 중 조사구 특성이 일반1), 아파트(A)인 조사구의 모든가구원

- 광역조사구 18,934개, 일반조사구 305,779개(신축아파트 2,448개)

(3) 표본추출방법

표본추출방법 : 층화 3단 집락추출

층화 : 25개 지역(특별시와 광역시는 시, 도(道) 지역은 동부, 읍면부)

- 1차 추출단위(PSU) : 광역조사구 확률비례계통추출

- 2차 추출단위(SSU) : 광역조사구내의 일반조사구 확률비례추출

- 3차 추출단위(USU) : 가구 SRS 추출

(4) 표본크기

1,629개 조사구(약 3만2천 가구), 15세이상 가구원 전체

(5) 가중치

설계가중값과 사후층화보정 가중값 사용

설계가중값: 크기 척도(MOS)를 이용한 방법으로 가중값 부여

- PSU : 광역조사구 (확률비례추출)
- SSU : 일반조사구 (확률비례추출)
- FSU : 가구 (확률추출)

$$w_{hijk}^0 = \frac{S_h}{n_h S_{hi}} \times \frac{S_{hi}}{S_{hij}} \times \frac{M_{hij}}{m_{hij}} = \frac{S_h}{n_h \times 20}$$

- h : 지역층을 나타내는 첨자 ($h = 1, 2, \dots, 25$)
- i : 광역조사구 표본을 나타내는 첨자($i = 1, 2, \dots, n_h$)
- j : 일반조사구 표본을 나타내는 첨자
- k : 표본 가구를 나타내는 첨자($k = 1, 2, \dots, m_{hij}$)
- S : 표본추출에 사용된 크기 척도(설계당시 가구수)
- M_{hijk} : h 지역, i 번째 광역조사구, j 번째 일반조사구 표본 내 전체 가구수
- n_h : h 지역내 표본 광역조사구 수
- m_{hij} : h 지역, i 번째 광역조사구, j 번째 일반조사구 표본 내 표본 가구수(20가구)

사후층화보정

- 성, 연령그룹별 25개 지역 층별 추계 인구

$$w_{hijkl} = w_{hijk}^0 \times \frac{X_{h,sa}}{\bar{X}_{h,sa}}$$

- X : 벤치마킹 모집단 추정치(추계인구)
- \bar{X} : 표본에서 조사된 응답자 총 가중값
- h : 시군($h = 1, 2, \dots, 156$)
- i : 광역 표본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i = 1, 2, \dots, n_h$)
- j : 일반 표본조사구를 나타내는 첨자
- k : 표본가구를 나타내는 첨자
- l : 표본가구원을 나타내는 첨자
- sa : 사후층(성별 2개, 연령 5세별 11개층)
- $w_{hijkl} = h$ 시군의 i 광역조사구, j 일반조사구내 k 가구의 l 번째 가구원의 가중치

(6) 추정식

총계 추정식과 표본오차 추정식 제공

총계 추정

$$\begin{aligned} \circ \quad \hat{Y} &= \sum_h \hat{Y}_h \\ \circ \quad \hat{Y}_h &= \sum_{j=1}^J \sum_{k=1}^K w_{hjk} \cdot y_{hjk} \end{aligned}$$

표본오차추정 :

- 분산추정 : 테일러 선형근사 분산 추정(PROC SURVEYREG)

$$\begin{aligned} \circ \quad SB(\hat{Y}_h) &= \sqrt{\widehat{Var}(\hat{Y}_h)} \\ \circ \quad CV &= \frac{SB(\hat{Y}_h)}{\hat{Y}_h} \times 100 (\%) \end{aligned}$$

- 분산추정 : 테일러 선형근사 분산 추정(PROC SURVEYREG)

$$\begin{aligned} \text{사후층화 추정량 : } \bar{y}_{post} &= \bar{x}_N \hat{\beta}, & \hat{\beta} &= (X' W_1 X)^{-1} (X' W_1 y) \\ \text{선형근사 분산추정량 : } \hat{V}_{Taylor}(\bar{y}_{post}) &= \bar{x}_N \hat{V}(\hat{\beta}) \bar{x}_N', \\ \hat{V}(\hat{\beta}) &= (X' W_1 X)^{-1} G (X' W_1 X)^{-1}, \\ G &= \frac{n-1}{n-p} \sum_{h=1}^H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 (e_{hi} - \bar{e}_{h..}), \\ e_{hij} &= w_{1,hij} r_{hij} x_{hij}, & \bar{e}_{h..} &= \sum_{i=1}^{n_h} e_{hi}, \\ \bar{e}_{h..} &= \frac{1}{n_h} \sum_{i=1}^{n_h} e_{hi}, & r &= y - X\hat{\beta}. \end{aligned}$$

$h = 1, \dots, H$:	표본설계 층		
N_h :	h 번째 층의 모집단 조사구 수,	n_h :	h 번째 층의 표본 조사구 수,
Z_h :	h 번째 층의 모집단 가구 크기	z_{hk} :	h 번째 층 k 번째 조사구의 표본가구 크기
$\underline{x}'_i = (\delta_{i1}, \dots, \delta_{iL})'$,		$X_i = (\delta_{i1}, \dots, \delta_{iL})$,	$\delta_{ij} = \begin{cases} 1, & i \in I \\ 0, & i \notin I \end{cases}$
$\bar{\underline{x}}_N$:	벡터 \underline{x}_i 의 모집단 평균	W_1 :	w_{1i} 를 대각원소로 갖는 대각행렬,
p :	파라미터의 총수(절편효과 있다면 절편 포함)	f_h :	h 층의 추출률

2) 주요 점검결과 요약

<표 2.11> 주요 점검결과 요약

부문	문제점	개선 의견
모집단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단의 구체적인 설정이 적절 - 목표 및 조사 모집단 명확하게 구분 - 조사단위가 가구로 명확하게 설정 	개선사항 없음
표본추출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인구조사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표집틀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인총조사구를 표집틀로 사용 + 조사모집단에서 일반조사구 및 아파트조사구만 대상 - 연동표본교체로 인한 시계열 안정성 유지 및 업무량 고려한 표집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조사구/일반조사구 사용 - 표집틀 포함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축아파트조사구 (3,097개 일반조사구) + 광역조사구 설정시 중복 등 일부 조사구 제외 	개선사항 없음
표본추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PSU 및 SSU의 확률비례계통 추출법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최종 가구는 SRS로 추출 	개선사항 없음

<p>표본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조사결과 및 목표 상대 표준 오차를 산출하여 표본크기 산정 + 광역단위 기준으로 실업자 수 기준으로 연간 상대표준오차 전국 3%, 시도는 5%/10%/12% 수준에서 크기 산정 - 표본규모 산정을 위한 적절한 검토를 통해 표본규모 결정 - 광역시도별 예상 CV등의 검토는 있으나 추가적으로 주요범주별 최소표본수 및 예상 CV 정보 미제공 - 조사구 기준의 표본크기 산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요약되어 있음(설계 연구보고서). 	<p>이용자 편의를 위해 다음 사항을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설계에 대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설계의 주요 사항을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함. - 주요범주별 최소 표본수 및 예상 CV 제공 검토
-------------	--	---

3) 점검결과 종합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대한 모집단 정의, 표본 추출틀의 선정 표본추출방법의 적용, 적절한 표본크기의 산정, 가중치의 부여 과정, 추정식 제공 등 일련의 과정을 검토한 결과

- 국가 승인통계의 대표적인 조사로 표본설계의 전반적인 과정에 잘 정리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제공된 내용도 대체로 표본설계의 원칙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됨.
- 연동표본내 시계열의 안정성 유지 등의 통계적 일관성과 예산 및 조사 업무량 등의 현실성을 고려한 점도 적절함.
- 현행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소지역 추정 기반마련 및 연동 구조 등을 고려한 가구 기준의 표본설계 과정에 대한 검토가 적절하게 연구되어 있음.
- 보완할 사항으로는

- 활용도가 높은 조사이므로 표본설계 개요 정보와 일부 미제공된 표본설계 정보에 대한 가중치의 영향 검토 결과 등에 대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연동표본간 안정성을 위한 표본설계 과정의 검토가 필요함.

4. 수집자료의 정확성 진단

4.1 개요

통계의 정확성에 수집된 자료가 얼마나 정확히 조사되었는가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자료가 정확히 수집되었는지, 절차적 오류는 없는지 등의 점검은 통계 품질진단에 있어 중요한 점검대상이 된다. 조사통계에서는 자료 수집이 현장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현장조사를 통해 비표본오차 유형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조사기획자, 관리자, 조사원 그리고 응답자 등과의 면담을 통하여 현장조사 실태를 직접 확인·파악하여 수집자료의 정확성을 진단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자료수집 정확성 진단을 위해 연구진이 직접 통계청의 지방청을 방문하여 조사원 면담을 실시하였고, 응답가구를 방문하여 응답자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현장감있는 진단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자료수집 정확성 점검은 고용통계과의 협조를 얻어 충청지방통계청과 경인지방통계청을 방문하여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을 면담하고, 응답가구로 각 지역 당 한곳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현장방문시 고용통계과의 조사기획자도 같이 참여하여 현장점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확인하였다.

7월 22일~7월 26일,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기간을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7월 23일~24일에는 충청지방통계청에서, 7월 25일~26일에는 경인지방통계청에서 각각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 5명과 응답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4.2 자료수집정확성 점검결과

1)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 점검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은 조사방법, 조사지침 교육 여부,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응책, 응답자의 관리 방법, 예산, 조사결과 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 업무량 등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지방통계청 팀장은 20가구(1조사구) 조사를 담당하며, 행정업무를 병행한다. 팀원의 경우 60가구(3조사구) 조사를 담당한다. 조사원은 통계청의 정규직 50%, 무기계약직 50%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규발령자를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5년~3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조사업무 교육시스템 은 정기적으로 신규직원을 교육하며, 1년 미만, 업무 변경, 담당자별 부가교육이 있으며, 필수로 사이버지침교육이 있어 철저한 교육시스템이 운영됨을 알 수 있다.

인터넷조사(CASI), 전화면접조사(CATI)가 전체 응답 중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사결과 의 정확성 부분에서는 민감한 항목에 대해서는 유도질문으로 확인을 할 뿐만 아니라, 상호교환 내검, 확인점검, 전문조 내검 등 통계청 내부에서도 매달 확인점검을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다.

현장조사의 경우 원룸, 맞벌이 가구,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응답자들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예민함으로 조사에 불응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점차 조사환경이 열악해짐을 알 수 있다. 특히 부가조사의 경우 많은 항목 수와 민감한 항목으로 응답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장조사원들은 늦은 시간, 위험한 길을 무릅쓰고, 최소 월 4-5번씩 응답자를 만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사원과 응답가구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통계 활동비(월 15만원)는 매우 부족하며, 응답가구 응답사례비의 경우도 2달에 만원으로 가계조사는 2만원(한달 기준), 전자가계부 4-5만원(한달 기준)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사례비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대폭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다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응답가구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제도적 개선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2) 응답가구 점검

응답가구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은 조사과정, 조사의 신뢰성,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응답자들의 경우 조사원들의 친절함과 상세한 설명으로 조사에 대한 만족을 하였지만, 처음 조사표를 접하였을 경우에는 어려웠다고 한다. 자신의 정보와 민감한 항목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 사생활 침해를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으며, 부가조사의 경우 많은 조사항목으로 응답 부담이 가중되고,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들기도 한다고 하였다.

4.3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사기획자와 조사원 관리자, 조사원과 응답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조사가 대체로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통상적인 조사절차에서부터 조사결과의 정확성 담보를 위하여 상호교환 내검, 확인점검, 전문조 내검 등을 통한 철저한 자료 검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점검결과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환경의 변화이다. 단독가구, 맞벌이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보이스피싱의 확산으로 불용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 경기지역의 경우 응답자들의 조사 참여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이를 개선하여 응답자의 조사 참여 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통계청 본청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원은 응답자를 만나기 위해서 늦은 시간, 위험한 장소 등에서 때때로 신변위험을 느끼고 있기에 조사원들의 위험수당 또는 조사구내에 경찰 지구대의 동행이나 협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응답사례비와 통계활동비의 문제이다. 다른 조사들과 비교했을 경우

응답가구의 응답사례비가 월 5천원으로 작다. 뿐만 아니라, 응답가구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활용되는 조사원의 통계활동비가 월 15만원으로 적다. 결국 응답가구의 응답 사례비와 통계조사비에 대한 대폭적인 증액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응답가구 세제혜택 등 제도적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사표 개선 문제이다. 조사표가 응답자 친화적으로 보다 친절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 2014년으로 예정된 조사표 개편에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5. 통계자료 서비스 진단

5.1 점검 개요

통계자료 서비스 진단은 평가대상 통계의 보도자료, 조사보고서 및 DB등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통계자료들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주로 발생하는 오류의 유형과 발생원인, 이용자 편의성 점검내용을 확인·집계하고 재발 방지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진단에서는 이용자들이 간행물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정보가 충실히 제공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통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통계자료의 충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점검은 취약한 편이므로 본 통계품질진단을 통하여 통계자료 서비스에 대한 충실성 진단을 엄밀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마다 발행되는 경제활동인구월보(고용동향)와 연간으로 제공되는 경제활동인구연보가 있으며, 원시자료 이용 및 자료 제공범위는 통계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이용 및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통계자료 서비스 진단은 KOSIS의 메타데이터와 DB 데이터, 경제활동인구월보, 경제활동인구연보에 대해 통계청에서 제공한 품질관리 매뉴얼에 있는 공표자료 오류 점검표와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표를 이용하여 진단하였다.

추가적으로 국제기구 자료제공 서비스도 점검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 자료는 OECD와 IBRD, ILO 등에 제공되고 있으며, 이 중 OECD 국제기구에 서 공표되는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서비스가 KOSIS와 비교하여 오류없이 충실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5.2 진단 결과

1) 공표자료 오류점검

공표자료 오류 점검은 ① 수치자료, ② 통계표 형식 및 내용, ③ 용어해설 ④ 기타오류로 나누어진다. 각 사안별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치자료

통계작성기관의 통계간행물과 통계 DB의 수치자료에서 심각한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2.12>~<표2.15>는 주요항목별 표본오차에 대한 표들이다. 먼저 <표2.12>는 2012 경제활동인구연보에서 제공되는 연평균(2012) 결과 주요항목별 표본오차이며, <표2.13>은 KOSIS에서 제공되는 연평균(2012) 결과 주요항목별 표본오차이다. 먼저 이 두개의 표에서 추정치를 제외한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95% 신뢰구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2.14>는 2012 경제활동인구연보에서 제공되는 지역별 연평균(2012) 결과 주요항목별 상대표준오차이고, <표2.15>는 KOSIS에서 제공되는 지역별 연평균(2012) 결과 주요항목별 상대표준오차이다. 이 두 개의 표를 보게 되면 상대표준오차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신·구 오차계산 방식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각주의 형태로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달아둘 필요가 있다.

<표 2.12> 2012 경제활동인구연보 연평균 결과 주요항목별 표본오차

I . Sampling Error by Major Items
1. Sampling Error by Major Items (2012)

(In thousand persons)

Male		여 자 Female						
95% 신뢰구간	추 정 치	표준오차	상대표준 오 차 (%)	95% 신뢰구간				
95% C. I.	Estimates	S. E.	R. S. E.	95% C. I.				
14,844	14,939	10,609	39.9	0.4	10,531	10,687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14,338	14,436	10,294	39.0	0.4	10,217	10,370	Employed	
830	909	659	18.1	2.8	623	694	Agriculture, forestry & fishing	
2,790	2,909	1,270	22.4	1.8	1,226	1,314	Mining & manufacturing	
2,777	2,896	1,268	22.4	1.8	1,225	1,312	Manufacturing	
10,599	10,737	8,365	38.0	0.5	8,291	8,440	Social overhead capital & other services	
1,585	1,667	147	5.8	4.0	135	158	Construction	
2,656	2,757	2,889	29.2	1.0	2,832	2,946	Wholesale & retail, restaurants & hotels	
2,192	2,284	759	14.7	1.9	730	788	Electricity, transport, telecom. & finance	
4,034	4,161	4,570	30.9	0.7	4,510	4,631	Business, personal, public service & others	
4,062	4,188	1,593	20.1	1.3	1,554	1,633	Self-employed	
157	181	1,082	18.5	1.7	1,045	1,118	Unpaid family workers	
7,031	7,192	3,985	30.1	0.8	3,927	4,044	Regular employees	
2,027	2,128	2,911	29.2	1.0	2,854	2,968	Temporary employees	
872	936	723	14.1	2.0	695	750	Daily workers	
486	523	316	6.6	2.1	303	328	Unemployed	
28	37	23	1.4	6.1	20	26	Primary school graduates & under	
40	50	25	1.8	7.0	22	29	Middle school graduates	
219	243	128	4.3	3.3	120	136	High school graduates	
185	208	139	4.3	3.1	131	148	College and Univ. graduates & over	
5,389	5,485	10,645	39.9	0.4	10,566	10,723	Not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표 2.12> 2012 경제활동인구연보 연평균 결과 주요항목별 표본오차

I. 주요항목별 표본오차

1. 연평균(2012) 결과 주요항목별 표본오차

단위 : 1,000명

	전 체 Both sexes				남 자		
	추 정 치	표준오차	상대표준 오 차 (%)	95% 신뢰구간	추 정 치	표준오차	
	Estimates	S. E.	R. S. E.	95% C. I.	Estimates	S. E.	
경 제 활 등 인 구	25,501	65.1	0.3	25,373	25,628	14,891	31.3
취 업 자	24,681	62.9	0.3	24,557	24,804	14,387	32.4
농 · 립 · 어 업	1,528	48.1	3.1	1,434	1,622	870	26.4
광 공 업	4,119	56.2	1.4	4,009	4,230	2,849	39.5
제 조 업	4,105	56.2	1.4	3,995	4,215	2,837	39.5
사 회 간 접 자 본 및 기 타	19,033	75.3	0.4	18,886	19,181	10,668	45.6
건 설 업	1,773	29.6	1.7	1,715	1,831	1,626	27.4
도 소 매 · 음 식 숙 박 업	5,595	58.5	1.0	5,481	5,710	2,706	33.5
전 기 · 운 수 · 통 신 · 금 융	2,997	37.4	1.2	2,924	3,071	2,238	31.0
사 업 · 개 인 · 공 공 서 비 스 및 기 타	8,668	65.4	0.8	8,540	8,796	4,098	42.2
자 영 업 자	5,718	52.5	0.9	5,615	5,821	4,125	42.2
무 급 가 족 종 사 자	1,251	27.0	2.2	1,198	1,304	169	7.9
상 용 근 로 자	11,097	71.7	0.6	10,957	11,238	7,112	53.6
임 시 근 로 자	4,988	59.5	1.2	4,872	5,105	2,078	33.2
일 용 근 로 자	1,627	33.4	2.1	1,561	1,692	904	21.2
실 업 자	820	15.0	1.8	790	849	504	11.3
초 졸 이 하	56	3.3	5.8	50	62	33	2.7
중 졸	70	3.9	5.5	62	78	45	3.0
고 졸	359	9.9	2.8	339	378	231	7.5
대 졸 이 상	335	8.7	2.6	318	353	196	6.9
비 경 제 활 등 인 구	16,081	65.1	0.4	15,954	16,209	5,437	31.3

<표 2.13> KOSIS 연평균 결과 주요항목별 표본오차

I . Sampling Error by Major Items
1. Sampling Error by Major Items (2012)

(In thousand persons)

Male		여 자 Female						
상대표준 오차 (%)	95% 신뢰구간	추 정 치	표준오차	상대표준 오차 (%)	95% 신뢰구간			
R. S. E.	95% C. I.	Estimates	S. E.	R. S. E.	95% C. I.			
0.2	14,830	14,953	10,609	52.5	0.5	10,506	10,712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0.2	14,324	14,451	10,294	51.4	0.5	10,193	10,394	Employed
3.0	818	921	658	24.2	3.7	611	706	Agriculture, forestry & fishing
1.4	2,772	2,927	1,270	29.5	2.3	1,212	1,328	Mining & manufacturing
1.4	2,759	2,914	1,268	29.5	2.3	1,211	1,326	Manufacturing
0.4	10,579	10,757	8,365	49.9	0.6	8,267	8,463	Social overhead capital & other services
1.7	1,573	1,680	147	7.6	5.2	132	162	Construction
1.2	2,641	2,772	2,889	38.6	1.3	2,813	2,965	Wholesale & retail, restaurants & hotels
1.4	2,177	2,299	759	19.3	2.5	722	797	Electricity, transport, telecom. & finance
1.0	4,015	4,180	4,570	40.6	0.9	4,491	4,650	Business, personal, public service & others
1.0	4,042	4,207	1,593	26.7	1.7	1,541	1,646	Self-employed
4.7	153	184	1,082	24.6	2.3	1,033	1,130	Unpaid family workers
0.8	7,007	7,217	3,985	39.4	1.0	3,908	4,063	Regular employees
1.6	2,013	2,143	2,911	38.3	1.3	2,836	2,986	Temporary employees
2.4	863	946	722	18.4	2.6	686	759	Daily workers
2.2	482	526	316	7.9	2.5	300	331	Unemployed
8.3	27	38	23	1.6	7.1	20	26	Primary school graduates & under
6.6	39	51	25	2.1	8.5	21	29	Middle school graduates
3.3	216	246	128	5.1	4.0	118	138	High school graduates
3.5	183	210	139	5.1	3.7	129	149	College and Univ. graduates & over
0.6	5,376	5,498	10,645	52.5	0.5	10,542	10,747	Not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표 2.13> KOSIS 연평균 결과 주요항목별 표본오차

2. 지역별 연평균(2012) 결과 주요항목별 상대표준오차 Relative Standard Error by Major Items (2012)

단위 : % (%)

	경제활동인구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취업자 Employed	농림어업 Agriculture, forestry & fishing	광공업 Mining & manufacturing	제조업 Manufacturing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Social overhead capital & others services	실업자 Unemployed	비경제활동인구 Not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서울	0.5	0.5	29.0	3.1	3.1	0.5	3.3	0.8
부산	0.7	0.8	28.2	3.6	3.6	1.1	4.9	1.0
대구	0.9	0.9	26.3	4.0	4.0	1.3	5.8	1.3
인천	0.6	0.6	27.2	2.5	2.5	0.9	4.0	1.1
광주	0.9	0.9	18.4	4.7	4.7	1.3	6.8	1.2
대전	0.7	0.8	16.3	4.2	4.3	1.0	5.8	1.1
울산	0.8	0.8	31.3	2.6	2.6	1.6	6.3	1.2
경기도	0.5	0.5	8.3	2.7	2.7	0.7	3.6	0.8
강원도	0.8	0.9	6.4	6.0	6.0	1.3	7.2	1.2
충북	0.8	0.8	7.5	4.0	4.0	1.8	7.4	1.3
충남	0.9	1.0	8.3	4.0	4.0	1.8	5.8	1.6
전북	0.8	0.8	5.8	5.0	5.0	1.6	7.7	1.2
전남	0.8	0.9	5.4	5.5	5.5	2.3	7.5	1.5
경북	0.8	0.8	5.9	4.0	4.1	2.0	5.3	1.4
경남	0.8	0.8	7.7	2.7	2.7	1.5	7.4	1.2
제주	1.0	1.0	5.9	9.7	9.7	1.4	9.0	2.1

**<표 2.14> 2012 경제활동인구연보 지역별 연평균 결과
주요항목별 상대표준오차**

2. 지역별 연평균(2012) 결과 주요항목별 상대표준오차 Relative Standard Error by Major Items (2012)

단위 : % (%)

	경제활동인구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취업자 Employed	농림·어업 Agriculture, forestry & fishing	광공업 Mining & manufacturing	제조업 Manufacturing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 Social overhead capital & others services	실업자 Unemployed	비경제활동인구 Not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서울	0.6	0.6	38.3	4.0	4.1	0.7	4.1	1.0
부산	1.0	1.0	37.9	4.8	4.8	1.4	6.1	1.4
대구	1.2	1.3	35.5	5.3	5.3	1.7	7.3	1.8
인천	0.8	0.8	36.1	3.2	3.2	1.2	4.8	1.4
광주	1.2	1.2	25.0	6.2	6.2	1.7	8.3	1.6
대전	1.0	1.0	21.4	5.5	5.6	1.3	7.0	1.4
울산	1.0	1.0	41.1	3.4	3.4	2.0	7.7	1.6
경기도	0.6	0.6	10.9	3.6	3.6	0.9	4.3	1.0
강원도	1.1	1.1	8.5	7.9	7.9	1.7	8.7	1.5
충북	1.1	1.1	10.0	5.2	5.2	2.4	8.7	1.6
충남	1.2	1.3	11.2	5.2	5.3	2.4	6.8	2.1
전북	1.1	1.1	7.8	6.6	6.6	2.1	9.2	1.5
전남	1.1	1.1	7.1	7.3	7.3	3.0	8.9	1.9
경북	1.1	1.1	7.9	5.3	5.3	2.6	6.3	1.8
경남	1.0	1.0	10.4	3.5	3.5	2.0	9.0	1.5
제주	1.4	1.4	7.9	12.8	12.8	1.9	10.6	2.8

<표 2.15> KOSIS 지역별 연평균 결과 주요항목별 상대표본오차

(2) 통계표 형식 및 내용

경제활동인구연보 및 경제활동인구월보에서의 KOSIS DB의 통계표 형식 및 내용 부문에서 통계표에 사용된 기호 및 다른 통계를 인용하지 않았으며,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3) 용어해설 부분

용어해설 부분에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통계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기타 오류

목차, 색인 등과 본문의 일치성, 통계표 제목의 적절성 등은 충족되며, 한글 및 영문 표기가 적절하다. 특별히 기타 오류부분에서 문제가 없었다.

2)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

(1) 이용자를 위하여

「2013 경제활동인구연보」에서 머리말에 이어 ‘이용자를 위하여’, 경제활동인구월보 표지 다음 페이지에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과 48쪽에 ‘자주하는 질문’을 통해 이용자를 위한 해설이 담겨 있다(통계청 2013b).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표의 ‘1-3 기호’(통계표 등에 사용되는 각각의 기호들의 의미를 명시하고 있다)항목을 위한 점검 결과 연보 및 월보에서 제공되고 있는 통계표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없으며, 잠정치, 확정치에 대한 설명은 없다. 경제활동인구연보 및 월보에 대한 자료 출처, 통계DB 이용방법, 마이크로데이터 구매절차, 문의처 등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경로 및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다.

(2) 조사 정보

통계의 작성 목적, 범위 및 대상, 적용 기준, 작성항목, 작성주기,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양식 변경 내역, 용어설명, 공표방법 등이 경제활동인구연보 및 월보에 수록되어 있으며, 통계 연혁,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체계는 경제활동인구연보에만 수록되어 있다(통계청 2013b).

경제활동인구연보 부록에는 영문 및 국문 조사표가 수록되어 있으며, 조사항목의 변경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또한 OECD 기준에 따른 주요국의 고용률과 실업률 차이와 국내 시도별 고용동향에 따른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2002년부터 통계조사결과 사전예고제가 실시됨에 따라 매년 초 연간 공표일정을 공시하고 있으며, 보통 대상기간 후 넷째 수요일에 고용동향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간 공표일정은 통계청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3) 모집단 및 표본 설계

모집단 및 표본설계 부분은 경제활동인구연보에만 수록되어 있다. 조사대상주년을 기준으로 하여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자를 목표 모집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표본틀, 표본규모 결정, 표본조사구 추출 등 표본설계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으며, 모집단에 근접성에 설명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4) 자료 집계 및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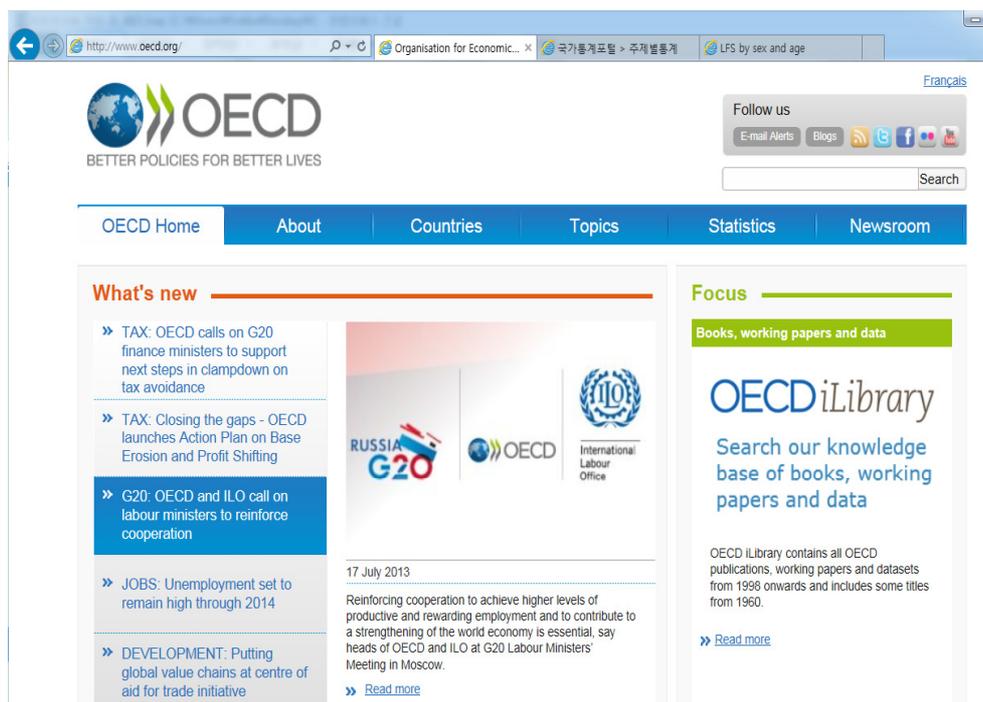
자료 집계 및 추정 부분은 경제활동인구연보에만 수록되어 있다. 가중치의 부여방법, 연간, 월간 추정방법이 설명되고 있다. 표본오차 추정방법의 설명뿐만 아니라, 표준오차, 상대표준오차, 신뢰구간, 추정치가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통계청 2013b). 그리고 계절조정 기법으로 X-12 ARIMA 분석을 적용함을 명시했지만, 분석절차는 따로 수록되어 있지 않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항목무응답을 인정하지 않으며, 단위무응답 처리

를 통하여 가중치 조정을 적용한다.

3) 국제기구 자료제공 관련 서비스 점검

OECD와 KOSIS에서 제공되고 있는 자료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그림 2.3>는 OECD (<http://www.oecd.org/>) 홈페이지 화면이다. <표 2.16>는 OECD에서 제공되는 전체 및 성별에 따른 실업자 수이고, <표 2.17>은 KOSIS에서 제공되는 전체 및 성별에 따른 실업자 수 자료이다. KOSIS와 OECD에서 제공되고 있는 2000년~2012년 자료의 수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두 표를 비교해보면, 실업자 수치 대부분이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천 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반올림의 차이로 보인다.



<그림 2.3> OECD 홈페이지

<표 2.16> OECD에서 제공되는 전체 실업자 수²⁾

(단위 : 천명)

실업자(Unemployment)				
Country : Korea		전체(Total)	남(Man)	여(Women)
Time	2000	979	647	332
	2001	899	591	308
	2002	752	491	261
	2003	818	508	310
	2004	860	534	326
	2005	887	553	334
	2006	824	532	292
	2007	783	517	266
	2008	773	506	267
	2009	890	586	304
	2010	921	579	342
	2011	855	530	325
	2012	820	504	316

<표 2.17> KOSIS에서 제공되는 전체 실업자 수

(단위 : 천명)

실업자(Unemployment)				
Country : Korea		전체(Total)	남(Man)	여(Woman)
Time	2000	979	647	332
	2001	899	591	308
	2002	752	491	261
	2003	818	508	310
	2004	860	534	326
	2005	887	553	334
	2006	827	533	294
	2007	783	517	266
	2008	769	505	265
	2009	889	584	304
	2010	920	577	342
	2011	855	530	325
	2012	820	504	316

2) 자료출처 :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LFS_D

5.4 통계자료 서비스 점검결과 요약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통계자료 서비스는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공표자료 오류 점검에서는 통계DB의 수치 여부만 발견되었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에서도 대체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제 2 절 개선과제별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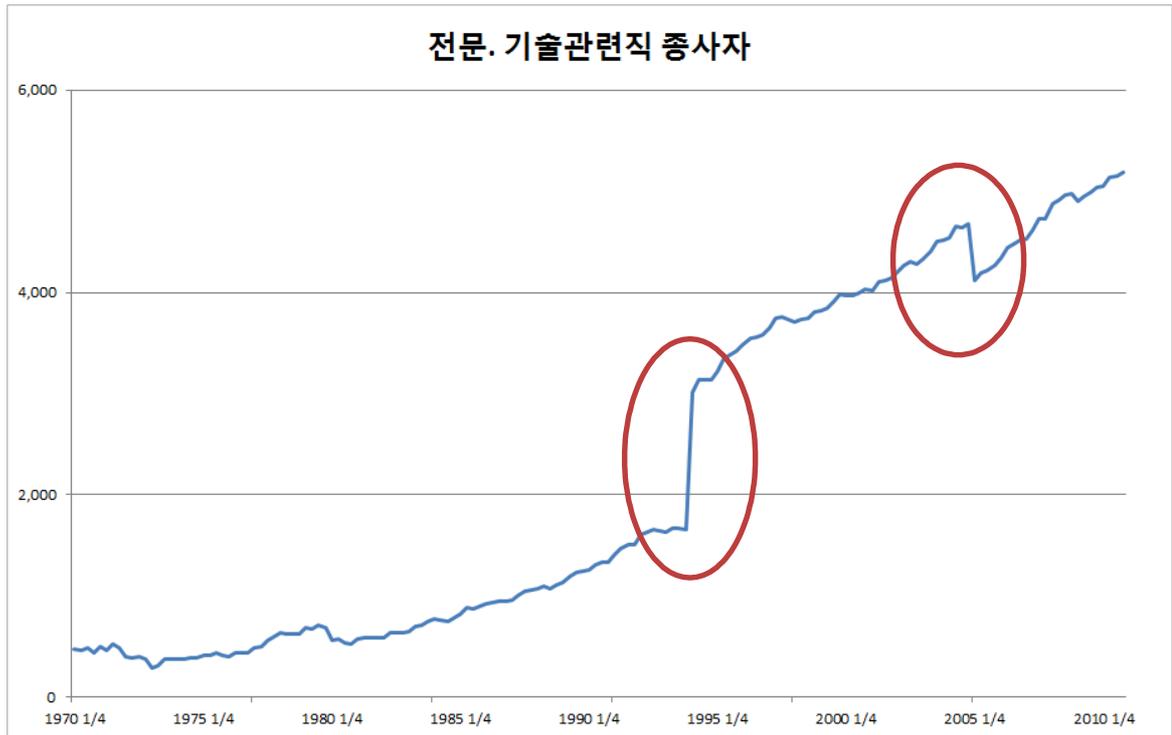
개선과제별 개선방안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시계열 단절, 공식통계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격차, 이용자 편의정보 제공, 통계활동비와 응답사례비 문제이다. 각각의 개선과제별로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한다.

1. 시계열 단절

1) 현황 및 문제점

시계열 단절의 사례를 들기 위하여 하나의 통계항목을 활용한다. <그림 2.4>는 KOSIS에서 제공되는 직업별 취업자 중에서 전문·기술관련직의 종사자 수를 1970년~2010년 기간에 대하여 분기별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표 2.20>~<표 2.22>를 보면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에 의한 분류체계의 변화에 따라 종사자 수 통계가 변화함을 볼 수 있다.

<그림 2.4>는 <표 2.20>~<표 2.22>의 위 계열을 사용하여 그린 그래프이다. KOSIS에서는 1966년~2013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2.4>을 보면 시계열 단절 현상을 볼 수 있는데, <표 2.20>~<표 2.22>를 통해 시계열 단절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림 2.4> 1970년~2010년 분기별 전문·기술 관련직 종사자

<표 2.18>은 KOSIS에서 제공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세부 목록표이며, 그 중 ‘직업별 취업자’는 (‘63 ~ ‘93) (‘93 ~ ‘00) (‘00 ~ ‘08) (‘04 ~ ‘12) 계열이 각각 제공되고 있는데, 시계열 구간에 따른 비교는 다음과 같다. 숫자의 단위는 천 명이고, (‘63~ ‘93) 계열의 경우 ‘66년부터 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표 2.18> KOSIS에서 제공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세부 목록표

Level	통계명	SIGA조회	기관명	수록기간
4	취업자(63년~현재)			
5	산업, 직업 구분류			
6	산업별 취업자(2000~2008)	통계표 보기	통계청	년 (2000 ~ 2008), 분기
6	직업별 취업자(2000~2008)	통계표 보기	통계청	년 (2000 ~ 2008), 분기
6	직업별 취업자(1993~2000)	통계표 보기	통계청	년 (1993 ~ 2000), 분기
6	직업별 취업자(1963~1993)	통계표 보기	통계청	년 (1963 ~ 1993), 분기
6	성/산업별 취업자(1963~1992)	통계표 보기	통계청	년 (1963 ~ 1992), 분기
6	성/직업별 취업자(1963~1993)	통계표 보기	통계청	년 (1963 ~ 1993), 분기
6	행정구역(시도)/산업별 취업자(1989~1992)	통계표 보기	통계청	년 (1989 ~ 1992), 분기
6	행정구역(시도)/직업별 취업자(1989~1993)	통계표 보기	통계청	년 (1989 ~ 1993), 분기
5	산업별 취업자	통계표 보기	통계청	년 (2004 ~ 2012), 분기
5	직업별 취업자	통계표 보기	통계청	년 (2004 ~ 2012), 분기

<표 2.19> 1963년~1993년 직업별 취업자 분기자료

직업별 취업자(1963~1993)

단위 : 천명

분류 또는 항목명을 마우스로 위치를 바꿔가며 포인터를 사용하고, 숨김영역으로 옮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업별	1992 1	1992 2/4	1992 3/4	1992 4/4	1993 1/4	1993 2/4	1993 3/4	1993 4/4
계	8,177	19,390	19,361	19,110	18,282	19,472	19,648	19,536
전문. 기술관련직 종사자	1,600	1,633	1,655	1,649	1,633	1,672	1,663	1,651
행정관리직종사자	324	328	327	326	341	363	360	358
사무관련직종사자	2,805	2,839	2,858	2,875	2,918	2,983	2,963	2,954
판매종사자	2,781	2,845	2,867	2,904	2,927	3,050	3,155	3,209
서비스종사자	2,118	2,174	2,207	2,246	2,266	2,375	2,431	2,494
농.림.수산업종사자	2,048	2,960	2,938	2,623	2,076	2,833	2,815	2,544
생산.운수장비운전자,단	6,502	6,610	6,509	6,487	6,121	6,197	6,262	6,326

직업별 취업자(1993~2000)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정렬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업별	1999 1	1999 2/4	1999 3/4	1999 4/4	2000 1/4	2000 2/4	2000 3/4	2000 4/4
계	9,118	20,351	20,706	20,991	20,380	21,337	21,486	21,486
1.입법공무원,고위임직	466	453	463	467	466	463	473	473
2.전문가	1,065	1,068	1,060	1,060	1,058	1,107	1,141	1,141
3.기술공 및 준전문가	2,286	2,319	2,381	2,454	2,442	2,399	2,383	2,383
4.사무직원	2,250	2,283	2,287	2,286	2,277	2,155	2,160	2,160
5.서비스근로자 및 상점	2,050	2,083	2,087	2,086	2,077	2,155	2,160	2,160
6.농업 및 어업 숙련근로	2,050	2,083	2,087	2,086	2,077	2,155	2,160	2,160
7.기능원 및 관련기능근	2,050	2,083	2,087	2,086	2,077	2,155	2,160	2,160
8.장치,기계조작원 및 조	2,050	2,083	2,087	2,086	2,077	2,155	2,160	2,160
9.단순노무직근로자	2,050	2,083	2,087	2,086	2,077	2,155	2,160	2,160

주석정보

통계표명 : 직업별 취업자(1993~2000)

1) - 2003년 1월에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과 연형계 총별 승수의 적용으로 2002년 12월 이전의 자료가 변경 되었음

2) 직업별 : 한국표준직업분류 4차개정(1992년) 기준

<그림 2.5> 1993년~2000년 직업별 취업자 분기자료에 대한 주석정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정렬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업별	2007 1/4	2007 2/4	2007 3/4	2007 4/4	2008 1/4	2008 2/4	2008 3/4	2008 4/4
계	22,841	23,698	23,610	23,582	23,051	23,871	23,752	
0.의회의원, 고위임직원	563	545	564	553	566	534	534	
1.전문가	1,974	2,013	2,054	2,085	2,117	2,204	2,231	
2.기술공 및 준전문가	2,530	2,606	2,662	2,640	2,544	2,547	2,564	
*전문·기술·행정관리자	5,067	5,163	5,279	5,278	5,226	5,285	5,329	
3.사무 종사자								
4.서비스 종사자								
5.판매 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								
6.농림, 임업 및 어업속원								
7.기능원 및 관련 기능원								
8.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								
9.단순 노무 종사자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 노무								

주석정보

통계표명: 직업별 취업자(2000~2008)

1) - 2003년 1월에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과 연형계출발 승수의 적용으로 2002년 12월 이전의 자료가 변경 되었음

2) **직업별** : - 한국표준직업분류 5차개정(2000년) 기준
 - *전문·기술·행정관리직 = 의회의원, 고위임직원및관리자(0) + 전문가(1) + 기술공 및 준전문가(2)
 - *서비스·판매직 = 서비스 종사자(4) + 판매 종사자(5)
 -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직 =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7) +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8) + 단순 노무 종사자(9)

<그림 2.6> 2000년~2008년 직업별 취업자 분기자료에 대한 주석정보

직업별 취업자

단위 : 천명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정렬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업별	2011 3/4	2011 4/4	2012 1/4	2012 2/4	2012 3/4	2012 4/4	2013 1/4	2013 2/4
계	24,483	24,462	23,927	25,003	24,989	24,804	24,184	25,326
* 관리자·전문가(1,2)	5,220	5,216	5,178	5,321	5,282	5,242	5,232	5,351
1 관리자	509	478	472	478	474	434	424	397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711	4,738	4,706	4,843	4,808	4,808	4,808	4,954
3 사무 종사자								4,210
* 서비스·판매 종사자								5,584
4 서비스 종사자								2,560
5 판매 종사자								3,024
6 농림어업 속원종사자								1,573
* 기능·기계조작·조립								8,608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원								2,246
8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								3,017
9 단순노무 종사자								3,345

주석정보

통계표명: 직업별 취업자

1) **직업별** : ※ 한국표준직업분류 6차개정(2007년) 기준
 * 관리자·전문가 = 관리자(1) + 전문 및 관련 종사자(2)
 * 서비스·판매 종사자 = 서비스 종사자(4) + 판매 종사자(5)
 *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종사자 =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7) + 장차,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8) + 단순 노무 종사자(9)

<그림 2.7> 2004년~2013년 직업별 취업자 분기자료에 대한 주석정보

위의 <표 2.19>는 1966년~1993년 직업별 취업자 분기자료이며, 주석에 대한 정보는 없다. <그림 2.5>, <그림 2.6>, <그림 2.7>은 1993년~2000년, 2000년~2008년, 2004년~2013년 직업별 취업자 분기자료에 대한 주석정보이다.

주석정보를 보게 되면, 1993년~2000년의 경우 4차 개정(1992년) 기준에 의해 직업별 범주 구분이 더욱 세분화된 것을 볼 수 있다. 2000년~2008년의 경우 5차 개정(2000년) 기준에 의해서 의회의원, 고위관리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를 통합하여 전문·기술직으로 정의하였으며, 이처럼 개정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다. 1966년~1993년 직업별 취업자 자료의 전문·기술관련직 종사자를 1993년~2000년의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 4차 개정(1992년) 기준에 의해서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로 나뉘었다. 이와 같이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이 바뀔 때 마다 개정 전후의 두 개 시계열 상에서 겹친 분기를 나타내게 되면, <표 2.20>~<표 2.22>와 같다.

<표 2.20>은 1966년~1993년, 1993년~2000년 4차 개정에 의해 겹친 2년 분기 자료이다. 위의 계열은 개정 전 분류에 따른 직업별 취업자(1963~1993)의 마지막 2년 분기별 자료, 아래의 계열은 개정 후 분류에 따른 직업별 취업자(1993~2000)의 첫 2년 분기별 자료이다.

<표 2.20> 1966년~1993년, 1993년~2000년 4차 개정에 의해 겹친 2년 분기자료

1992 1/4	1992 2/4	1992 3/4	1992 4/4	1993 1/4	1993 2/4	1993 3/4	1993 4/4						
1,600	1,633	1,655	1,649	1,633	1,672	1,663	1,651						
				1993 1/4	1993 2/4	1993 3/4	1993 4/4	1994 1/4	1994 2/4	1994 3/4	1994 4/4		
				2,953	2,883	2,953	2,972	3,012	3,131	3,133	3,135		

<표 2.21> 1993년~2000년, 2000년~2008년 5차 개정에 의해 겹친 2년 분기자료

1999 1/4	1999 2/4	1999 3/4	1999 4/4	2000 1/4	2000 2/4	2000 3/4	2000 4/4						
3,817	3,840	3,904	3,981	3,966	3,969	3,997	4,027						
				2000 1/4	2000 2/4	2000 3/4	2000 4/4	2001 1/4	2001 2/4	2001 3/4	2001 4/4		
				3,886	3,920	3,960	4,003	4,021	4,110	4,125	4,150		

<표 2.22> 2000년~2008년, 2004년~2013년 6차 개정에 의해 겹친 2년 분기자료

2003 1/4	2003 2/4	2003 3/4	2003 4/4	2004 1/4	2004 2/4	2004 3/4	2004 4/4	2005 1/4	2005 2/4	2005 3/4	2005 4/4		
4,334	4,401	4,505	4,518	4,548	4,654	4,639	4,683	4,687	4,770	4,800	4,845		
				2004 1/4	2004 2/4	2004 3/4	2004 4/4	2005 1/4	2005 2/4	2005 3/4	2005 4/4		
				3,987	4,086	4,075	4,104	4,113	4,195	4,215	4,273		

마찬가지로 <표 2.21>의 위 계열은 4차 개정 기준 분류에 따른 수이며, 아래 계열은 5차 개정 기준 분류에 따른 수이다. <표 2.22>의 위 계열은 5차 개정 기준 분류에 따른 수이며, 아래 계열은 6차 개정 기준 분류에 따른 수이다.

2) 개선방안

<그림 2.4>에서 시계열 단절 현상은 1993년 4차 개정과 6차 개정의 직업별 분류체계 변화에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개정에 의해서 직업분류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종사자 수의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직업별 취업자의 경우 2004년부터 한국표준직업분류 신분류(6차 개정)가 적용되고 있는 바, 최근 분류체계에 기반을 두어 시계열 자료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과거년도의 정보가 없고, 가구대상 소급조사가 곤란할 것이므로, 상세히 직업분류이용자가 혼동하지 않게 신·구 분류 연계 메타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2. 보완적 실업지표의 개발

1) 현황 및 문제점

경제 및 고용사정 악화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실업률이다. 실업은 취업을 원하지만 일을 구하지 못한 노동력 상태를 의미하므로 가장 절박한 고용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실업률이 노동시장 상황을 판단하거나 고용정책의 기준을 제시하는 지표로서 적절하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실업률이 현실 고용사정과 괴리되어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황수경, 2010).

실업률과 고용 현실의 괴리에 대해서는 언론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이미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이에 대한 정부당국의 시각은 높은 자영업자 비중, 짧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비경활인구 증가 등이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 현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여겨왔다. 여기에서 높은 자영업자 비중이라고 함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는데, 이들이 자영업을 그만두면 실업자가 아닌 비경활인구로 이동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2010년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23.5%인데 비하여 미국은 7.0%, 일본은 9.3%이다. 짧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라고 함은 외국에

비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짧아 구직활동을 지속하지 않고, 취업자나 비경활 인구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조운제 등(2012)은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실업통계 작성 방식의 차이, 취업준비생의 누락, 반실업상태의 자영업자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체감 실업률은 실업률 지표치 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1995년 2.1%에서 2010년 3.7%로 높아졌다. 이러한 실업률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2010년 9.6%까지 높아졌으며 대만, 일본의 경우도 1990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2.23 참조).

<표 2.23> 실업률 국제비교

구분	한국 ³⁾	일본	중국	대만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1990	2.5	2.1	-	1.7	5.6	6.9	4.8	9.2	1.8	5.3
1995	2.1	3.1	-	1.8	5.6	8.5	8.1	11.6	9.0	4.9
2000	4.4	4.7	3.1	3.0	4.0	5.4	7.7	10.0	5.8	3.4
2005	3.7	4.4	4.2	4.1	5.1	4.8	11.1	8.9	7.7	4.6
2010	3.7	5.1	4.1	5.2	9.6	7.8	7.1	9.1	8.3	3.2

자료 : OECD, 한국은행 ECOS

정인숙(2008)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용통계는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 노동통계인들이 주축이 되어 마련한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되는데, 이 국제기준이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상이한 점이 있다. 국제기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취업 또는 비경제활동상태로 분류되는 일부 특징들을 일반인은 실업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것이 통계로 발표되는 실업률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3)1999년까지는 구직기간 1주, 그 이후는 4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는 2009년조운제 등(2012)은 우리나라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를 다음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우리나라에서는 청년층이 학생, 군인 신분이어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됨. ② 자영업자, 농어업 종사자가 일이 없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③ 고용통계조사의 표본에 고시원, 기숙사 등은 포함되지 않음 ④ 공무원이나 공기업 또는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것보다 낮게 나타나는 주요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노동력조사의 개념적 틀로 사용하고 있는 ILO 노동력 접근법의 실업자 분류 기준은 다소 엄격하다. 실업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조사 대상 주간에 일을 하지 않았고(no work),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으며(active job search), 일이 주어지면 바로 일할 수 있었어야 한다(availability for work). 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로 분류된다(정인숙, 2008).

우리나라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구직신청을 하지 않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은 실업자에서 빠지고 우리나라의 높은 자영업자 비율이 잠재실업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보면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황수경(2010)은 실업률에 대해서 제기되는 비판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하고 있다. 첫째는 실업률 수준, 즉 실업자 규모가 지나치게 과소측정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 예컨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곤두박질쳤음에도 공식실업률은 3%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우리의 실업률 수준은 OECD국가들 가운데서도 최저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의 고용률(=취업인구 비율)도 OECD국가들 중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의 낮은 실업률은 높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에 의해 지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식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잠재실업자군이 광범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는 실업률이 노동시장 변동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동태적 측면에서의 비판이다. 2009년 1~5월 기간 중 취업자는 월평균 16만9천 명 감소하였는데 실업자는 13만1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자리가 줄어든 만큼 실업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해답은 실직을 하더라도 실업 상태에 있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는 인구가 많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강순희 외(1999), 김용현(2005), 황수경(2009) 등에서는 공식실업률이 대표하지 못하는 잠재실업자를 포착하기 위해 보완적 실업지

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2) 개선방안

정인숙(2008)에 따르면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괴리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 고용통계에서도 주목을 받는 이슈이다. 실업통계가 ILO의 노동력 접근법에 근거한 실제 활동에 기반을 두고 작성되므로, 공식적인 개념과 측정은 각계각층 모든 사람들의 분석적, 이념적 관심을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은 이런 점을 인식하고 1970년대부터 일련의 실업지표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개발자 이름을 따서 일명 the Shiskin group이라고 불리는 이 초기의 지표들은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현재인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제한적 의미의 실업자에서부터 가장 포괄적인 것까지 7개 지표⁴⁾로 구성되었다. 이 중 ILO가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는 실업률은 U5까지이다. 이 7개 실업률이 1977년 1월 BLS의 고용동향 발표자료인 *The Employment Situation*을 통해 처음 공표되었을 때, 연구자들과 언론에서 일곱 개 중 가장 높은 수치인 U7을 제일 선호했다.⁵⁾

그 후 BLS는 체감실업과 관련된 CPS조사의 일부 개념과 조사표를 보완하여 1996년부터 “Alternative measures of labor underutilization“이라는 타이틀 아래 여섯 개의 새로운 지표 세트를 만들어 매월 발표하고 있다. 초기의 지표들이 여러 가지 실업의 정의에 바탕을 둔 데 비해, 새로운 세트는 노동력의 불완전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여섯 가지 지표를 간략히 살펴보면, 공식실업률인 구직기간 4주기준 실업률인 U3 밑에 구직기간 15주 이상 장기 실업률(U1)과 직장 휴·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실업률(U2)을 고

4) 이 실업지표들의 공식 명칭은 “Range of unemployment measures based on varying definitions of unemployment and the labor force”으로, U1: 구직기간 15주 이상 실업자, U2: 비자발적 실업자, U3: 25세 이상 실업자, U4: 풀타임 직장을 구하는 실업자, U5: 구직기간 4주 실업자(공식실업률), U6: U4+파트타임 직장을 구하는 실업자+비자발적 사유의 파트타임 취업자, U7: U6+구직단념자로 구성됨.

5) John E. Bregger and Steven E. Haugen, “BLS introduces new range of alternative unemployment measures,” *Monthly Labor Review* (October 1995): 19-26.

려하고 있다. 공식실업률을 넘는 것으로는 구직단념자, 기타 한계근로자,⁶⁾ 비자발적 파트타임 취업자(불완전 취업자) 등 노동력이 불충분하게 활용되는 그룹들을 단계적으로 포함하여 확장시킨 U4, U5, U6이 있다. 미국 외에도 캐나다, 호주, 멕시코와 같은 나라들도 유사한 맥락에서 자국 사정에 맞는 실업 보조지표 내지 노동의 불완전활용도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표 2.24> 외국의 고용보조지표 구성항목

지표	미국	호주	캐나다
U1	구직기간 15주 이상 실업자	12개월 이상 실업자	12개월 이상 실업자 3개월 이상 실업자
U2	비자발적 실업자	-	미국 기준에 따른 실업률
U3	구직기간 4주 실업자	4주 실업자	4주 실업자
U4	4주 실업자+구직단념자 ⁷⁾	4주 실업자+불완전취업자	4주 실업자+구직단념자 4주 실업자+불완전취업자 4주 실업자+취업대기자 ⁸⁾
U5	4주 실업자+구직단념자+기타 한계근로자 ⁹⁾	-	-
U6	4주 실업자+구직단념자+기타 한계근로자 + 불완전취업자 ¹⁰⁾	4주 실업자+구직단념자 + 기타 한계근로자 + 불완전취업자	4주 실업자+구직단념자+불완전취업자+취업대기자

이런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통계청도 국제적으로 수립된 정의와 기준을 고려하는 동시에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취업과 구직 문화를 감안하여 체감 고용사정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통계지표들을 생산해 오고 있다.

6) 취업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육아, 가사, 교육 등 자발적 사유로 구직을 하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사람을 말함.

7) 자리를 구하지 않는 자 중에서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

8) 예전 고용주로부터 연락을 기다리는 자, 구직 신청후 응답을 기다리는 자, 5주내에 일을 시작하기로 한 자

9) 취업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지난 4주간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자 중에서 지난 1년 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

10) 비자발적 파트타임

2003년부터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불완전 취업자 등 여러 가지 고용 보완 지표를 작성하여 매월 발표하고 있고, 2005년부터는 실업자 기준을 구직기간 1주에서 4주로 변경하여 고용정책 대상그룹을 확대하였다.

통계청은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다 세분되고 다양한 보완적 통계지표를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이용자 편의정보 제공

1) 현황 및 문제점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과거 조사결과 및 목표 상대표준오차에 근거하여 표본 크기를 산정한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실업자 수 기준으로 연간 상대표준오차는 전국 3%, 시도는 5%, 10%, 12% 수준에서 표본크기가 산정된다. 현재 표본크기 산정과 층별 표본배정 방식은 적절히 검토되고 있으나 주요범주별 최소 표본수 및 예상 상대표준오차 관련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설계 가중치, 사후층화 조정 가중치를 반영하는데, 사후층화보정을 위해 25개 층별 추계인구의 성별, 연령별 자료 활용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가중치 영향의 검토를 위해 가중치분포에 대한 설명이 없고, 조사구기준 20가구 선정 후 5가구 조사시 실제 접촉 가구 수 등의 관련 정보나 무응답 가구에 대한 가중치 검토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추정산식을 보면 모수 및 표본오차 추정을 위해 적절한 추정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시군구 및 광역시도, 읍면부 및 영역별 등 주요 분석단위에 대한 추정식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

단위 무응답에 대한 무응답률 정보가 미제공되고 있다.

2) 개선방안

농림어업과 같이 산업별 취업자의 상대표준오차 변동이 심한 상황에 대한 표본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표본설계 보고서는 조사구 기준으로 설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 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 빈도가 높은 조사이므로 주요 범주별 예상 상대표준오차 등 추가적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본 조사는 가구 및 가구원 대상 통계조사의 틀로도 활용되므로 가구수 및 가구원수 기준의 검토 결과와 주요 범주별 예상 상대표준오차 제공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설계 가중치, 사후층화 조정 가중치를 반영에 있어 가중치 영향의 검토를 위해 가중치에 대한 설명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표본오차 추정을 위해 시군구 및 광역시도, 읍면부 및 영역별 등의 추정식 제공이 필요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연동표본설계이므로 동일한 설계 시점내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기간(차기 연동표본) 사이의 시계열 안정성 유지를 위한 표본설계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가 필요하다.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하여 단위 무응답에 대한 무응답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통계활동비와 응답사례비

1) 현황 및 문제점

경제활동인구조사 현장조사의 경우 원룸, 맞벌이 가구, 보이스피싱 등등의 사유에 기인하여 조사에 불응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현장조사원들은 최소 월 4-5번씩 응답자를 만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조사환경은 점차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조사원과 응답가구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조사원의 통계활동비는 월 15만원으

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응답가구 응답사례비도 2달에 1만원으로 너무나 미약한 액수이다. 가계조사의 응답사례비와 비교해도 2만원(한달 기준), 전자가계부 4-5만원(한달 기준)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액수이다.

2) 개선방안

조사원과 응답가구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통계활동비 월 15만원은 매우 부족하며, 응답가구 응답사례도 2달에 1만원으로 턱없이 적은 사례비라고 생각된다. 이에 대한 대폭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더불어 응답가구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제도적 개선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표 2.25> 개선과제 요약표

개선과제	실행방법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시계열 단절	직업분류 이용자가 혼동하지 않게 신·구 분류 연계 메타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자료 이용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음.	
보완적 실업지표 개발	고용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적절한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효과를 모니터링하는데 도움이 되는 세분화 되고, 다양한 보완적 통계지표 개발.	세분화되고 다양한 보완적 통계지표가 생성됨으로써 고용상황을 정확히 파악.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 격차해소.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세분되고 다양한 보완적 통계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
이용자 편의 정보 제공	설계 가중치, 사후층화 조정 가중치 반영에 있어 가중치 검토과정 및 주요 범주별 최소 표본수 예상 상 대표준오차 제공. 단위 무응답에 대한 무응답률 공개.	이용자들에게 표본설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도움. 단위 무응답 무응답률 공개로 이용자편의 제공.	
통계활동비와 응답사례비	통계활동비와 응답사례비에 대한 상향	조사원의 사기 향상과 응답자들의 응답률 상승으로 통계품질 개선.	응답사례비와 통계활동비 상향으로 인한 예산 확보 문제

제 3 장 개선지원

제 2절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과제 가운데 공식통계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격차 문제를 개선지원 과제로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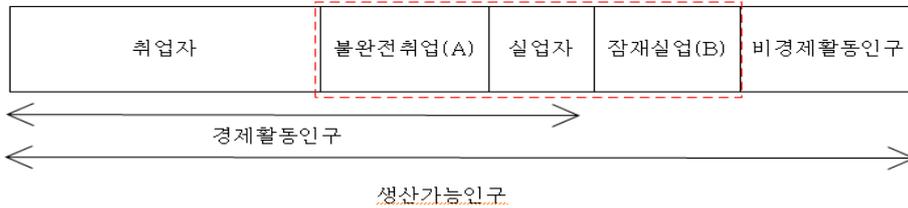
제 1 절 보완적 실업지표의 개발

1. 보완적 실업지표의 필요성

ILO는 공식실업률은 완전실업을 전제로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공식실업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보완적 실업지표를 통해 고용상황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해 왔다. 이 같은 관점에서 최근 고용지표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공식실업률에 관한 기준에서 노동력 저활용(Labour underutilization) 상태를 포착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 개발로 논의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 노동 저활용이란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나, 충분히 일을 하지 못해 사회적 관점에서 노동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은 실업을 아무리 정확히 측정한다 해도 완전실업만을 포착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수반하여야 실업상태로 간주되는 공식실업률 만으로는 일국의 고용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러한 공감대하에서 많은 국가들에서 각국의 상황에 맞게 공식실업률 이외에 불완전취업자, 실망실업자, 잠재실업자 등의 보완지표를 작성, 활용하고 있다. 미국 BLS(노동통계국)는 이와 별도로 대안적 실업지표 U1~U6을 고안, 제시하고 있다(<표 2.24> 참조).

<그림 3.1> 경제활동인구의 노동력 상태 구성



<그림 3.1>은 보완지표의 개념과 필요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공식실업률의 측정은 취업과 실업의 경계,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의 경계를 확정하는 일에서 출발하는데, 현실에서 그 경계가 명료하게 구분되기는 쉽지 않다. 취업과 실업의 경계영역(A:불완전취업), 그리고 실업과 비경제활동인구의 경계영역(B:잠재실업)에 속하는 개인들은 공식실업자로 파악되지 않지만 준실업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들에 대해서도 그 규모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노동시장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률과 실제 고용사정의 괴리가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특히 청년, 여성, 고령자등에서 실업지표의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여성 경우 노동시장에 충분히 편입되어 있지 못하고, 간헐적인 노동시장 참여로 취업↔비경제활동사이에서 이동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 경우 불완전취업↔잠재실업간 이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청년이나 고령자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실업 상태에 있는 것, 달리 표현하면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취업에 그다지 유리하지도 않고(공무원 및 대기업시험 준비자) 실업급여와 같은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 실업상태에 머물기보다는 차라리 비경제활동상태나 부분취업상태에 머물면서 보다 좋은 직장을 탐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우리 노동시장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공식실업률은 노동시장의 긴박성,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사정을 포착하는데 기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공식실업자로 파악되지 않는 상당정도의 유사실업자군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다양한 보완지표를 이용하여 이들의 동향을 파악한다면, 충분히 유의미한 정책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황수경,2010).

2. 보완적 실업지표의 구성

황수경(2010)은 우리 실정에 맞는 보완지표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 바 있다. 우선, 비경제활동인구 속에 숨어있는 잠재실업자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원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구직활동요건 및 취업가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실업자로 파악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조사방법의 허점으로 인해 취업준비를 주로 하였던 자가 응답과정에서 취업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실망실업자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취업자가운데 노동력이 과소 활용되고 있는 불완전취업자층을 판별해내야 하며, 이때 통상적 의미의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 외에도 생존을 위해 취업을 했지만, 현저하게 불충분한 노동력 제공으로 사실상 준실업 상태에 놓여있는 것과 다른 없는 불완전취업자군도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잠재실업자 및 불완전취업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판별기준이 사용될 수 있다.

첫째, 구직활동기준을 부분적으로 완화하여 노동시장적 사유에 의한 비구직자를 실망실업자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취업을 희망하는 자로서 근래 경제활동(취업 및 구직) 경험이 있었다면 이들은 언제라도 노동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에서 경계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구직활동을 했지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 자에 대해서도 판단이 필요하다. 구직활동을 했다면 응당 취업을 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지만, 현재 조사구조에서는 지난주 취업가능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취업 희망 여부자체를 묻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업희망여부를 토대로 판별하는 모든 분류기준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취업가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구직자도 근래 경제활동(취업 및 구직) 경험이 있었다면, 경계근로자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실망실업자 및 경계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취업준비자 역시 별도의 범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지난주 취업준비를 주로 하였다면, 취업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응답과정에서 취업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실망실업자나 경계근로자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취업준비자는 특히 과거경제활동 경험이 없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행태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넷째, 불완전취업자는 추가취업을 희망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단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자, 즉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로 정의될 수 있다. 불완전취업자 가운데서 실제 18시간 미만 일한 자는 노동력이 현저하게 과소사용된 것으로 보아 부분실업자로 정의하여 광의의 실업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황수경(2010)은 이와 같은 유형화에 기초하여, 광의의 실업은 공식실업에 잠재실업과 부분실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확장실업'으로 정의한다. 확장실업의 각 유형과 통계적 정의는 <표 3.1>과 같다.

<표 3.1> 확장실업의 유형과 개념

유형	통계적 정의
◆ 실업자	
(완전)실업자	취업을 희망하여 구직활동을 하였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자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공식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실망실업자	취업의사가 있고 즉시 취업이 가능하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은 자(구직활동 요건의 완화)
경계근로자	취업의사가 있고 지난 1년 내 경제활동(취업 및 구직) 경험이 있었던 자이면서 실망실업자가 아닌 자(취업가능 요건의 완화)
취업준비자	지난주 주로 취업을 준비했던 자로서 실망실업자 또는 경계근로자가 아닌 자
잠재실업자	실망실업자+ 경계근로자+ 취업준비자
◆ 취업자	
불완전취업자	경제적 이유(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로 단시간근로를 하고 있지만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자
부분실업자	18시간 미만 일한 불완전 취업자
◆ 확장실업자 및 실업률	
확장실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중)잠재실업자+ (취업자중) 부분실업자
확장실업률	(실업자+ 잠재실업자+ 부분실업자)/(경제활동인구+ 잠재실업자)×100

3. 노동저활용 지표

2013년 10월 2일~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19차 국제노동통계인총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에서는 사람들의 취업에 대한 욕구(need)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동저활용 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국제노동통계인총회(ICLS)는 세계 각국의 노동통계 담당자, 노동계·경영계 대표, UN, WB, WTO 등 국제기구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노동통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로 매 5년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개최되며, 금번이 제19차 총회였다. 특히 금년 회의에서는 제 13차 총회(1982년)에서 결의된 노동력조사 기준을 30여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새로운 국제기준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컸다.

노동저활용 지표(Measures of labour underutilization)는 취업에 대한 불충분한 욕구를 나타내는 지표로 시간관련 불완전취업(Time-related underemployment), 실업(Unemployment), 잠재노동력(Potential labour force)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기준시간 보다 적게 일한 사람을 의미하는 불완전취업자는 대상기간동안 더 많은 일을 하기 원하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며, 실업자는 대상기간동안 취업을 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했으며, 일이 주어진다면 일을 즉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잠재노동력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거나, 또는 일이 주어진다면 즉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또한 금번 총회에서는 경제상황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4가지 핵심 노동저활용 지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ILO,2013).

<표 3.2> 핵심 노동저활용 지표

◇ LU1: $[\text{실업자}/\text{노동력}]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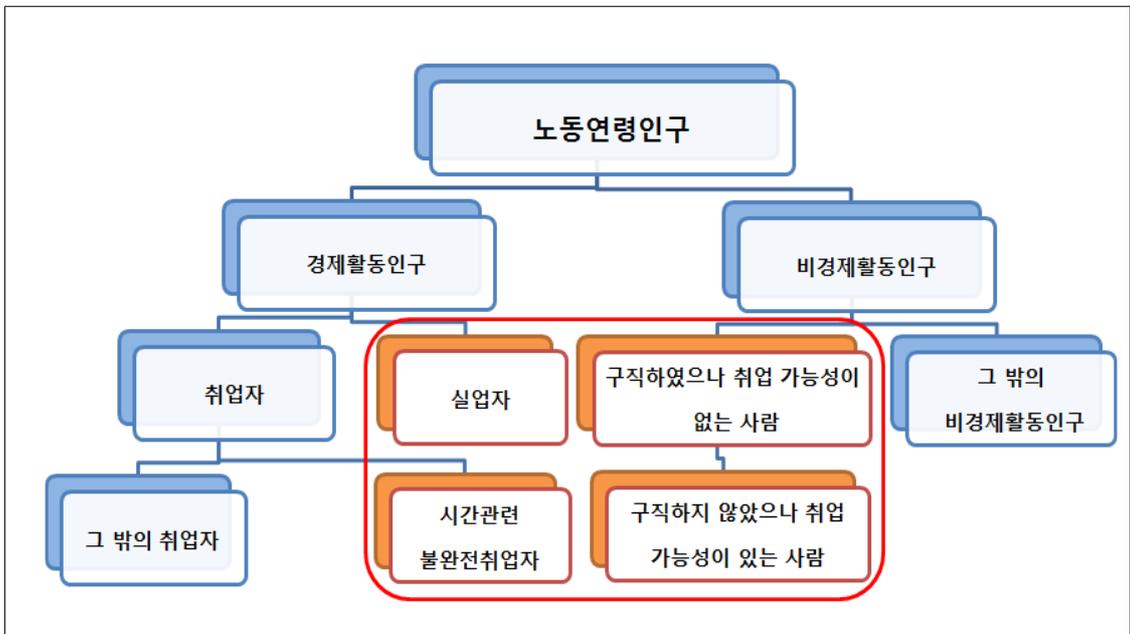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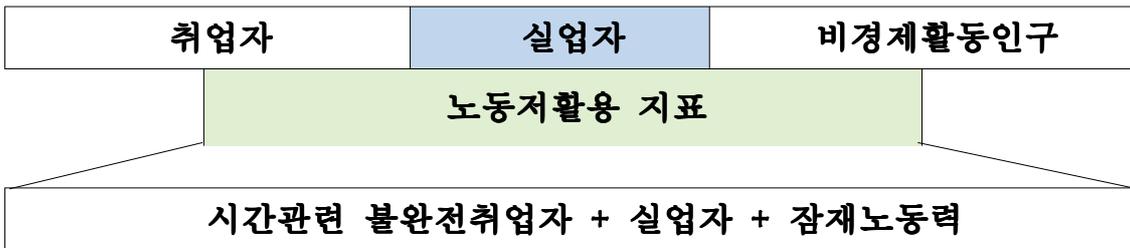
* 노동력(Labour force)은 취업자+실업자로 현재 경제활동인구와 같은 개념

◇ LU2: $[(\text{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text{실업자})/\text{노동력}] \times 100$

◇ LU3: $[(\text{실업자}+\text{잠재노동력})/\text{확장된 노동력}] \times 100$

* 확장된 노동력(Extended labour force)은 노동력+잠재노동력을 의미

◇ LU4: $[(\text{시간관련 불완전취업자}+\text{실업자}+\text{잠재노동력})/\text{확장된 노동력}] \times 100$



<그림 3.2> 노동저활용 지표 구조

향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실업률 보조지표에 관한 국제기준을 확정하면 그 기준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는 실업률 보조지표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국민의 체감에 부합하는 고용통계 공표를 통해 고용통계와 관련정책에 관한 신뢰도 제고에 힘써야 한다.

제 2 절 활용사례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기반을 두어 작성되는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은 국내 고용동향을 파악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 통계자료는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KOSIS),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등에 수록되어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통계이다. 이하에서는 이 통계의 활용사례를 여타 통계의 기초자료, 고용동향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학술연구를 위한 자료등의 순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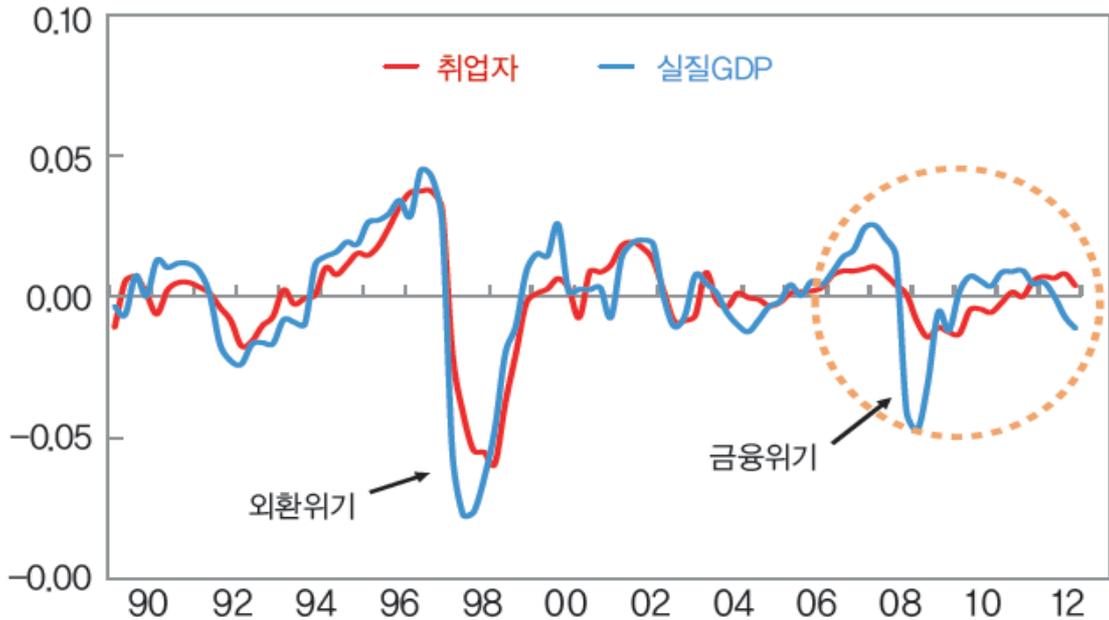
1.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청의 고용동향 작성 및 기타 인구학적 항목에 대한 고용관련 부가조사 결과, 한국은행의 경기와 고용간의 관계에 관한 분석, 고용정보원의 고용관련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1) 한국은행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경기와 고용순환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통계자료로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이용된다(그림 3.3 참조). 분기별 취업자수 및

실질 GDP의 순환변동 계열을 추출하여 두 항목의 동조화(Co-movement)현상을 분석을 하는데 이용된다.



주 : 1) 분기 계절조정 계열을 대수변환 후 HP 필터링을 통해 추세를 제거하여 순환변동치를 추출, 단 고용순환은 인구효과를 제거한 계열 이용

출처 : 한국은행(2013.5.30.) 경기-고용간 관계 변화의 구조적 요인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그림 3.3> 한국은행 이용사례 : 경기 및 고용 순환

2) 고용정보원

고용정보원에서는 구인인원과 구직건수에 대한 취업건수로 취업률 추계를 위한 기초통계자료로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이용된다. (표3.3 참조) 신규구인인원, 신규구직건수, 취업건수, 취업률은 인구학적 항목별 집계 및 추계가 이용된다.

<표 3.3> 고용정보원사례 : 2013년 6월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

(명, 건, %,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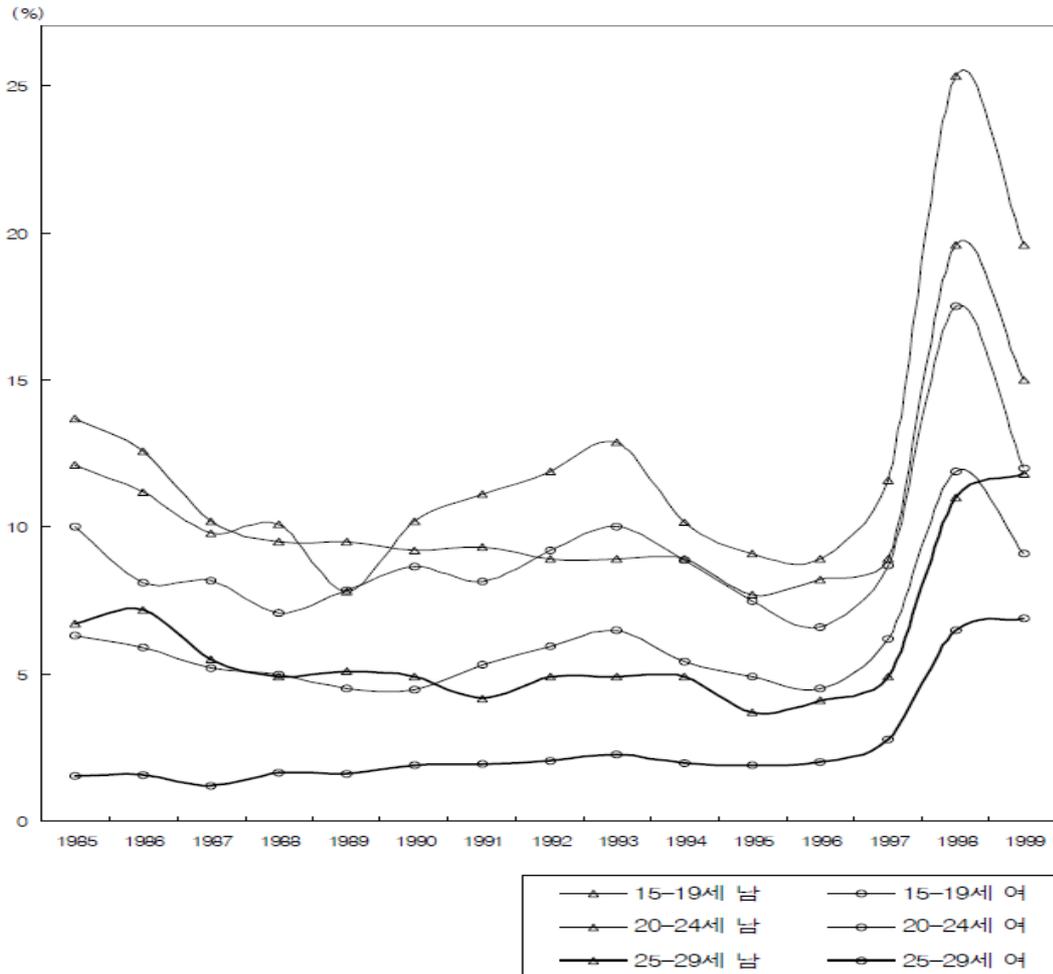
구분		세부항목	신규구인인원 ¹⁾		신규구직건수		취업건수 ²⁾		취업률(% ³⁾	
			2013년 6월	증감률(%)	2013년 6월	증감률(%)	2013년 6월	증감률(%)	2013년 6월	증감률(%)
전체			292,608	53.0	336,531	20.0	111,493	19.4	33.1	-0.2
성별	남		-		138,836	2.2	50,596	11.5	36.4	3.0
	여		-		197,695	36.6	60,897	26.9	30.8	-2.4
고용형태별	기간의 정함없는 근로계약		206,165	47.6	215,495	18.1	61,616	12.5	-	
	기간의 정함있는 근로계약(시간제)		4,696	-43.5	5,896	9.1	1,680	26.7	-	
	기간의 정함있는 근로계약		57,591	81.7	18,557	10.6	6,716	12.9	-	
	기간의 정함있는 근로계약(시간제)		10,665	241.4	7,150	169.3	1,233	110.1	-	
	일용직		13,491	60.4	6,228	45.9	17,639	58.8	-	
	관계없음		-		83,205	20.8	22,609	15.0	-	
연령별	20대 이하		-		82,188	0.2	26,460	12.4	32.2	3.5
	30대		-		79,922	23.4	22,161	4.4	27.7	-5.0
	40대		-		68,245	35.4	18,218	8.3	26.7	-6.7
	50대		-		63,421	29.7	26,566	34.8	41.9	1.6
	60대 이상		-		42,755	24.3	18,088	49.6	42.3	7.1
	관계없음		-		-	-	-	-	-	
학력별	중졸 이하		86,435	1920.9	66,128	15.4	28,341	36.0	42.9	6.5
	고졸		43,194	0.8	136,495	17.0	42,468	16.4	31.1	-0.1
	전문대졸		11,975	-4.9	56,196	19.7	17,596	9.8	31.3	-2.8
	대졸		3,370	14.2	72,681	29.7	21,770	15.5	30.0	-3.7
	대학원졸 이상		137	22.3	5,031	42.4	1,318	10.6	26.2	-7.6
	관계없음		147,497	14.8	-	-	-	-	-	
임금대별	100만원 미만		11,686	102.4	11,613	-26.8	4,464	-3.8	38.4	9.2
	100~150만원		153,381	69.5	139,857	36.8	39,166	19.2	28.0	-4.1
	150~200만원		80,390	27.5	91,401	13.7	35,643	24.6	39.0	3.4
	200~250만원		30,128	41.4	47,054	15.2	16,499	22.6	35.1	2.1
	250만원 이상		17,023	61.1	46,606	13.2	15,721	13.8	33.7	0.2

주 : 1) 남녀고용평등법 및 구인 연령차별금지법상 모집과 채용에 있어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므로 성별, 연령별 구인인원은 제시되지 못함
 2) 취업건수는 구직자 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공공근로가 포함된 수치임
 3) 취업률= 취업건수/ 신규구직건수*100
 4) 분류불능 항목의 값은 제외, 각 항목의 합이 전체 값과 상이할 수 있음
 5) 중사상 지위별 취업률은 '관계없음' 항목으로 인해 정확한 값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제시하지 않음
 6) 2011년 6월 이후 구인구직신청 서식 상의 고용형태 분류명칭이 변경됨(부록의 용어해설 참조)

출처: 고용정보원(2013.7)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초자료로 각 종 실업률 문제와 일자리 창출에 방안에 관한 동향 및 정책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그림 3.4 참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특징적인 분석으로 기본 인구학적 항목인 연령, 성별, 교육정도를 이용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방안을 분석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04.18.) 최근 청년층 실업 문제와 인적자원개발 방향

<그림 3.4> 성별, 연령별 청년층의 실업률 변화 추이(1985~1999)

2. 경제동향 분석자료

1)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와 경제정책국의 경제분석과는 매달 통계청의 고용동향 보도자료가 공표되는 시점에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한다. (그림 3.5 참조)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는 '고용지표 동향' 및 '평가와 전망'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동향부분은 통계청 보도자료를 요약하고 있고, 평가와 전망 부분은 동향을 기초로 현재의 경기상황을 평가하고 정책적인 대응방향을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정부 경제정책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중요한 경기현황 파악 자료로 이용됨을 알 수 있다.

1. 주요 고용지표 동향

1) 개관

(취업자 증감) 취업자(2,547.3만명)는 전년동월대비 36.7만명 증가

*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 13.3)24.9 (4)34.5 (5)26.5 (6)36.0 (7)36.7
<민간(공공행정 제외)> <26.5><33.3><25.7><36.4><35.1>

(고용률) 30만명 중반대의 취업자수 증가에 따라 15~64세 고용률(65.1%)은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15~64세 고용률(%): (' 13.2)62.7 (3)63.4 (4)64.4 (5)65.0 (6)65.1 (7)65.1
- 전년동월비(%p): △0.3 △0.2 0.0 △0.1 0.1 0.2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13. 8. 14(수) 배포시		
배포일시	2013.8.14(수) 09:00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분석과
담당과장	이형일(044-215-2730) 손필훈(02-2110-7088)	담당자	이재화 사무관(044-215-2734) 장기영 사무관(02-6902-8321)

제목: ' 13.7월 고용동향 [취업자 36.7만명 증가]

출처 : 기획재정부(2013.8.14.) 보도참고자료

<그림 3.5>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2) 한국개발연구원(KDI)

KDI가 매월 발간하는 'KDI 경제동향'에는 국내경제동향 파악을 위해 산업별 취업자수, 연령별 취업자 수 등이 이용되고 있다. (그림 3.6 참조) KDI의 특징적인 분석으로 계절조정 고용률 및 실업률을 분석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 **노동시장: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모두 60% 내외 수준에서 유지되는 모습**

● 6월 중 취업자는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월(26만 5천명)보다 증가폭이 확대되며 전년동월대비 36만 1천명(1.4%)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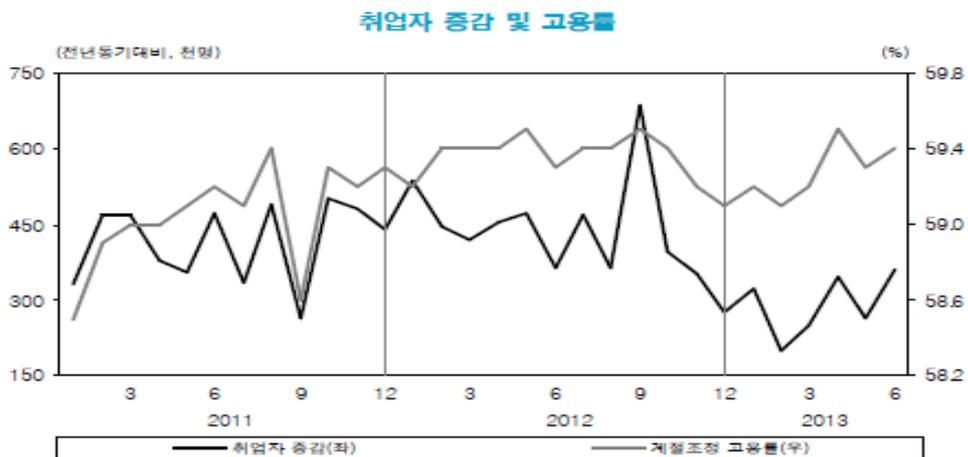
— 산업별로는 서비스업(26만 3천명, 1.5%)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건설업(3천명, 0.2%)은 증가로 전환

—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49만 7천명, 2.8%)의 취업자 증가세가 소폭 확대된 반면, 자영업자(-10만 4천명, -1.8%)의 감소세는 지속

● 계절조정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각각 61.4% 및 59.4%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실업률도 낮은 수준(3.2%)을 지속

—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모두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증가세가 유지된 가운데 15~29세 청년층의 감소세는 소폭 완화

● 한편, 5월 중 상용근로자(5인 이상 사업체)의 월평균 명목 및 실질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9% 및 3.9%를 기록하며 최근의 상승세를 지속



출처 : KDI(2013.8) KDI 경제동향

<그림 3.6> KDI 이용사례 : KDI 경제동향

3)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는 경기동향을 파악하여 국회의 예산 심의 및 입법활동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 3.7>은 예산정책처에서 매월 발간하는 NABO 경제동향 & 이슈로 2013년 8월 발표된 것의 일부분이다. 이 자료는 전년동기대비 기준 취업자수로 국내 경기상황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취업자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등
으로 가계의 소득
여건 개선

- 둘째, 취업자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가계의 소득 여건이 개선되었기 때문임
 - 1/4분기 중 전년동기대비 1.1%가 늘어난 전산업 취업자수가 2/4분기에는 1.4%로 1/4분기보다 0.3%p 높아졌음
 - 명목임금은 2013년 4월 전년동월대비 5.1% 상승하여 3월(4.1%)에 비해 1%p 상승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2013.8) NABO 경제동향 & 이슈(통권 제 22호)

<그림 3.7> 국회예산정책처 이용사례

3. 학술연구 관련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한 학술연구는 많이 이뤄지고 있다. 청년실업, 고령화시대와 같이 연령을 통한 경우와 산업의 다양성, 정규직 이외의 고용형

태들이 고용시장을 점점 다양하게 만들고 있으며 성별, 지역별, 학력의 정도 등과 같은 인구학적 항목에 대해서도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한 이들과 같은 방향의 학술연구의 예를 소개한다.

양수경(2008)의 “여성 고용의 변화 추이 분석”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고용수준, 고용형태 구조, 임금수준의 측면에서 성별 격차의 변화 추이를 프로빗 모형 추정결과로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성별 격차가 조금씩 축소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고, 고용률 및 상용직 비율에 대해서도 성별 격차가 축소되는 추세를 보인다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었다. 임금수준과 관련해서는 종속변수의 변수변환을 통한 선형회귀 모형 추정을 실시하여 임금 수준에 있어서는 여전히 성별 격차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연구 결과로 발표하였다.

남재량(2013)은 (매월)고용동향분석에 발표한 “최근 고용률 정체와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청년고용률이 경제전체 고용률 하락을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발표하였고, 이는 청년들의 대학 진학률이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현상임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정책방향도 대학 진학률과 연관지어 장기, 중기, 단기적인 대책을 모색하였다.

석상훈(2012)은 한국재정학회에 “고령자의 취업실태와 정책방향”을 발표하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기초자료로 사용했다. 여기서 고령취업자의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지위, 직업, 월평균 임금, 퇴직사유를 3차년도 횡단 가중치를 적용하여 취업구조에 대한 분포를 확인했고, 경제활동참가와 은퇴결정이 빈곤여부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프로빗 추정을 실시하였다.

박진희(2013)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자 현황 및 노동시장진입 애로요인 분석”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취업희망자의 규모 및 현황을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등의 항목으로 파악하였고, 취업희망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애로요인이 무엇인지를 앞의 기본 인구학적 항목별로 활동상태별과 비구직이유를 통해 파악하였다.

제 3 절 해외사례

1. 경제활동인구조사 국제 비교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민들의 고용상황, 노동력을 파악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므로 우리나라를 포함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일본, 호주, 네덜란드 8개국 모두 조사목적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분기별 조사를 실시하는 영국과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비교국가가 월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비교국가 모두 공통적으로 교체표본, 연동표본, 순환표본이라고 불리는 교체시스템(Rotation System)에 의하여 구성되는 표본을 운영하고 있다. 각 나라마다 서로 상이한 교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시계열 관점에서 안정적인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국가통계 작성에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며, 미국의 경우 매월 또는 매분기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 시스템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표본의 크기를 보면 각 국가별로 매월조사에 비하여 표본의 크기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표본의 크기는 교체시스템에 의하여 매 조사시기에 적절히 분배된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경우 조사에 적용되는 교체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 매뉴얼(User Guide), 연구논문 등을 통하여 자세하게 공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KOSIS의 통계설명 부분에서 “응답자의 응답부담 완화와 표본의 노후화 현상 및 전면 표본개편에 따른 신규 계열 괴리 현상 감소를 위해 약 900가구를 매월 교체”라는 문구 이외에 다른 참고자료(월보, 연보)를 찾을 수 없다. 교체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조사기법에 많은 개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 부분에 자료가 공개되어있지 않은 것은 아쉽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노동력조사)에 대한 더 자세한 구분별 비교내용은 부록에 수록되었으며, 발행 간행물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 3.4> 경제활동인구조사 국제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통계명	경제활동인구조사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Labor Force Survey	Enquête Emploi en continu depuis
조사주기	매월	매월	매월	분기
조사방법	면접(CAPI), 자기기입식, 인터넷(CASI)	면접조사, 전화조사(CATI)	전화조사 (CATI병행) 면접조사	면접조사
표본크기	총 32,000가구	총 60,000 가구	총 54,000 가구	7만 2천명 38,000가구
주요연혁	1962년 승인	1942년 시작	1945년 시작	1950년 시작
공표주기	매월	매월	매월	분기
간행물	경제활동인구월보 경제활동인구연보	Employment and Earning	Labor Force Information	Marché du travail - Séries longues

구분	영국	일본	호주	네덜란드
통계명	Quarterly Labor Force Survey(QLFS)	Labor Force Survey	Labor Force Survey	Labour Force Survey
조사주기	분기	매월	매월	매월
조사방법	면접, 전화조사 (CATI병행)	종이조사표 및 OMR조사표	면접, 전화조사 (CATI병행)	면접조사(CAPI) 전화조사(CATI)
표본크기	총41,000가구	총40,000가구	총 22,800	매월 8,000가구
주요연혁	1973(매 2년) 1980(연간 조사) 1992(분기조사)	1946년 시작	1960년(분기별) 1978년(월별)	1973년 시작
공표주기	분기	매월	매월	매년
간행물	Monthly Digest of Statistics. Quarterly Report for Labor Market	Annual Report on the Labor Force Survey	Labor Force, Australia	Labour and social security (Web publications)

2. 시사점

여기서 시사점으로 제시하려는 내용은 구체적인 표본설계 개선안이 아니라 교체표본설계, 순환표본설계, 연동표본설계로 불리는 교체표본(Rotation Sampling)에 관한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우리나라 포함 총 8개국이 비교되었으며, 비교 결과 우리나라 모두 비교국가 모두 표본의 중복을 이용하는 교체표본을 사용하고 있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노동력조사)를 위해 미국과 일본의 경우 4개월 조사, 8개월 조사중지, 4개월 재조사를 시행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6개월 조사후 표본을 교체하는 시스템, 호주는 8개월 조사 후 표본을 교체하는 시스템임을 밝히고 있는 반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경우 어떤 교체시스템을 사용하는지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인터뷰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표본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표본의 중복을 허용하는 교체표본은 안정적인 통계값이 생산되어야 하는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의 특성과 국제적인 비교를 고려해 볼 때 교체표본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뿐 아니라 가계조사에서도 교체표본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교체표본의 적용은

- 교체방식(rotation scheme)
- 추정방법(estimation method)
- 표본중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관계수의 추정
(estimate correlation by overlapping)
- 교체그룹의 마모율(panel attrition)
- 편의발생 및 제거(bias)
- 실제 운영 및 평가

에 관한 내용들이 동시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용하는 교체방식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교체형식의 적용을 파악할 수 있는 가공 이전 데이터의

제공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CPS(Current Population Survey)이외에도 월별 또는 분기별과 같이 계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Monthly Retail Trade Survey(MRTS), American Community Survey, Consumer Expenditure Interview Survey(CEX) 등에서 교체방식과 자료를 모두 제공하고 있어 위의 내용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교체방식과 추정방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자료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ILO(2013).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 Draft Report.
- KDI(2013). KDI 경제동향(2013.8).
- 강순희·전재식·이계오(1999). 「*실업통계의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고용정보원(2013).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
- 국회예산정책처(2013). 「*NABO 경제동향 & 이슈*」, (통권 제 22호).
- 기획재정부(2013). 보도자료(2013.8.14.).
- 김용현(2005). 유사실업률 추이를 통한 실업률 수준 평가, 「*월간 노동리뷰*」.
- 남재량(2013). 최근 고용률 정체와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고용동향 분석*」, 창간호.
- 박진희(2013).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희망자 현황 및 노동시장진입 애로 요인 분석, 「*고용이슈*」. 제6권 제2호.
- 석상훈(2012). 고령자의 취업실태와 정책방향, 「*2012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 학술대회 논문집*」.
- 양수경(2008). 여성 고용의 변화 추이 분석, 「*고용이슈*」, 제1권 2호.
- 정인숙(2008).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의 차이, 「*통계의 창*」, 제1호.
- 조운제, 박창귀, 강종구(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지표의 변화, 「*금융경제연구*」 (2012.01).
- 통계개발원(2009). 「*국내외 통계제도 및 통계작성현황 비교분석 연구용역 보고서*」.
- 통계청(2013a). 「*2013년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 ver.2.1*」.
- (2013b). 「*2013년 경제통계연보*」.
- (2013c). 「*경제활동인구조사지침서*」.
- (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2008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서.
- 한국은행(2013). 경기-고용간 관계 변화의 구조적 요인 진단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최근 청년층 실업 문제와 인적자원개발 방향,
「연구보고서」.

황수경(2010). 실업률 측정의 문제점과 보완적 실업지표 연구, 「노동경제논문
집」 제33권 3호.

——(2009). 잠재실업의 구조와 규모, 「월간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bls.gov/cps/>

[http://www.statcan.gc.ca/cgi-bin/imdb/p2SV.pl?Function=getSurvey&SDDS=3701
&lang=en&db=imdb&adm=8&dis=2#4](http://www.statcan.gc.ca/cgi-bin/imdb/p2SV.pl?Function=getSurvey&SDDS=3701&lang=en&db=imdb&adm=8&dis=2#4)

<http://www.statcan.gc.ca/bsolc/olc-cel/olc-cel?catno=71-001-X&lang=eng>

<http://www.insee.fr/fr/methodes/default.asp?page=sources/ope-eng-emploi-continuu.htm>

<http://www.insee.fr/fr/publications-et-services/irweb.asp?id=martra08>

<http://www.ons.gov.uk/ons/guide-method/method-quality/quality/quality-information/social-statistics/quality-and-methodology-information-for-the-labour-force-survey-lfs-.pdf>

<http://www.stat.go.jp/english/data/roudou/index.htm>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Latestproducts/6202.0Explanatory%20Notes1Jul%202013?opendocument&tabname=Notes&prodno=6202.0&issue=Jul%202013&num=&view>

<http://www.cbs.nl/en-GB/menu/methoden/dataverzameling/dutch-labour-force-survey-characteristics.htm>

〈부록〉

1. 외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작성현황
2. 표본설계점검보고
3. 수집자료 정확성 결과보고
4. 공표자료 오류점검표
5.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표
6. 경제활동인구조사조사표

<부록1> 외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작성 현황

미국

<http://www.bls.gov/cps/>

캐나다

[http://www.statcan.gc.ca/cgi-bin/imdb/p2SV.pl?Function=getSurvey&SDDS=3701
&lang=en&db=imdb&adm=8&dis=2#4](http://www.statcan.gc.ca/cgi-bin/imdb/p2SV.pl?Function=getSurvey&SDDS=3701&lang=en&db=imdb&adm=8&dis=2#4)

<http://www.statcan.gc.ca/bsolc/olc-cel/olc-cel?catno=71-001-X&lang=eng>

프랑스

<http://www.insee.fr/fr/methodes/default.asp?page=sources/ope-enq-emploi-continu.htm>

<http://www.insee.fr/fr/publications-et-services/irweb.asp?id=martra08>

영국

<http://www.ons.gov.uk/ons/guide-method/method-quality/quality/information/social-statistics/quality-and-methodology-information-for-the-labour-force-survey-lfs-.pdf>

일본

<http://www.stat.go.jp/english/data/roudou/index.htm>

호주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Latestproducts/6202.0Explanatory%20Notes1Jul%202013?opendocument&tabname=Notes&prodno=6202.0&issue=Jul%202013&num=&view=>

네덜란드

<http://www.cbs.nl/en-GB/menu/methoden/dataverzameling/dutch-labour-force-survey-characteristics.htm>

외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작성 현황

국가	통계명	조사주기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공표방법
일본	노동력조사 (LFS:Labour Force Survey)	매월 -말일 포함 1주	매달 마지막 날, 12월은 26일조사	약 40,000개 가 구 무작위 조사 15세 이상 10만명이상	종이조사표 OMR조사표	홈페이지 보도자료
미국	현재인구조사 (CPS:Current Population Survey)	매월	12일이 속한 1주일	약 60,000개 표본가구 내 16세 이상 인구	표본조사 면접조사	익월 첫 번째 금요일 보도자료, DB홈 페이지 게시
캐나다	노동력조사 (LFS:Labour Force Survey)	매월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	약 53,000개 15세 이상인구	표본조사 면접조사	익월 두 번째 금요일 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시
영국	노동력조사 (LFS:Labour Force Survey)	월간조사 (분기조사)	조회하는 기간 마지막 주 후 6 주	약 60,000가구	표본조사 면접조사	월간 및 분기 발표 홈페이지 게시
프랑스	노동력조사 (Enqunte Emploi en Continu depuis)	분기	매월 말일을 포함한 1주	약 38,000가구 분기당 45,000 주거 조사 표본가구 내 15세 이상 인구	전화조사 면접조사	분기 후 3번째 달 월초 분기별 보고서 발간 분기별 또 는 연간 간행물 조사시작일부터
네덜란드	노동력조사 (LFS:Labour Force Survey)	매월	6일과 12일 사 이 월요일 전주	약 30,000가구 표본가구 내 15 세 이상	표본조사 면접조사	1개월 후, 보도자료 및 홈 페이지 게시

1. 일 본

- 1) 통계명 : 노동력조사(LFS)
- 2) 통계종류 : 조사통계
- 3) 조사목적
 - 실업과 고용에 대한 경제 정책과 대책을 개발하기 위함.
 - 취업과 무적 취업상태를 매월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4) 조사주기
 - 매월 조사(분기별 공표, 매월 말일을 포함한 1주)
- 5) 조사기간
 - 매달 마지막 날 행해지나, 12월은 26일 날 행함
- 6) 조사대상
 - 약 40,000개 가구 무작위 조사, 15세 이상 10만 명 이상
- 7) 조사방법
 - 종이조사표 및 OMR 조사표
- 8) 주요연혁
 - 1946년 실험적으로 열 달 동안 실행해본 후에 1947년 7월부터 매달 조사가 시작됨
- 9) 공표방법
 - 보도자료, 홈페이지
 - 한 달 후에 예비보고서가 발행되고 두 달 후에 Monthly Report on the

Labour Force Survey란 이름의 정식보고서가 발간된다.

이듬해 봄에 Annual Report on the Labour Force Survey 이 발행된다.

10) 간행물

- Annual Report the Labor Force Survey

11) 연락처

- 총무성 통계국 통계 조사부 노동력 인구 통계 객실 심사 자료 제 1원
심사 발표 제 2원, (TEL) 03-5273-1162 (직통)

2. 미 국

- 1) 통계명 : 현재인구조사 (Current population Survey)
- 2) 통계종류 : 조사통계
- 3) 법적근거
 - Title 13, United States Code, Section 182, and Title 29, United States Code, Sections 1-9.
- 4) 조사목적
 - 전체인구에 대한 노동력에 대한 기본자료 제공
 - 고용, 비고용, 일반 노동력에 관한 특질, 노동인구, 인구의 다양한 소그룹 등을 제공
 - 매월 경제활동인구수, 취업자 수, 실업자 수 등의 자료 제공
- 5) 조사주기
 - 매월(조사대상 기간:12일이 속한 1주일)
 - 매달 한주 동안에 행해지는 계속 면접 조사
- 6) 조사대상
 - 조사범위 : 약 60,000개 표본가구 내 16세 이상 인구
 - 조사단위 : 가구
 - 조사항목 : 인적사항, 가족사업 유무, 취업자 유무, 부업 유무, 근로시간, 경제적인 파트타임, 구직 관련, 구직 단념자, lay-off, job history, 산업, 직업, 수입, 학교 등록
 - 가구주(소양을 갖춘 15세 이상)
- 7) 조사범위 : 전국의 1인 이상 일반가구

8) 조사방법

- 표본조사, 면접조사(CATI병행)

9) 주요연혁

- 시작연도 : 1940년
- 표본설계
 - 약 60,000가구, 센서스2000자료 이용.
- 월간 1년 평균자료에 근거하여 국가, 모든 주, 선택된 대도시 지역 추정치 작성

10) 공표방법

- 익월 첫 번째 금요일, 보도자료 및 DB홈페이지 게시

11) 간행물명

- Employment and Earning
- 6개월 이후 마이크로 데이터 이용 가능

12) 연락처

- U.S. Census Bureau, Contact person: Lisa Clement, (301) 763-5482 or Gregory Weyland, (301) 763-3790.

3. 캐 나 다

1) 통계명

- 노동력조사(Labor Force Survey)

2) 통계종류

- 조사통계

3) 조사목적

- 주요 고용시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
- 고용, 실업, 비경제 인구에 대한 상세한 자료 제공

4) 조사주기

- 매월(조사대상 기간 :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

5) 조사대상

- 약 53,000개 표본가구 내 15세 이상 인구

6) 조사방법

- 표본조사, 면접조사(CATI병행)

7) 주요연혁

- 1945년 분기별 조사 실시
- 1952년 월별 조사 실시
- 1960년 공식조사 승인

8) 추정

- 2000년 1월, LFS 복합 추정 회귀라는 새로운 평가 방법을 도입.
- 이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기지 이전 LFS의 모든 데이터가 사용.

그것은 연구 논문에서 '노동력 조사(LFS)' 카탈로그 안에 개선에 대한 설명되어있음.

9) 공표방법

- 익월 두 번째 금요일 공표, 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시

10) 공표주기

- 매월

11) 간행물

- Employment and Earning

4. 영 국

1) 통계명

- 노동력조사(Labor Force Survey)

2) 통계종류

- 조사통계
- 법적근거
- EU에 따름

3) 조사목적

- 영국 고용시장에 관한 정보 제공
- 노동시장 정책을 개발, 관리, 평가하기 위함

4) 조사주기

- 월간 조사 (분기조사)

5) 조사대상

- 약 60,000개 표본가구 내 16세 이상 인구
- 지역 : England, Scotland, Wales

6) 조사방법

- 표본조사, 면접조사(CACTI병행)
- 지역구분 : ONS Central Postcode Directory
- ONS Standard Geographic Names and Codes
- 60,000개 자료를 5개 구분으로 나눈다 => 각각 12,000 가구주
각각 면접조사 혹은 전화조사를 통해 5개그룹의 자료를 얻는다.
결과적으로 80%정도의 응답을 얻는다.
- The quarterly LFS - a new dimension in labour market statistics 를 통

해 LFS sample design, 방법론, 변수를 만든다.

7) 계절조정

- 1997년 이후
- X-11 ARIMA를 이용해 계절조정 시행

8) 조사기간

- 조회하는 기간의 마지막 주 후 6주.

9) 주요연혁

- 1973년 2년마다 조사
- 1984년 연간조사
- 1992년 분기별 조사

10) 계속여부

- 계속

11) 조사표설계

- 표본설계 약 60,000가구

12) 조사항목

- 생년월일 , 민족, 태어난 국가, 결혼유무, 성별, 사회 경제적인 집단

13) 공표방법

- 월간 및 분기 발표, 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시

14) 공표주기

- 매월

15) 자료검색

- 분기노동력조사1992~
- 분기노동력조사'specialLicenceAccess'2003
- 분기노동력조사'지방지역자료'1992~
- 분기노동력조사'eurostatdatasets'2004~
- 노동력조사'가구'1990~
- 노동력조사'2분기종단적자료'1992~
- 노동력조사'5분기종단적자료'1992~
- 노동력조사(1975-1991)
- 노동력조사특별모듈EurostatDatasets2002~
- 노동력조사AnnualEurostat1999~

16) 간행물

- Monthly Digest of Statistics.
- Quarterly Report for Labor Market

17) 조사기관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18) 연락처

- ONS, Contact : +44(0)1633455995

5. 프랑스

1) 통계명

- 노동력조사(Enquête Emploi en continu depuis)

2) 통계종류

- 조사통계

3) 조사목적

- 노동력에 대한 기본자료 제공
- 노동시장의 구조와 순환 관측
- International Labor Office (ILO)에 정의된 활동, 비고용, 고용, 비활동에 관한 자료 제공

4) 조사주기

- 분기

5) 조사대상

- 가구, 표본 가구 내 15세 이상 인구

6) 조사방법

- 면접조사(CAPI)
- 전화조사

7) 표본크기

- 7만 2천명, 38,000가구
- 각 분기당 54,000주거 조사
- 프랑스 전역

8) 계속여부 : 계속

9) 주요연혁

- 1950년 시작
- 1975년부터 ILO기준 실업률 작성
- 2001년 7월 계속고용에 관한 조사최초 실시

10) 공표방법

- 분기 후 3번째 달 월초
- 분기별 보고서 발간 분기별 또는 연간 간행물

11) 자료검색

-

http://www.statistiques.public.lu/stat/ReportFolders/ReportFolder.aspx?IF_Language=fra&MainTheme=2&FldrName=5

12) 간행물

- Marché du travail - Séries longues

13) 연락처

- Emploi et chômage : Liliane Reichmann (Statec, tél. +352 247-84264)

6. 네덜란드

1) 통계명

- 노동력조사 (Labor Force Survey) Dutch Labour Force Survey (LFS)

2) 통계종류 : 표본, 조사통계

3) 조사목적

- 노동력에 대한 기본자료 제공
- 사람과 노동 시장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 사람의 특성은 노동 시장에서 자신의 현재 또는 미래의 위치로 연결
- 고용인구와 실업인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자료 제공

4) 조사주기

- 매월(조사대상기간 : 매월 말일을 포함한 1주)

5) 조사대상

- 조사단위 : 가구
- 조사범위 : 표본 가구 내 15세 이상 인구 64세 이하
- 조사대상 : 가구와 교육기관 내의 인구를 제외한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
- 조사지역 : 전국

6) 표본크기

- 매월 8,000가구

7) 조사방법

- LFS는 소위 패널회전 조사라고 함. 응답자들은 가정에서 네덜란드통계 면접관의 방문을 받음.(컴퓨터 - 면접조사 보조, CAPI)
- 그 후 그들은 4번의 전화를 더 받음.(컴퓨터 - 전화 조사 보조, CATI)

첫 번째 면접은 가구당 거의 30분이 소요되며, 차후 면접은 단 몇 분 정도만 소요. (이 패널 회전 방식은 1999년 4분기에 도입됨).

8) 계속여부

- 계속

9) 조사항목

- 고용, 비고용, 노동시간, 분야별 고용, 비고용 기간, 산업, 직업, 고용상태, 교육 기술 정도, 작업환경 등

10) 주요연혁

- 1973년 시작
- 1992년, 2000년 개정

11) 표본설계

- 2007년 약 67,000가구

12) 공표방법

- 노동시장에 관한 변화의 제한 설정을 매 분기마다 발표. 이러한 노동시장에 관한 제한 설정과 많은 추가 설정은 또한 연간기준으로 발표됨. 추가적으로, 노동력의 취업과 실업에 대한 3개월 평균 또한 이용가능.

13) 공표주기

- 익월 말

14) 자료검색

- 월간노동자료 : 실업, 고용, 미포함

15) 간행물

- Labour and social security

7. 호 주

1) 통계명

- 노동력조사(Labor Force Survey)

2) 통계종류

- 조사통계

3) 조사목적

- 주요 고용시장에 관한 정보를 제공(15세 이상)
- 노동력에 대한 기본자료 제공
- 고용 혹은 비고용 등의 자료를 조사하여 노동력시장의 상태 파악

4) 조사주기

- 매월(조사대상기간 : 6일과 12일 사이 월요일 전주)

5) 조사대상

- 약 30,000가구
- 표본가구 내 15세 이상 인구

6) 표본크기

- 총 22,800

7) 조사방법

- 표본조사, 면접조사(CATI병행)

8) 조사항목

- 성별, 나이, 결혼여부, 가족, 지역구분, 교육정도, 태어난 곳

9) 주요연혁

- 1960년 분기별 조사
- 1978년 2월 월간조사

10) 표본설계

- 약 30,000가구, 매월 1/8씩 표본교체

11) 공표방법

- 조사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 보도자료 및 테이블 홈페이지 게시

12) 간행물명

- 6202.0 - Labour Force, Australia

13) 연락처

- contact the National Information and Referral Service on 1300 135 070,
email client.services@abs.gov.au or Steve Wood on Canberra (02) 6252
6525, email labourforce@abs.gov.au

표본설계 점검 결과보고

부	문		
통	계	명	경제활동인구조사
승	인	번호	10104
작	성	기관	통계청
품질진단팀	연구원	변	종석
	연구보조		

□ 점검 개요

○ 표본설계 점검 시 검토한 자료(표본보고서 등), 면담자, 면담일시 등 기술

<p>1. 점검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서(3건) : 2012년 가구부문 경상조사 표본개편 결과 (자체설계 : 통계정책국 표본과, 2012년 11월) 2011년 가구부문 연동모형 및 추정방법 개선연구 용역보고서 2007년 표본개편보고서 및 학술연구용역보고서 - 승인통계현황 메타정보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pi/2/8/index.static#)
--

□ 조사 개요

조 사 명	경제활동인구조사	
작성기관명	통계청	
전수/표본조사	전수()	표본(○)
표본설계주체	자체설계(○)	외부용역() 【용역사업자: 】
조사목적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조사대상	개인 (청년층 조사 대상자 연령조정으로 15~29세)	
조사방법	가구방문 면접조사(PDA입력)	

□ 표본설계 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모집단 : 조사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15세 이상 모든 사람 - 조사모집단 : 2010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2011년 신축아파트를 포함한 조사구(307,627개/신축 3,097개 포함)의 만15세 이상 모든 사람
표본추출틀	<p>표본추출틀 : 2010년 인구총조사 2011년 신축아파트를 포함한 조사구 중 조사구 (1), 아파트(A)인 조사구의 모든 가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조사구 18,934개, 일반조사구 305,779개 (신축아파트 2,448개)
표본추출방법	<p>표본추출방법 : 층화 3단 집락추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층화 : 25개 지역 (특별시와 광역시는 시, 도(道) 지역은 동부, 읍면부) + 1차 추출단위(PSU) : 광역조사구 확률비례계통추출 + 2차 추출단위(SSU) : 광역조사구내의 일반조사구 확률비례추출 + 3차 추출단위(USU) : 가구 SRS 추출
표본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29개 조사구(약 3만2천 가구) - 15세이상 가구원 전체
가중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가중값과 사후층화보정 가중값 사용 - 설계가중값 : 크기 척도(MOS)를 이용한 방법으로 가중값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SU : 광역조사구 (확률비례추출) + SSU : 일반조사구 (확률비례추출) + FSU : 가구 (확률추출) - 사후층화보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연령그룹별 25개 지역 층별 추계 인구
추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계 추정식과 표본오차 추정 식 제공 - 표본오차 추정 : 테일러 선형근사 분산 추정 (PROC SURVEYREG)

□ 점검결과 요약

○ 점검결과 주요 문제점 및 개선의견 정리

부문	문제점	개선의견
모집단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단의 구체적인 설정이 적절 - 목표 및 조사 모집단 명확하게 구분 - 조사단위가 가구로 명확하게 설정 	개선사항 없음
표본 추출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인구조사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표집틀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년 인총조사구를 표집틀로 사용 +조사모집단에서 일반조사구 및 아파트조사구만 대상 - 연동표본교체로 인한 시계열 안정성 유지 및 업무량 고려한 표집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조사구/일반조사구 사용 -표집틀 포함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축아파트조사구(3,097개 일반조사구) +광역조사구 설정시 중복 등 일부조사구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표집틀 사용, 최신 변동 상황 반영 및 포함률 제고를 위한 신축 아파트 조사구 포함, 시계열 안정성 유지를 위한 광역조사구 사용 등 표집틀이 적절하므로 개선의견 없음
표본 추출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PSU 및 SSU의 확률비례계통 추출법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최종 가구는 SRS로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목적, 조사용이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층화기준 및 변수를 사용하고 영역 및 분야별 통계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개선의견 없음
표본 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조사결과 및 목표 상대 표준오차를 산출하여 표본크기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단위 기준으로 실업자 수 기준으로 연간 상대표준오차 전국 3%, 시도는 5%/10%/12%수준에서 크기 산정 - 표본규모 산정을 위한 적절한 검토를 통해 표본규모 결정 - 광역시도별 예상 CV등의 검토는 있으나 추가적으로 주요범주별 최소표본수 및 예상 CV 정보 미제공 - 조사구 기준의 표본크기 산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요약되어 있음(설계 연구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자수 기준의 산정 과정 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별 취업자의 상대표준오차가 변동이 심한 상황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특히 농림어업) +현재 표본설계 보고서는 조사구 기준으로 설계의 전반적인 과정이 소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범주별 예상 상대표준오차 등 제공 방안 마련이 필요 -활용도가 높은 조사이므로 가구수 및 가구원수 기준의 주요범주별 예상 상대 표준오차 등 제공 방안 마련이 필요

부문	문제점	개선 의견
가중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 가중치, 사후층화 조정 가중치 반영 - 사후층화보정을 위해 25개 층별 추계인구의 성별, 연령별 자료 활용은 바람직 - 가중치 영향의 검토를 위해 가중치분포에 대한 검토 과정 미제공 - 조사구기준 20가구 선정 후 5가구 조사시 실제 접촉 가구수 등의 정보 미제공으로 무응답가구에 대한 가중치 검토가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계인구기준 성별/연령별의 사후 층화보정가중치의 사용은 적절하며, 특별한 개선의견 없음 +보완할 의견으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중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중치의 분포 및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응답률 산정 방식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교체없이 목표 가구를 완전하게 조사할 수 없으므로 무응답보정에 대한 가중치 반영의 검토가 요구됨
추정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수 및 표본오차 추정을 위해 적절한 추정식을 제공하고 있음 + 분산추정방법 제공은 적절 + 표본설계 반영 추정식 사용 - 시군구 및 광역시도, 읍면부 및 영역별 등의 추정 식 제공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시도 및 시군구단위, 읍면부 및 영역별 추정 식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됨 +기본적으로 표본설계를 반영하고 복합표본설계에서 요구되는 분산 추정법을 고려하는 등 추정식의 사용은 전반적으로 적절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설계 보고서는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포함한 경상조사의 연동표본 조사구 운영방안에 대해 기술되어 있음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연동표본설계 이므로 표본설계과정에서 기간(차기 연동표본) 사이의 시계열 안정성 유지를 위한 설계에 대한 검토 결과 미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본설계 보고서에 조사구의 운영 방식, 표본 조사구 및 표본가구 규모의 산출 과정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므로 표본가구/가구원 기준의 설계보고서를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연동표본설계 이므로 동일한 설계 시점내(기내)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기간(차기 연동표본) 사이의 시계열 안정성 유지를 위한 표본설계방안에 대한 검토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수집자료 정확성 점검 결과보고

[조사통계]

부	문	통계1	
통	계	명	경제활동인구조사
승	인	번호	
작	성	기관	통계청
품질진단팀	연구	원	최종후
	연구	보조	윤훈상

제1부 점검계획

1. 점검 방법

7월 22일~7월 26일,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기간을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7월 23일~24일에는 충청지방통계청에서 팀장 및 과장 5명과 응답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7월 25일~26일에는 경인지방통계청에서 5명(통계서기 및 주사, 사무관)과 응답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조사 관리 및 조사원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은 조사방법, 조사지침 교육 여부,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응책, 응답자의 관리 방법, 예산, 조사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평가, 업무량 등이고, 응답가구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응답가구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은 조사과정, 조사의 신뢰성,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지방통계청 팀장은 20가구(1조사구) 조사를 담당하며, 행정업무를 병행한다. 팀원의 경우 60가구(3조사구) 조사를 담당한다. 조사원은 통계청의 정규직 50%, 무기계약직 50%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규발령자를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5년~30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조사업무 교육시스템은 정기적으로 신규직원을 교육하며, 1년 미만, 업무 변경, 담당자별 부가교육이 있으며, 필수로 사이버지침교육이 있어 철저한 교육시스템이 운영됨을 알 수 있다.

인터넷조사(CASI), 전화면접조사(CATI)가 전체 응답 중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사결과의 정확성 부분에서는 민감한 항목에 대해서는 유도질문으로 확인을 할 뿐만 아니라, 상호교환 내검, 확인점검, 전문조 내검 등 통계청 내부에서도 매달 확인점검을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다.

현장조사의 경우 원룸, 맞벌이 가구,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응답자들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예민함으로 조사에 불응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어 점차 조사환경이 열악해짐을 알 수 있다. 특히 부가조사의 경우 많은 항목 수와 민감한 항목으로 응답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현장조사원들은 늦은 시간, 위험한 길을 무릅쓰고, 최소 월 4-5번씩 응답자를 만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사원과 응답가구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통계활동비(월 15만원)는 매우 부족하며, 응답가구 응답사례비의 경우도 2달에 만원으로 가계조사는 2만원(한달 기준), 전자가계부 4-5만원(한달 기준)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사례비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대폭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응답가구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제도적 개선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응답자들의 경우 조사원들의 친절함과 상세한 설명으로 조사에 대한 만족을 하였지만, 처음 조사표를 접하였을 경우에는 어려웠다고 한다. 자신의 정보와 민감한 항목에 대한 응답에 있어서 사생활 침해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으며, 부가조사의 경우 많은 조사항목으로 응답 부담이 가중되고,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들기도 한다고 하였다.

2. 면담(현장방문) 일정			
일시	면담대상자/참석자	장소	주요 점검사항
7/23	과장 / ○○○	충청지방통계청 9층 사회조사과	조사방법. 조사지침 교육 여부, 조사과정시의 문제점과 대응책
7/23	팀장 / ○○○	충청지방통계청 9층 사회조사과	응답자의 관리 방법, 조사지침 교육 여부
7/23	팀장 / ○○○	충청지방통계청 9층 사회조사과	조사지침 교육여부, 조사과정시의 문제점과 대응책
7/24	팀장 / ○○○	충청지방통계청 9층 사회조사과	조사방법. 조사지침 교육 여부, 조사과정시의 문제점과 대응책
7/24	팀장 / ○○○	충청지방통계청 9층 사회조사과	응답자의 관리 방법, 조사지침 교육 여부
7/24	응답자 / ○○○	대전시 대덕구 비래동 한신휴플러스 101동 302호	사례비, 조사표 및 부가조사에 대한 응답의 어려움
7/25	통계주사 / ○○○	경인지방통계청	조사과정시의 문제점과 대응책
7/25	통계주사 / ○○○	경인지방통계청	조사지침 교육여부, 조사방법
7/25	통계서기 / ○○○	경인지방통계청	응답자의 관리 ,조사방법.
7/26	통계사무관 / ○○○	경인지방통계청	조사방법. 조사지침 교육 여부, 조사과정시의 문제점과 대응책
7/26	통계주사 / ○○○	경인지방통계청	조사지침 교육여부, 조사방법
7/26	응답자 / ○○○	서울시 강남구 일원2동 대청APT 303동 707호	사례비, 조사표 및 부가조사에 대한 응답의 어려움

제2부 점검결과 요약

○ 점검결과 주요 문제점 및 개선의견 정리

구 분	문제점	개선 의견
조사환경의 변화	<p>단독가구, 맞벌이 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보이스피싱의 확산으로 불응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울, 경기지역의 경우 응답자들의 조사 참여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이 시급하다.</p>	<p>응답자의 조사 참여 인식 변화를 위해서 통계청 본청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p>
	<p>조사원은 응답자를 만나기 위해서 늦은 시간, 위험한 장소등에서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다.</p>	<p>조사원들의 위험수당 또는 조사구 내에 경찰 지구대의 동행이나 협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p>
사례비/통계활동비	<p>다른 조사들과 비교했을 경우 응답가구의 응답사례비가 월 5천원으로 적다. 뿐만 아니라, 응답가구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하여 활용되는 조사원의 통계활동비가 월 15만원으로 적다.</p>	<p>응답가구의 응답 사례비와 통계조사비에 대한 대폭적인 증액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응답가구 세제혜택 등 제도적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p>
조사표 개선	<p>조사표가 응답자 친화적으로 보다 친절하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p>	<p>2014년으로 예정된 조사표 개편에 이러한 점을 반영한다.</p>

제3부 점검결과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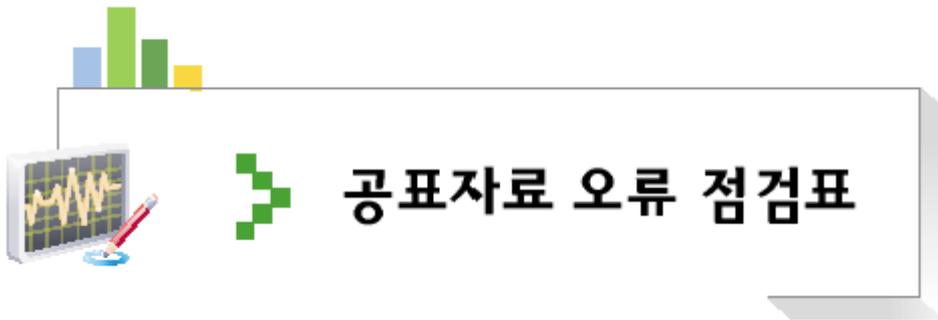
- 점검결과를 통해 현장조사의 오류 유형과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 기술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통계청에서 조사의 기획에서 실사 및 분석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총괄 집행하고 있기에 현장조사의 오류는 숙달된 조사원과 조사시스템에 의하여 잘 통제되고 있다.

조사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는 현 상황에서 성공적인 조사여건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 15만원에 머물고 있는 조사원의 통계활동비와 월 5천원에 머물고 있는 응답가구의 사례비는 대폭 상향조정 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응답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제도적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사표는 응답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부록4>



공표자료명	경제활동인구연보				
공 표 시 기	2013.1.09				
공 표 주 기	① 월	② 분기	③ 반기	④ (1)년	⑤ 부정기

부 문	통계1	
통 계 명	경제활동인구조사	
승 인 번 호		
작 성 기 관	통계청	
진 단 일 자	2013년 8월 20일	
품 질 진 단 팀	연 구 원	최 종 후
	연구보조	윤 훈 상

1.수치자료

진 단 항 목	적 절	부 적 절	오 류 내 용 (구 체 적 으 로 기 입)
1- 1. 통계작성기관의 통계간행물 과 통계 DB의 수치 일치 여 부 - 최근 발행된 간행물과 자료생산기관의 DB를 비 교하여 점검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2. 시계열 자료의 일관성 - 시계열 자료에 단절이 없는지 확인 - 단절이 있는 경우 그 사 실 및 원인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이용자가 변경내용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3. 통계개편 등으로 인한 통계 작성방법 변경이 공표자료 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여 부 - 통계작성방법이 메타자 료에서 기술한 통계작성 방법과 일치하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 4. 통계수치의 정확성 - 통계표의 가로합/세로합 불일치 확인 - 통계표에 비상식적인 수 치 확인 - 시계열 상의 이상치(과 대, 과소 수치)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통계표 형식 및 내용

진 단 항 목	적절	부적절	오류 내용
2- 1. 통계표 형식의 통일성 - 통계표상 한글, 영문의 표기 위치, 방법 등의 통일 여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2. 통계표에 수록된 항목과 내용의 일치성 - 항목과 내용의 일치여부 확인 - 다른 통계를 인용한 경우 출처에 있는 통계표와 일치여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3. 통계표에 사용된 기호의 적절성 - 통계표의 내용 이해에 꼭 필요한 기호들이 알맞게 표기되고 있는지 또는 누락되었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통계표 형식 및 내용

진 단 항 목	적절	부적절	오류 내용
2-4. 통계수치 표기의 일관성 - 통계표 내 항목별 소수 자리 및 반올림 일치 여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5. 단위 표기의 적절성 - 명, 개, % 등 통계표의 내용이해에 꼭 필요한 통계단위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 - 적절한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지, 인용된 통계의 경우 출처의 단위와 일치하는지, 단위 환산이 정확한지 등 확인 - 단위 표기가 통계표의 일관된 위치에 있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6. 주석 표시의 합리성 - 통계표 이해에 꼭 필요한 주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주석과 통계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 주석과 통계표의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7. 자료 출처의 명확성 - 인용한 통계표의 출처가 명기되었는지 확인 - 출처기관과 출처간행물이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용된 통계표가 없다.
2-8. 도표, 그림 등의 정확성 - 도표나 그림이 정확한 수치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 도표나 그림 등이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수치에 알맞은 크거나 영역으로 표시되었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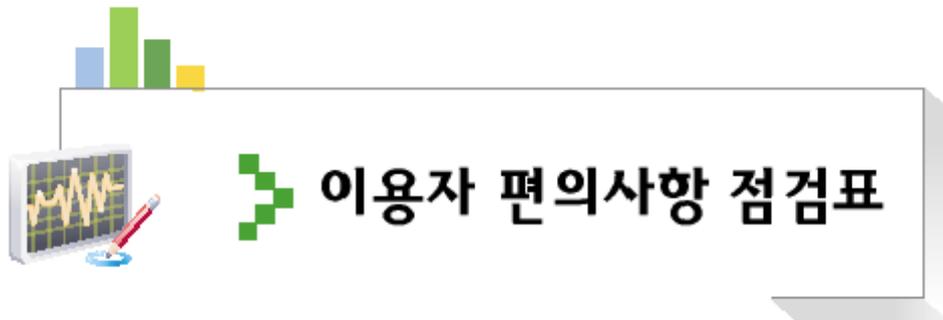
3. 용어해설 부분

진 단 항 목	적절	부적절	오류 내용
3-1. 용어정의의 적절성 -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2. 인용한 통계의 경우, 자료를 제공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일치성 - 자료를 제공한 기관의 간행물과 비교해서 동일내용에 대한 용어사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 (영문 표기 포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3. 용어의 통일성 - 간행물 전체적으로 동일 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기타 오류

진 단 항 목	적절	부적절	오류 내용
4-1. 목차, 색인 등과 본문의 일치성 - 통계표의 목차와 본문의 제목 및 페이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 색인에 표기된 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2. 한글 및 영문 표기의 적절성 - 맞춤법, 오타, 누락, 영어단어 표기 등을 확인 - 의미에 맞는 영문 표기 여부, 영문 설명 시 문장이나 단어의 누락 등으로 의미가 왜곡되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3. 통계표 제목의 적절성 - 제목이 통계표 내용을 대표하며 내용에 적합한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부록5>



발 간 물 명	경제활동인구연보 및 월보				
발 간 시 기	2013.5 / 2013.7				
발 간 주 기	① 월	② 분기	③ 반기	④ (1)년	⑤ 부정기

부 문	통계1	
통 계 명	경제활동인구조사	
승 인 번 호		
작 성 기 관	통계청	
진 단 일 자	2013년8월 20일	
품 질 진 단 팀	연구원	최 종 후
	연구보조원	윤 훈 상



1. 이용자를 위하여

진 단 항 목	근거자료	의견
<p>1-1. 소개 「이용자를 위하여」,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등 이용자를 위한 소개부분이 있다.</p>	경제활동 인구연보 및 월보	연보 : 머리말에 이어 ‘이용자를 위하여’가 있다. 월보 : 첫 장을 넘기면 ‘자료 이용시 유의사항’ p48 ‘자주하는 질문’이 있다.
<p>1-2. 부록(참고자료) 통계자료 활용에 참고 되는 내용을 부록으로 실고 있다. · 통계작성기준, 산업 또는 직업분류기준, 용어해설 등의 참고자료 수록</p>	경제활동 인구연보 및 월보	연보 : p407 부록(조사표)이 있으며, p5에는 조사표수정부분이 있으며, p6에 용어해설이 있다. 월보 : p48 주요용어해설 p51~p52 표준산업분류기준 및 표준 직업분류기준이 기록되어 있다.
<p>1-3. 기호 통계표 등에 사용되는 각각의 기호들의 의미를 명시하고 있다.</p>		통계표에 사용되는 기호가 없다.
<p>1-4. 잠정치, 확정치 통계간행물에 잠정치를 수록할 경우 잠정치의 표시 및 설명과 확정치의 공표 예정 일자를 명시하고 있다. · 잠정치로부터 의사결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잠정치 산출이유와 확정치 공표 시점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눈에 잘 띄는 부분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p>		설명 없음
<p>1-5. 자료 출처 통계간행물에 수록된 통계분석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출처를 이용자들의 눈에 잘 띄게 간행물에 수록하고 있다.</p>	경제활동 인구연보 및 월보	연보 : p13 통계청 홈페이지 및 마이크로데이터시스템에 대해서 쓰여있다. 월보 : 첫 페이지 왼쪽 위
<p>1-6. 제공 매체 통계간행물 이외의 다른 매체를 통해 자료가 제공되는 경로를 표시하고 있다. · 통계DB이용방법, 인터넷 사이트 주소, 마이크로데이터 구매절차</p>	경제활동 인구연보 및 월보	연보 : p13 사이트제공, p435 통계간행물의 안내가 되어있다. 월보 : 첫 페이지에 사이트가 명시되어 있다.
<p>1-7. 문의처 통계작성방법과 자료 수집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문의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다. · 통계작성 또는 조사체계에 대한 충분한 식견이 있는 개별 직원에게 직접 연락되어야 한다.</p>	경제활동 인구연보 및 월보	연보 : 두 번째 장에 문의처가 적혀있고, p435 통계정보 이용방법에 대해 문의처 및 판매처 기록 월보 : 첫 페이지에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수록

2. 조사정보

진 단 항 목	근거 자료	의견
2-1. 통계작성 목적 통계작성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 유사통계와 차이점 포함	경제활동 인구연보 및 월보	연보 p4, 월보 p48에 조사목적이 기록되어 있다.
2-2. 통계 연혁 통계의 주요 연혁을 설명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연보	월보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연보 p3에 조사 연혁을 설명하고 있다.
2-3. 통계작성 범위(대상) 자료수집 범위와 구체적인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연보 및 월보	연보 p4, 월보 p48에 조사대상 범위와 구체적인 대상이 수록되어 있다.
2-4. 적용 기준 국내·외 통계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사에 적용된 국내 또는 국제적 기준과 그 내역을 설명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연보 및 월보	월보 : p1-2 주요국의 고용률과 실업률이 있다.(OECD기준) 연보 : p44 시도별 고용동향
2-5. 작성 항목 작성항목을 나열하고 주요 항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연보	p413- 421 조사표란에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2-6. 작성 주기 대상기간, 기준시점, 작성주기, 실제 조사(보고)기간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연보 및 월보	월보 : p48 조사대상기간 및 시기가 쓰여 있다. 연보 : p6 조사기간 수록
2-7. 자료수집 방법 조사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연보	p6 조사방법이 수록되어 있다.
2-8. 자료수집 체계 현지에서 자료수집 하는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 조사체계, 보고체계 등	경제활동 인구연보	p6 조사방법이 수록되어 있다.
2-9. 자료수집 양식 견본 자료수집 양식(조사표, 보고양식 등)을 수록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연보	p413- 421조사표가 수록되어 있다.
2-10. 자료수집 양식 변경 내역 자료수집 양식(조사표, 보고양식 등)의 변경 내역이 설명되어 있다. · 조사(보고)항목 변경사항, 연도별 추가·신설 항목 등 변경내역의 설명 수록 여부	경제활동 인구연보 및 월보	월보 : p23- 33, p51- 52 직업분류 개정 기준이 있다. 연보 : p5 조사항목의 조사표 변경사항이 나와있다.
2-11. 용어 설명 보고서에 수록된 주요 용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별도의 용어 설명 란의 할당 여부 등)	경제활동 인구연보 및 월보	월보 : p48에 주요용어 설명이 있으며, 중간마다 설명이 있다. 연보 : p6용어에 대한 설명
2-12. 공표 방법 결과의 공표 방법, 향후 공표일정의 예고 등이 있다.	경제활동 인구연보 및 월보	연보 : p12 연간 공표일정과 고용동향 공표 사이트 제시 월보 : 마지막장에 공표일정

3.모집단 및 표본설계

진 단 항 목	근거 자료	의견
<p>3- 1. 목표 모집단 통계작성이나 표본추출을 위한 목표 모집단을 명시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모집단이란 통계분석 단위에 대한 개념적인 모집단을 의미 	경제활동 인구연보	p4,p9에 조사 범위 및 표본 추출틀에 구성 이 있다.
<p>3- 2. 조사 모집단 조사나 통계작성의 실제 조사모집단을 명시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모집단이란 실제로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조사단 위의 모집단을 의미 	경제활동 인구연보	p9 표본규모 결정에서 조사 모집단을 설명
<p>3- 3. 모집단의 근접성 목표 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이 근접정도를 설명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단의 커버리지(Coverage) 등 		설명 없음
<p>3- 4. 표본틀(표본조사) 표본추출에 사용되는 표본틀을 설명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틀이란 표본이 추출되는 단위들의 목록을 의미 	경제활동 인구연보	p9 표본틀 구성안에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p>3- 5. 표본크기(표본조사) 표본설계 당시 목표로 하는 표본크기와 실제 조사된 표본을 명시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표본의 크기는 표본설계 시에 제시했던 표본크기 임 	경제활동 인구연보	p9 표본가구 설정이 있으며, 실제 조사된 표본은 제시 되어 있지 않다.
<p>3- 6. 표본틀의 변경(표본조사) 표본틀의 변경여부 및 내역을 설명하고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의 발생, 소멸 변동사항(예: 산업분류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표본틀을 갱신 	경제활동 인구연보	p400- p408 산업, 직업분류기준 개정에 따른 결과가 나와 있다. 따로 표본틀의 변경에 대한 내역은 없다.
<p>3- 7. 표본틀 요약 정보(표본조사) 보고서에 표본틀의 주요 변수에 대한 요약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p>	경제활동 인구연보	p410- 413 주요항목들의 표본오차가 수록되어 있다.
<p>3- 8. 표본설계 방법(표본조사) 층화표본추출 등과 같은 표본설계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p>	경제활동 인구연보	p9- p10 표본조사구추출 방법이 수록되어 있다.

4.자료집계 및 추정

진 단 항 목	근거 자료	의견
4-1. 가중치 통계자료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가중치의 부여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모수를 추정할 때 또는 통계자료를 결합할 때 등	경제활동 인구연보	p10 가중값에 대한 설명이 있다.
4-2. 모수추정 방법(표본조사) 표본조사 자료로부터 모수를 추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연보	p11- 12 월간, 연간 추정방법이 수록되어 있다.
4-3. 표본오차 추정치 제공(표본조사) 표본조사의 경우에 표본오차의 추정치(표준오차, 변동계수 등)를 제공하고 있다. · 모수추정치에 대한 신뢰구간을 산출하는데 표본오차 추정치가 어떻게 사용되며, 신뢰구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연보	p410 표준오차추정, 상대표준오차, 신뢰구간, 추정치들이 표로 작성되어 있다.
4-4. 계절조정 기법 시계열에서 계절요인, 불규칙요인 등을 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연보	p46 절차는 없지만 x- 12 ARIMA 분석을 적용.
4-5. 품질수준 정보 표본오차, 비표본 오차, 대표도 등 통계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품질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활동 인구연보	P9 표준오차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4-6. 무응답 현황 무응답 현황(항목무응답, 단위무응답)을 보여주는 통계표를 제시하고 있다. · 최소한의 무응답 유형(부재, 응답거부 등)을 제시		설명 없음
4-7. 응답자 분석 응답자와 무응답자 그룹간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 수집자료의 편향(bias)정도를 설명		설명 없음
4-8. 자료집계 무응답 항목을 보완하는 대체(Imputation)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설명 없음

경제활동인구조사표

<부록6>



통계청 제32호 (양)보통민원사무, 통계법 제33조(비밀의보유)
 영남대학교 내에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영국의 통계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남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습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표

(201년 월)



이 조사는 매월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일자리 지원 등 고용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성실한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관 리 사 양

조사구 번호	<input type="text"/>								
구역명(지역번호)	<input type="text"/>								
가 구 번 호	<input type="text"/>								

조 사 품 단 장 기 입 사 양

조사일시	조사일시	조사일시	조사일시
조사일시	1. 면접조사	2. B-패널조사	3.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4. B-패널조사	5. 팩스조사	6. 전화조사
조사일시	7. 자기입력조사	8. 전화조사	9.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0. 자기입력조사	11. 자기입력조사	12.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3. 자기입력조사	14. 자기입력조사	15.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6. 자기입력조사	17. 자기입력조사	18.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9. 자기입력조사	20. 자기입력조사	21.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2. 자기입력조사	23. 자기입력조사	24.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5. 자기입력조사	26. 자기입력조사	27.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8. 자기입력조사	29. 자기입력조사	30.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31. 자기입력조사	32. 자기입력조사	33.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34. 자기입력조사	35. 자기입력조사	36.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37. 자기입력조사	38. 자기입력조사	39.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40. 자기입력조사	41. 자기입력조사	42.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43. 자기입력조사	44. 자기입력조사	45.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46. 자기입력조사	47. 자기입력조사	48.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49. 자기입력조사	50. 자기입력조사	51.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52. 자기입력조사	53. 자기입력조사	54.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55. 자기입력조사	56. 자기입력조사	57.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58. 자기입력조사	59. 자기입력조사	60.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61. 자기입력조사	62. 자기입력조사	63.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64. 자기입력조사	65. 자기입력조사	66.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67. 자기입력조사	68. 자기입력조사	69.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70. 자기입력조사	71. 자기입력조사	72.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73. 자기입력조사	74. 자기입력조사	75.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76. 자기입력조사	77. 자기입력조사	78.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79. 자기입력조사	80. 자기입력조사	81.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82. 자기입력조사	83. 자기입력조사	84.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85. 자기입력조사	86. 자기입력조사	87.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88. 자기입력조사	89. 자기입력조사	90.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91. 자기입력조사	92. 자기입력조사	93.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94. 자기입력조사	95. 자기입력조사	96.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97. 자기입력조사	98. 자기입력조사	99.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00. 자기입력조사	101. 자기입력조사	102.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03. 자기입력조사	104. 자기입력조사	105.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06. 자기입력조사	107. 자기입력조사	108.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09. 자기입력조사	110. 자기입력조사	111.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12. 자기입력조사	113. 자기입력조사	114.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15. 자기입력조사	116. 자기입력조사	117.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18. 자기입력조사	119. 자기입력조사	120.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21. 자기입력조사	122. 자기입력조사	123.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24. 자기입력조사	125. 자기입력조사	126.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27. 자기입력조사	128. 자기입력조사	129.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30. 자기입력조사	131. 자기입력조사	132.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33. 자기입력조사	134. 자기입력조사	135.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36. 자기입력조사	137. 자기입력조사	138.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39. 자기입력조사	140. 자기입력조사	141.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42. 자기입력조사	143. 자기입력조사	144.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45. 자기입력조사	146. 자기입력조사	147.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48. 자기입력조사	149. 자기입력조사	150.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51. 자기입력조사	152. 자기입력조사	153.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54. 자기입력조사	155. 자기입력조사	156.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57. 자기입력조사	158. 자기입력조사	159.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60. 자기입력조사	161. 자기입력조사	162.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63. 자기입력조사	164. 자기입력조사	165.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66. 자기입력조사	167. 자기입력조사	168.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69. 자기입력조사	170. 자기입력조사	171.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72. 자기입력조사	173. 자기입력조사	174.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75. 자기입력조사	176. 자기입력조사	177.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78. 자기입력조사	179. 자기입력조사	180.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81. 자기입력조사	182. 자기입력조사	183.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84. 자기입력조사	185. 자기입력조사	186.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87. 자기입력조사	188. 자기입력조사	189.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90. 자기입력조사	191. 자기입력조사	192.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93. 자기입력조사	194. 자기입력조사	195.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96. 자기입력조사	197. 자기입력조사	198.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199. 자기입력조사	200. 자기입력조사	201.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02. 자기입력조사	203. 자기입력조사	204.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05. 자기입력조사	206. 자기입력조사	207.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08. 자기입력조사	209. 자기입력조사	210.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11. 자기입력조사	212. 자기입력조사	213.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14. 자기입력조사	215. 자기입력조사	216.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17. 자기입력조사	218. 자기입력조사	219.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20. 자기입력조사	221. 자기입력조사	222.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23. 자기입력조사	224. 자기입력조사	225.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26. 자기입력조사	227. 자기입력조사	228.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29. 자기입력조사	230. 자기입력조사	231.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32. 자기입력조사	233. 자기입력조사	234.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35. 자기입력조사	236. 자기입력조사	237.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38. 자기입력조사	239. 자기입력조사	240.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41. 자기입력조사	242. 자기입력조사	243.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44. 자기입력조사	245. 자기입력조사	246.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47. 자기입력조사	248. 자기입력조사	249.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50. 자기입력조사	251. 자기입력조사	252.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53. 자기입력조사	254. 자기입력조사	255.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56. 자기입력조사	257. 자기입력조사	258.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59. 자기입력조사	260. 자기입력조사	261.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62. 자기입력조사	263. 자기입력조사	264.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65. 자기입력조사	266. 자기입력조사	267.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68. 자기입력조사	269. 자기입력조사	270.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71. 자기입력조사	272. 자기입력조사	273.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74. 자기입력조사	275. 자기입력조사	276.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77. 자기입력조사	278. 자기입력조사	279.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80. 자기입력조사	281. 자기입력조사	282.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83. 자기입력조사	284. 자기입력조사	285.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86. 자기입력조사	287. 자기입력조사	288.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89. 자기입력조사	290. 자기입력조사	291.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92. 자기입력조사	293. 자기입력조사	294.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95. 자기입력조사	296. 자기입력조사	297. 자기입력조사
조사일시	298. 자기입력조사	299. 자기입력조사	300. 자기입력조사

기 구 원 연 령 및 기 구 구 분

구 분	남	여	계
총 가 구 원			
15세 미만			
15세 이상			
대 상 기 구 원			
취 업 자			
실 업 자			
비경제활동인구			
제외대상(가정주부)	1. 없음	2. 없음	
가 구 구 분	1. 농가	2. 비농가	



I 인적사항

1 가군권 관리번호	2 가구주명의 관계	3 성별	4 생년월일
※ 1세대 영구거주지(주택)에 대한 번호 가군권번호(가군번호)	1. 가구주 2. 배우자 3. 조부모 4. 직계존속 5. 직계비속 6. 양친(양부모) 7. 양친(양부모) 8. 양친(양부모) 9. 양친(양부모) 10. 양친(양부모) 11. 양친(양부모) 12. 양친(양부모) 13. 양친(양부모) 14. 양친(양부모) 15. 양친(양부모) 16. 양친(양부모) 17. 양친(양부모)	1. 남자 2. 여자	1. 생년월일 2. 생년월일 3. 생년월일 4. 생년월일 5. 생년월일 6. 생년월일 7. 생년월일 8. 생년월일 9. 생년월일 10. 생년월일 11. 생년월일 12. 생년월일 13. 생년월일 14. 생년월일 15. 생년월일 16. 생년월일 17. 생년월일
3 교육경력		6 혼인상태	
0. 무학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전문대학 5. 대학 6. 대학원 7. 대학원(박사) 8. 대학원(박사) 9. 대학원(박사) 10. 대학원(박사) 11. 대학원(박사) 12. 대학원(박사) 13. 대학원(박사) 14. 대학원(박사) 15. 대학원(박사) 16. 대학원(박사) 17. 대학원(박사)		1. 혼인 2. 이혼 3. 재혼 4. 미혼 5. 미혼 6. 미혼 7. 미혼 8. 미혼 9. 미혼 10. 미혼 11. 미혼 12. 미혼 13. 미혼 14. 미혼 15. 미혼 16. 미혼 17. 미혼	

II 확인사항

7 지난 주에 주된 무직을 하였습니까?
1. 일하지 않음 → ()번으로
2. 일하지 않음
3. 일하지 않음
4. 일하지 않음
5. 일하지 않음
6. 일하지 않음
7. 일하지 않음
8. 일하지 않음
9. 일하지 않음
10. 일하지 않음
11. 일하지 않음
12. 일하지 않음
13. 일하지 않음
14. 일하지 않음
15. 일하지 않음
16. 일하지 않음
17. 일하지 않음

8 지난 주에 주된 일(주요 업무)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예
4. 예
5. 예
6. 예
7. 예
8. 예
9. 예
10. 예
11. 예
12. 예
13. 예
14. 예
15. 예
16. 예
17. 예

9 지난 주에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정(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예
4. 예
5. 예
6. 예
7. 예
8. 예
9. 예
10. 예
11. 예
12. 예
13. 예
14. 예
15. 예
16. 예
17. 예

10 지난 주에 직정(정)을 구체적으로 보았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예
4. 예
5. 예
6. 예
7. 예
8. 예
9. 예
10. 예
11. 예
12. 예
13. 예
14. 예
15. 예
16. 예
17. 예

11 지난 주에 직정(정)을 구체적으로 보았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예
4. 예
5. 예
6. 예
7. 예
8. 예
9. 예
10. 예
11. 예
12. 예
13. 예
14. 예
15. 예
16. 예
17. 예

12 지난 주에 주된 일 외에 다른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예
4. 예
5. 예
6. 예
7. 예
8. 예
9. 예
10. 예
11. 예
12. 예
13. 예
14. 예
15. 예
16. 예
17. 예

13 지난 주에 주된 업무로 총 몇 시간 일하였습니까?
1. 주일: 시간
2. 주일: 시간
3. 주일: 시간
4. 주일: 시간
5. 주일: 시간
6. 주일: 시간
7. 주일: 시간
8. 주일: 시간
9. 주일: 시간
10. 주일: 시간
11. 주일: 시간
12. 주일: 시간
13. 주일: 시간
14. 주일: 시간
15. 주일: 시간
16. 주일: 시간
17. 주일: 시간

14 평소 주일에 3시간 미만 일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예
4. 예
5. 예
6. 예
7. 예
8. 예
9. 예
10. 예
11. 예
12. 예
13. 예
14. 예
15. 예
16. 예
17. 예

15 지난 주에 일하는 시간을 늘리기 원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예
4. 예
5. 예
6. 예
7. 예
8. 예
9. 예
10. 예
11. 예
12. 예
13. 예
14. 예
15. 예
16. 예
17. 예

16 일을 더하거나 다른 직정(정)으로 바꾸는 것이 지난 주에 가능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예
4. 예
5. 예
6. 예
7. 예
8. 예
9. 예
10. 예
11. 예
12. 예
13. 예
14. 예
15. 예
16. 예
17. 예

17 지난 주에 다른 직정(정)을 찾아 본 적이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예
4. 예
5. 예
6. 예
7. 예
8. 예
9. 예
10. 예
11. 예
12. 예
13. 예
14. 예
15. 예
16. 예
17. 예

IV 구직에 관한 사항

18 지난 주에 직정(정)이 있었지만 일할 수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예
4. 예
5. 예
6. 예
7. 예
8. 예
9. 예
10. 예
11. 예
12. 예
13. 예
14. 예
15. 예
16. 예
17. 예

19 주로 어떤 방법으로 직정(정)을 구해 보았습니까?
(주요 것 2가지까지 선택)
1. 구직센터
2. 구직센터
3. 구직센터
4. 구직센터
5. 구직센터
6. 구직센터
7. 구직센터
8. 구직센터
9. 구직센터
10. 구직센터
11. 구직센터
12. 구직센터
13. 구직센터
14. 구직센터
15. 구직센터
16. 구직센터
17. 구직센터

20 구직활동을 임의 중단 계속 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예
4. 예
5. 예
6. 예
7. 예
8. 예
9. 예
10. 예
11. 예
12. 예
13. 예
14. 예
15. 예
16. 예
17. 예

21 원하는 직정(정)의 고용 형태는 무엇입니까?
1. 정규직
2. 비정규직
3. 정규직
4. 비정규직
5. 정규직
6. 비정규직
7. 정규직
8. 비정규직
9. 정규직
10. 비정규직
11. 정규직
12. 비정규직
13. 정규직
14. 비정규직
15. 정규직
16. 비정규직
17. 정규직

22 지난 주에 직정(정)을 원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예
4. 예
5. 예
6. 예
7. 예
8. 예
9. 예
10. 예
11. 예
12. 예
13. 예
14. 예
15. 예
16. 예
17. 예

23 지난 주에 직정(정)이 있었지만 일할 수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예
4. 예
5. 예
6. 예
7. 예
8. 예
9. 예
10. 예
11. 예
12. 예
13. 예
14. 예
15. 예
16. 예
17. 예

24 지난 주에 직정(정)을 구체적으로 보았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예
4. 예
5. 예
6. 예
7. 예
8. 예
9. 예
10. 예
11. 예
12. 예
13. 예
14. 예
15. 예
16. 예
17. 예

25 지난 주에 주된 일 외에 다른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예
4. 예
5. 예
6. 예
7. 예
8. 예
9. 예
10. 예
11. 예
12. 예
13. 예
14. 예
15. 예
16. 예
17. 예

26 전의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예
4. 예
5. 예
6. 예
7. 예
8. 예
9. 예
10. 예
11. 예
12. 예
13. 예
14. 예
15. 예
16. 예
17. 예

27 직정(정)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개인·가족 관련 이유
2. 개인·가족 관련 이유
3. 개인·가족 관련 이유
4. 개인·가족 관련 이유
5. 개인·가족 관련 이유
6. 개인·가족 관련 이유
7. 개인·가족 관련 이유
8. 개인·가족 관련 이유
9. 개인·가족 관련 이유
10. 개인·가족 관련 이유
11. 개인·가족 관련 이유
12. 개인·가족 관련 이유
13. 개인·가족 관련 이유
14. 개인·가족 관련 이유
15. 개인·가족 관련 이유
16. 개인·가족 관련 이유
17. 개인·가족 관련 이유

28 어디서 일하였습니까?
1. 개인·가족 관련 이유
2. 개인·가족 관련 이유
3. 개인·가족 관련 이유
4. 개인·가족 관련 이유
5. 개인·가족 관련 이유
6. 개인·가족 관련 이유
7. 개인·가족 관련 이유
8. 개인·가족 관련 이유
9. 개인·가족 관련 이유
10. 개인·가족 관련 이유
11. 개인·가족 관련 이유
12. 개인·가족 관련 이유
13. 개인·가족 관련 이유
14. 개인·가족 관련 이유
15. 개인·가족 관련 이유
16. 개인·가족 관련 이유
17. 개인·가족 관련 이유

29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1. 개인·가족 관련 이유
2. 개인·가족 관련 이유
3. 개인·가족 관련 이유
4. 개인·가족 관련 이유
5. 개인·가족 관련 이유
6. 개인·가족 관련 이유
7. 개인·가족 관련 이유
8. 개인·가족 관련 이유
9. 개인·가족 관련 이유
10. 개인·가족 관련 이유
11. 개인·가족 관련 이유
12. 개인·가족 관련 이유
13. 개인·가족 관련 이유
14. 개인·가족 관련 이유
15. 개인·가족 관련 이유
16. 개인·가족 관련 이유
17. 개인·가족 관련 이유

30 직정(정)에서의 자원은 무엇입니까?
1. 개인·가족 관련 이유
2. 개인·가족 관련 이유
3. 개인·가족 관련 이유
4. 개인·가족 관련 이유
5. 개인·가족 관련 이유
6. 개인·가족 관련 이유
7. 개인·가족 관련 이유
8. 개인·가족 관련 이유
9. 개인·가족 관련 이유
10. 개인·가족 관련 이유
11. 개인·가족 관련 이유
12. 개인·가족 관련 이유
13. 개인·가족 관련 이유
14. 개인·가족 관련 이유
15. 개인·가족 관련 이유
16. 개인·가족 관련 이유
17. 개인·가족 관련 이유

31 지난 주에 일(직)은 언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1. 개인·가족 관련 이유
2. 개인·가족 관련 이유
3. 개인·가족 관련 이유
4. 개인·가족 관련 이유
5. 개인·가족 관련 이유
6. 개인·가족 관련 이유
7. 개인·가족 관련 이유
8. 개인·가족 관련 이유
9. 개인·가족 관련 이유
10. 개인·가족 관련 이유
11. 개인·가족 관련 이유
12. 개인·가족 관련 이유
13. 개인·가족 관련 이유
14. 개인·가족 관련 이유
15. 개인·가족 관련 이유
16. 개인·가족 관련 이유
17. 개인·가족 관련 이유

32 고용 형태(근로)를 변경하였습니까?
1. 개인·가족 관련 이유
2. 개인·가족 관련 이유
3. 개인·가족 관련 이유
4. 개인·가족 관련 이유
5. 개인·가족 관련 이유
6. 개인·가족 관련 이유
7. 개인·가족 관련 이유
8. 개인·가족 관련 이유
9. 개인·가족 관련 이유
10. 개인·가족 관련 이유
11. 개인·가족 관련 이유
12. 개인·가족 관련 이유
13. 개인·가족 관련 이유
14. 개인·가족 관련 이유
15. 개인·가족 관련 이유
16. 개인·가족 관련 이유
17. 개인·가족 관련 이유